

**『4단계 BK21사업』 혁신인재양성사업(산업·사회 문제 해결 분야)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

| | | | | | | | |
|---|--|-------------------|-------------------|-------------------|-------------|-------------|------------------|
| 접수번호 | 5199990114231 | | | | | | |
| 신청분야 | 인문사회 융복합 | | | | 단위 | 전국 | |
| 학술연구분야 분류코드 | 구분 | 관련분야 | | 관련분야 | | 관련분야 | |
| | | 중분류 | 소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분류명 | 국제/지역개발 | 새마을/ 국제개발협력 | 경제학 | 경제학일반 | 사회학 | 비교사회학/ 세계지역연구 |
| | 비중(%) | 40 | | 30 | | 30 | |
| 교육연구 단명 | 국문) 신국가전략을 위한 다학제적 국제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영문) Cultivating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 Leaders in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International Area and Development Cooperation for a New National Strategy | | | | | | |
| 교육연구 단장 | 소 속 | 서울대학교 | | 국제대학원 | | 국제학과 | |
| | 직 위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 | | | |
| | 성명 | 국문 | 박태균 | | 전화 | 02-880-8500 | |
| 영문 | | Park Tae Gyun | | 팩스 | 02-879-1496 | | |
| | | | | 이동전화 | | | |
| | | | | E-mail | | | |
| 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 | 구분 | 1차년도 (209~212) | 2차년도 (213~222) | 3차년도 (223~232) | | | |
| | 국고지원금 | 400 | 800 | 800 | | | |
| 총 사업기간 | 2020.9.1.-2027.8.31.(84개월) | | | | | | |
| 자체평가 대상기간 | 2021.9.1.-2022.8.31.(12개월)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4단계 BK21사업』 관련 법령, 귀 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평가보고서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10월 5일</p> | | | | | | | |
| 작성자 | 교육연구단장 | | | | 박 태 균 (인) | | |
| 확인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 최 해 천 (인) | | |

〈자체평가 보고서 요약문〉

| 중심어 | 지역학 | 국제개발학 | 융복합적 지식 |
|-----------------------------------|--|------------|---------|
| | 전문지식창출 | 학문후속세대 | 전문혁신인력 |
| | 신국가전략 | 개발-지역 매트릭스 | 학문생태계 |
|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달성정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교육연구단은 “국가전략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학과 국제개발을 선도하는 다학제적 학문후속세대와 전문 혁신인력 양성”이라는 비전에 따라 교육, 연구, 국제화 세 방향에서 세부 목표를 추진해 왔으며, 주 단위, 월 단위로 각각의 세부추진 목표에 따른 실적을 수시로 분석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교육역량 영역에서는 다학제적 교육, 총체적 지역학 교육, 지역학과 국제개발의 융복합적 접근에 따른 교육을 시행해 왔고, 연구역량 영역에서는 4대 주제인 지속가능발전, 민주적 거버넌스, 경제사회정책, 그리고 국제협력에 대해서 인문학적 통찰과 사회과학적 지식의 융합을 추구하며 심화된 연구역량을 향상해 왔음. 국제화 영역에서는 아시아의 국제개발 및 지역학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세계저명대학, 국제기구,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 및 네트워킹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 |
| 교육역량 영역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9월 ~ 2022년 8월까지 석사과정 SSCI급 논문 1건, KCI급 논문 4건, 박사과정 SSCI급 논문 1건, KCI급 논문 3건을 게재하였음. - 참여대학원생 총 12명이 14건의 국제·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였음. 이 중 석사과정 5명은 신진연구인력의 주도로 학기중 운영되는 BK21 대학원생 소그룹(Graduate Working Group)을 통해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를 위한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결과물을 학회에서 발표함. - 제2차년도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위한 사례집 I (개관·지역 사례연구)’를 통해 총 13개의 주제별 사례연구를 수행함 (2021년 5월~10월).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 1인과 참여대학원생 1인이 팀을 이뤄 공동연구를 진행함 (참여교수 7명, 신진연구인력 2명, 참여대학원생 13명). 사례연구집을 보고서 형태로 발간완료 (2021년 12월). - 제3차년도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교재개발 II - 국제개발과 포용적 성장: 젠더·빈곤·교육 사례연구’ 교재개발사업(2022년 5월~10월)을 통해 총 11개 주제에 대해 각 사례연구별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 1인과 참여대학원생 1인이 팀을 이뤄 공동연구를 진행함 (참여교수 7명,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대학원생 11명). 외부토론자 자문을 구하기 위해 2022년 8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2년 2학기 중 최종결과물을 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임. - 참여대학원생 논문발표 (GSIS BK21 워크숍) 발표: 2021년 2학기 (석사과정 4명 발표, 토론 박사과정 4명), 2022년 1학기 (박사과정 4명 발표, 토론 박사과정 3명) - 지역별 라운드테이블 참여: 라틴아메리카 라운드테이블, 일본 라운드테이블 - 참여교수진은 한국학, 중남미지역, 국제개발협력, 일본의 사회문화, 사회경제개발, 신국가안보전략, 개도국 국제안보문제, 국제무역과 통상법, 국제경제와 개발, 동남아 개도국의 경제성장, 국제이주와 개발·젠더, 국제개발 평가체계, 중국문화와 사회, 한국정치 등 다양한 정규수업을 운영해오고 있음. 이 밖에 비정규, 외부 특강도 다양하게 진행하며 교육과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 |
| 연구역량 영역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한국의 지역학과 국제개발의 생태계를 선도하는 학문적 수월성 증진”이라는 연구목표에 따라 개발학과 지역학, 또는 두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이론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의미 있는 지식을 제공하며, 4대 주제인 지속가능발전, 민주적 거버넌스, 경제사회정책, 그리고 국제협력에 대해서 인문학적 통찰과 사회과학적 지식의 융합을 추구하며 연구를 진행해 왔음. - 2021년 9월 ~ 2022년 8월 기간 중, 동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13인의 논문·저서 실적은 국제저명(SCI급) 논문 총 14건, 연구재단등재지(KCI급) 논문 총 15건, 저서 총 7건, 국 | | |

| | |
|-------------------------------|--|
| | <p>제기타논문 총 1건이며, 이외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국내학술회의에서 활동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김종섭 교수가 연구재단등재지 (KCI) 학술지 중남미연구에 게재한 Kim, Chong-Sup and Yoo Jimin (2022) “Do Remittances Reduce Poverty and Inequality of Sending Regions? - A Case Study of Mexico” , 김태균 교수가 국제저명 (SCOPUS) 학술지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에 게재한 Kim, Taekyoon and Shin-wha Lee (2022). “The Embedded Conundrum of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A Prologue to Shifting Frontiers from Collaboration to Contention” , 오윤아 교수가 국제저명 (SSCI) 학술지 Asian Survey에 게재한 Oh, Yoon Ah (2022). “The Vulnerability Effect that Wasn’ t: Trade Dependence and Entry Bans on China at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Pandemic” 이 있음. -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동 교육연구단의 연구역량 강화는 물론 참여대학원생 연구와 교육의 기회로 활용됨으로써 교육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 <p>달성 성과 요약</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계획서상 단기 목표였던 교육연구단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차년도에는 중기 목표인 현장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임. 이를 위해 교육의 국제화 부문에서 국제공동강의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교 진행중, 중국 연변대학교, 태국 출라롱콘대학교 논의중)를 적극 추진 중임. - 교육의 국제화 부문에서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주제별·지역별 공동연구 네트워크 및 워크숍을 활성화하고자 함. 또한 동 교육연구단과 주요 대학 및 국제대학원 내·외 프로그램과의 공동 주최로 국제학술대회를 다수 개최함. -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개발정책과정(DCPP) 프로그램으로 국제대학원에 입학한 해외 학생들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연구 및 지역사례연구를 위한 교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국제화 분야의 활동을 이어옴. -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는 국제대학원 전공 간 장벽을 없애는 방안 추진, 사회문제 및 한국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인 대상 방송 강연 및 기업인 대상 현장 중심 연구 확대, 한국 정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민간위원 활동, 국정운영시스템 국외사례 조사 등을 수행, 저개발국가 개발분야 직접적 참여를 위해 KOICA 지원을 받아 개도국 양성평등 관련 부처 공무원 대상 연수 및 KOICA ODA 사업 포트폴리오 평가 용역 등을 진행함. |
| <p>미흡한 부분 / 문제점 제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대한 외부자문위원의 의견에 따르면, 동 교육연구단은 교육역량 측면에서 “교육연구단의 비전에 부합하는 노력이 돋보이며 국제개발 전공을 성공적으로 신설한 점이 뛰어나지만,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융복합적 교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을 시사함. 또한, 연구역량 영역에서는 “단기간에 많은 실적을 도출한 참여교수의 연구역량과 양적·질적 연구성과가 뛰어나며, 향후 참여대학원생의 학술논문의 수와 연구역량을 보다 높일 필요성”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신설된 국제개발 전공과 기존 전공간의 조화를 이루고,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융복합 교육 및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 <p>차년도 추진계획</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적 교류와 관련된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해외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온라인 화상 세미나, 온라인 강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공동연구 진행, 학생 주도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를 추구하고 왔음. 이를 발판으로 4차년도 이후에는 해외대학과의 공동연구, 공동강의, 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 참여 등 국제화 활동에 보다 많은 지원을 투입하고자 계획함. - 참여교수는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중국 산둥대학교 등의 국제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코로나팬데믹이라는 전지구적 공통의 도전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방식에 대한 연구 등 국제개발과 지역의 특수성을 연결하는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추진할 예정임. |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 | | | | |
|---------|-----|-------|---------|---------------|
| 성 명 | 한 글 | 박태균 | 영 문 | Park Tae Gyun |
| 소 속 기 관 | | 서울대학교 | 국제대학(원) | 국제학과(부) |

1) 연구역량

- 박태균 교수는 2003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전임교수로 임용된 이래 국제대학원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행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 연구부문에서 국제대학원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전체에서 가장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2019년 서울대 전체에서 매년 10명의 교수에게만 주는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였음. 한국사를 연구하는 인문학 연구자로서는 드물게 총 6편의 SSCI급 저널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1995년 이후 현재까지 11편의 단독저서를 출간하였음.
- 학술논문 DB인 dbpia에 의하면 박태균 교수는 현재 연구자 중 역사학에서 상위 1%, 인문학 일반에서 상위 10%, 군사학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연구역량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연구역량을 학계로부터 인정받아 역사학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인 “역사비평”의 주간으로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활동하였음.

2) 교육역량

- 박태균 교수는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국제대학원의 한국학 전공주임 및 한국학센터 소장으로서 수많은 국내외 학생들을 양성하였음. 국내 학생들 중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현재 미국 UPenn 대학의 박사후과정,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멜버른 대학교 교수, 산둥대학교 교수, 출라롱콘 대학교 교수, 호치민 대학교 교수, 하노이 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등으로 활동 중임.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한국과 독일의 전후 복구과정을 비교하는 “한미관계사” e-School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2017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학부 4학년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한원조정책 관련 내용을 다룬 한미관계사 강의를 개설함.
- 석사학위 취득자들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외국인 중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은 자국의 한국학 강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그 외의 학생들은 국제기구(UN)와 기업에 취업하여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음.
- 이러한 교육에서의 공로로 2005년과 2013년 국제대학원 교육상을 수상하였음.

3) 행정역량

- 박태균 교수는 2005년부터 국제대학원의 한국학 전공주임과 한국학센터의 소장으로서 전공과 연구센터를 이끌어 왔음. 2006년에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현 통일평화연구원)의 출범을 주도하고 출판자료실장으로서 연구소 발전의 디딤돌을 놓았음. 2008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국제한국학센터 소장으로서 서울대학교 전체 한국학 교류를 중심으로 이끌었음.
- 2019년 2월부터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주간으로서 활동하며 과거 신문사 내 교수와 학생 기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2019년 12월 성공적으로 2000호 발간을 이끌었음.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외교부 산하 감사위원으로서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외교부 감사, 국제교류재단 운영자문위원으로서 재단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음.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산둥대학교 후단대학의 한국학 겸무교수로 임명됨.
- 2015년 9월부터 2017년 7월,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제대학원 부원장으로서,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으로서 국제대학원의 교무, 학사행정을 주도하였음.

2. 대학원 신청학과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 1-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전임 교수 현황 (단위: 명, %)

| 신청학과(부) | 기준 학기 | 전체교수 수 | | | 참여교수 수 | | |
|---------|-----------|--------|----|----|--------|----|----|
| | | 전임 | 겸임 | 계 | 전임 | 겸임 | 계 |
| 국제학과 | 2021년 2학기 | 23 | 0 | 23 | 13 | 0 | 13 |
| | 2022년 1학기 | 23 | 0 | 23 | 12 | 0 | 12 |

<표 1-2> 최근 1년간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겸임 교수 변동 내역

| 연번 | 성명 | 변동 학기 | 전출/전임 | 변동 사유 | 비고 |
|----|-----|-----------|-------|-------|----|
| 1 | 안덕근 | 2022년 1학기 | 전출 | 휴직 | - |

<표 1-3>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지도학생 현황 (단위: 명, %)

| 신청학과(부) | 기준 학기 | 대학원생 수 | | | | | | | | | | | |
|----------------|-----------|--------|----|-----------|-----------|----|-----------|---------|----|-----------|-----|-----|-----------|
| | | 석사 | | | 박사 (수료포함) | | | 석·박사 통합 | | | 계 | | |
| | | 전체 | 참여 | 참여 비율 (%) | 전체 | 참여 | 참여 비율 (%) | 전체 | 참여 | 참여 비율 (%) | 전체 | 참여 | 참여 비율 (%) |
| 국제학과 | 2021년 2학기 | 298 | 90 | 30 | 40 | 12 | 30 | 0 | 0 | 0 | 338 | 102 | 30 |
| | 2022년 1학기 | 282 | 95 | 34 | 37 | 14 | 35 | 0 | 0 | 0 | 319 | 109 | 34 |
|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 | | | 1:8 | | | | | | | | | |

- 1) **현황:** 참여교수 12명 / 신진연구인력 2명 (연구교수 1명, 박사후연구원 1명) / 행정전담인력 1명
 2) **변경:** 2022년 5월 09일 참여교수 휴직 (안덕근 교수) - 2022년 10월 1일 참여교수 충원 예정
 2022년 6월 30일 신진연구인력(연구교수) 1명 퇴직 (김정민 박사)
 2022년 8월 01일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1명 충원 (심예리 박사)

3.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정도

1)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교육, 연구, 국제화 등)

- (1) **비전 및 목표:** “국가전략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학과 국제개발을 선도하는 다학제적 학문후속세대와 전문 혁신인력 양성”
- (2) **교육:** 동 교육연구단은 지역학과 국제개발의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확립할 수 있는 학문후속세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음.
- 국제개발학의 체계적인 세부분야의 이론과 실재를 아우르는 다학제적 교육을 제공하였음.
 - 지역별로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지역학 교육을 제공하였음.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범분야(crosscutting) 의제로서 지역학과 국제개발의 융복합적 접근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였음.

- 특히, 2022년 1학기에는 교육연구단의 대표적 추진과제였던 국제개발 전공 신설을 완료하였음. 이에 따라 신입교수를 총원(2022년 9월 임용)하고 관련 교과과정을 재편·신규 개설 (‘개발원조사업의 수행과 평가’, ‘국제개발세미나1: 판데믹대응과 국제개발’ 등) 하여 교육관련 목표를 크게 달성하였으며 제도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갖추.

(3) 연구: 한국의 지역학과 국제개발의 생태계를 선도하는 학문적 수월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개발학과 지역학, 또는 두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는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국가전략의 이론적·정책적 지식을 제공하는 개발학과 지역학 중심의 국제협력을 선도하고자 함.
- 서울대 국제대학원 소재 국제학연구소와 협력할 뿐 아니라 다양한 학술연구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개발학과 지역학의 연구성과가 체계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함.
- 인문학과 사회과학, 지역학과 국제개발을 융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4대 주제(지속가능발전, 민주적 거버넌스, 경제사회정책, 국제협력)와 4대지역(동남아시아/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중앙아시아/기타지역)이 교차하는 다양한 연구분야를 확립해 왔음.
- 특히, 참여대학원생의 국내·국제학술회의 발표와 논문게재, 해외 학생공동연구 및 교육연구단 주최 국제회의 개최 등 여러 가지 연구실적을 도출함.

(4) 국제화: 아시아의 국제개발 및 지역학의 허브로 성장하며, 세계 저명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학문의 수월성 확립

- 국제개발 분야에서 학문의 수월성을 진작하여 3년 내에 QS 등 세계대학 순위를 집계하는 리스트 50위 안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학문적, 제도적 노력을 전개해 왔음.
- 세계 저명대학과 정기적 연구 및 학생교류를 활성화하여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역학의 지식 공유 강화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학계뿐 아니라 국제지역·개발 분야의 국제기구(UN기구, 세계은행 등) 및 연구소(IDS, ODI, CSIS, Brookings Institute 등)와 교류를 진작하여 향후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양성한 전문인력이 해당 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 및 네트워킹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음.
- 해외인턴십 파견이 용이하지 않은 시기였으나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개발정책과정(DCPP) 프로그램으로 국제대학원에 입학한 해외 학생들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연구 및 지역사례연구를 위한 교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국제화 분야의 활동을 이어옴. 특히, SNU-Chul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및 태국 출라롱콘대학교 간 2008년 협정체결을 시작으로 매년 1학기 10명 이상의 출라롱콘대학 한국학 전공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원이 강의를 진행하는 등의 학술교류 프로그램임. 2022년 상반기에도 출라롱콘 대학 학생 10명이 서울대로 파견을 왔으며, 이 같은 교류는 4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융복합적 연구를 위한 저명대학 벤치마킹

- (1) 신청당시 QS등 세계대학 순위 집계 국제개발학과 지역학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주요 세계저명 대학을 벤치마킹하여 동 교육연구단의 미래지향적 목표로 설정함. 이를 위해 영국의 서섹스 대학교(University of Sussex)와 동양아프리카대학교(SOAS),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를 3대 해외 벤치마킹 대학으로 선정함.
- (2) 서섹스 대학교의 전방위형 운영방식을 본 교육연구단이 추구하는 주제별 연구의 기초 플랫폼으로 수용하고, 동시에 SOAS의 지역중심형 방식을 4개의 지역부문에 기초플랫폼으로 활용하며, 이를 토대로 스탠포드 대학교의 개발학-지역학의 융복합적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고자 함.
- (3) 이를 위해 현재 대학원 전공설계 마련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연구 (Inno-Edu 2031: 서울대 창의교육프로젝트)를 통해 국제대학원의 전공 간 장벽을 없애으로써 대학원생들이 전공을 설계하고 학칙

상 전공을 교과목상 전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안했음. 또한, 보건대학원, 환경대학원 분야를 국제대학원의 분야와 결합하여 다양한 공동교과목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이는 지역학과 국제개발의 융복합적 접근에 따른 교육·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함.

3)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애로사항 등

- 지난 1~2차년도 기간 코로나19 관련 여러 규제로 인해 장기해외현지조사, 해외인턴십 파견, 해외공동연구, 방학중 방문연수 프로그램 등 실무경험과 국제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려 하였던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어려웠음.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세미나/회의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석학초청특강 시리즈, 동문초청특강 시리즈, 대학원생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성, 국제학술회의 조직·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를 추구해 왔음.
- 목표달성을 위한 애로사항으로 생각되었던 비대면 행사는 오히려 대면형태로 기획되었을 때보다 빈번한 국제화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으며, 관심사가 다양한 참여대학원생의 학문분야·진로관련 수요를 다방면으로 충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음. 특히,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국제화 활동 및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참여대학원생들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해외학술대회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역별(라틴아메리카, 일본) 라운드테이블을 활용하여 국내·해외 학생들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특히, 교육연구단이 제안한 ‘개발-지역 매트릭스’를 중심으로 지역적 다양성에 기반한 다수의 문제해결형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간이었음. 그간 온라인형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단기간에 빠르게 형성할 수 있었던 여러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4차년도 이후부터는 직접 해당 국가 또는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해외공동연구 및 대면 국제학술회의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산업·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론과 실습을 교차 활용한 문제해결형 교육·연구·국제화 활동을 더욱 폭넓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교육역량 대표 우수성과

○ 국제개발 전공신설 및 관련 교과목

- 교육연구단의 대표적 추진과제였던 국제개발 전공 신설을 완료 (2022년 1학기)
- 신입교수를 충원(2022년 9월 임용)하고 관련 교과과정을 재편·신규 개설함
 - 2021년 2학기부터 2022년 1학기까지 국제개발과 지역학 관련 교과목은 20여개가 개설되었으며, 대표적 신규개설 과목으로는 ‘개발원조사업의 수행과 평가’, ‘국제개발세미나1: 판데믹대응과 국제개발’ 이 있음. 2022년 2학기에는 ‘국제개발세미나1: 환경과 개발’ 과목과 ‘국제개발세미나1: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목 등이 개설됨. 국제개발과 지역학의 융합적 연구 비전에 따라 교육관련 목표를 크게 달성하였으며 제도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갖춤.
 - 학생수요에 따라 향후 신규 교과목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임 (보건과 국제개발, 환경과 국제개발, 아프리카 거버넌스와 정치, 아프리카 대외관계사, 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의 경제발전 등).

○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

- 2021년 9월 ~ 2022년 8월 기간 중, 동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의 논문·저서 실적은 다음과 같음:
 - KCI급 논문게재 총 7건, SSCI급 논문게재 총 2건
-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의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실적은 다음과 같음:
 - 국제학술회의 발표 총 4건, 국내학술회의 발표 총 10건
 - 지역별 라운드테이블: 라틴아메리카 라운드테이블(총 22회 개최)
일본 라운드테이블(자유토론 세션 포함 총 9회 개최)
- 대학원생 논문발표회 (GSIS BK21 Workshop)
 - 2021년 2학기 - 발표: 석사과정 4명, 토론: 박사과정 4명, 사회: 신진연구인력
 - 2022년 1학기 - 발표: 박사과정 4명, 토론: 박사과정 3명, 사회: 신진연구인력
- 국제개발·지역학 교재개발 지역사례 공동연구 참여
 - 제2차년도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위한 사례집 I - 개관·지역 사례연구’
총 13개 주제에 대해 참여대학원생이 각각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과 공동으로 사례연구 완료 및 2021년 12월 최종보고서 발간 (참여교수 7명, 신진연구인력 2명, 참여대학원생 13명 공동집필)
 - 제3차년도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위한 사례집 II - 국제개발과 포용적 성장: 젠더·빈곤·교육 사례연구’
총 11개 주제에 대해 참여대학원생이 각각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과 공동사례연구 진행중 (참여교수 7명,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대학원생 11명 공동집필중)

○ 참여교수 교육대표실적

- 동 교육연구단이 제안한 ‘개발-지역 매트릭스’ 중심으로 산업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개발-국제지역학 전공간 연계성을 공고화하기 위해 전공 및 지역별 개설 교과목을 재정비하였으며, 일부 교과목은 세부전공간 상호인정을 위한 신설·검토 작업중에 있음.
- 동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진은 한국학, 중남미지역, 국제개발협력, 일본의 사회문화, 사회경제개발, 신국가안보전략, 개도국 국제안보문제, 국제무역과 통상법, 국제경제와 개발, 동남아 개도국의 경제성장, 국제이주와 개발·젠더, 국제개발 평가체계, 중국문화와 사회, 한국정치 등 다양한 정규수업을 운영해오고 있음. 이 밖에 비정규, 외부 특강도 다양하게 진행하며 교육과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몇 가지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박태균 교육연구단장은 2022년 3월 KNN ‘최강1교시 - 한미 동맹의 오해와 진실 편’,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60회가량 출연중인 국방TV ‘역전다방(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등의 방송활동을 통해 일반인 대상 교양역사 강의활동을 꾸준히 이어옴.
- 이수형 교수는 11월 구글에서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커뮤니티이자 경진대회 플랫폼인 ‘캐글(Kaggle) 데이터 분석 대회’에서 공동연구자와 한국인 최초 우승을 거둠.
- 김태균 교수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센터장으로서 ‘서울대 아프리카 세미나’ 시리즈를 조직·기획하여, 교내외 아프리카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학술교류의 기회를 제공함.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1)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현황

- 전문대학원인 국제대학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운영되며, 2022년 8월 기준, 석사과정은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개발, 국제지역학, 한국학 다섯 가지 전공(입학정원: 연간 총 75명)으로 구성되며, 박사과정은 국제학과(입학정원: 연간 총 5명)로 통합 운영됨.
- 2022년 8월 기준 전임교원은 총 23명으로, 전공별로 국제통상전공 4명, 국제협력전공 5명, 국제개발전공 2명, 국제지역학전공 8명, 한국학전공 4명이 각 전공소속 학생들을 담당함. 국제개발 전공을 신설함에 따라 국제개발(보건, 환경분야) 신입교수 1명을 채용하였으며 2022년 9월 1일 임용됨.

2) 현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장점

- 본 교육연구단이 소속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은 국내의 국제대학원 중 유일하게 동북아, 동남아, 중남미, 유럽 지역연구와 국제통상, 국제개발, 국제협력 전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을 수행한다는 특징점이 있음.
- 전문대학원으로서 전 교육과정을 영어 및 현지 언어(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로 강의하며, 실용적 지식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국제개발학·지역학 분야 후속세대와 전문 혁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학제적인 방식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2021년 2학기 국제개발 전공 신설. 2022년 1학기 전공 공식출범식을 개최하고 국제개발전공 신입생 4명 선발. 향후 학기당 4명, 연간 총 8명의 국제개발전공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 국제개발전공 신설에 따라 타전공 교과목이동(국제개발 정책평가, 경제성장과 국제개발 등), 신규교과목개설(개발원조사업의 수행과 평가, 국제개발정책론, 국제개발세미나 [환경과 개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젠더·정치와 정책]) 등 교과과정을 재정비함.
- 외국어 강의의 비중이 높아 국내외 우수 인력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체 재학생의 약 절반이 외국인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석사과정: 학생들은 4개 학기 동안 13과목(39학점)을 수학하도록 하며 이론과목 외에 실무과목 총 6개(18학점)를 수강하도록 하고 있음. 수업은 주로 사례연구, 토론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실천적 감각과 국제무대에서의 협상능력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석사과정은 타대학보다 현저하게 높은 졸업요건(이수학점 수, 영어 어학능력, 제2외국어시험, 논문종합시험)을 요구하며, 논문계획서심사 1회와 논문종합심사 1회를 거쳐 이를 통과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함.
- 박사과정: 박사과정은 4개 학기 동안 15과목(45학점)을 이수하도록 함. 밀도 높은 교과목 수강과

영어 어학능력, 제2외국어 점수, 논문자격시험 종합시험, 논문출판요건(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그리고 총 4회에 걸친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박사학위를 수여함. 박사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영어 또는 현지어로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있음.

- 세부전공 별로 2-5명의 전공주임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교수와 학생의 정기적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지도하고 있음. 또한, 매 학기 전공주임 지도교수들이 논문작성 워크숍, 학생들의 연구논문 발표회, 지역별 라운드테이블 운영 등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이 소통 및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교육연구단의 대표적 교육목표에 대한 달성방안 및 계획

- 동 교육연구단의 대표적 추진 과제였던 국제개발 전공 신설을 완료하였음. 국제질서 재편과 한국의 위상 변화에 따른 국제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본격적으로 글로벌 남반구의 개발문제를 다학제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인 국제개발 전공을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국제통상, 국제협력, 지역학, 한국학의 4개 전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국제학의 토대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음.
- 교육과정에서 존재하는 전공 간의 학점인정 과목 역시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연구분야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더욱 전면적인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하여, 이를 운영 계획에 포함함. 학생들은 국제대학원의 5개 전공 중 하나에 소속되어 전공별 필수교과목 및 선택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으나,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학생 개인의 연구 혹은 비전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전공 설계의 자유는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과정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학생들이 개별 전공의 경계를 넘어 보다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음.
- 2022년 3월부터 1년간 박태균 교육연구단장의 주도하에 “대학원 전공 설계 마련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연구” (지원기관: 서울대학교) 과제가 진행 중임. 기존 학칙상 전공을 새롭게 ‘교과목상 전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제대학원의 전공 간 장벽을 허물고 대학원생들이 자율적으로 전공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론과 현장을 결합하기 위한 국제학 실무과목 강화, 상호인정 교과목 확대, 타전공 교과목 수강 장려를 통해 교육과정을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전문대학원들이 서로 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재 보건대학원, 환경대학원의 교과목을 국제대학원의 분야와 결합한 다양한 공동교과목을 생성하고자 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실시할 경우, 국제대학원 학생들이 보건학 및 환경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뒤 이를 국제학과 융합된 교과목상 전공으로 학위를 받도록 과정을 개편하고자 함. 또한, 학부의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자유전공학부와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 중임.

4)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운영계획 대비 최근 1년간의 실적

- 국제대학원은 세부전공인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개발, 국제지역학, 한국학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전공신설에 따라 기존 교육프로그램 활용과 신규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전공과목 이동·상호인정과목 확대, 신규교과목 개설 등, 전공운영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였음. 또한 BK21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연구중점분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 교육연구단 학술활동에 참여하며 참여대학원생이 연구주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한 연구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음.

- 교육연구단이 제안한 ‘개발-지역 매트릭스’ 를 중심으로 산업·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을 교차 활용하며 문제해결형 사례연구 중심의 교과목 구성을 더욱 독려하고자 함. 이를 위해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기타지역(중동, 중앙아시아 등) 등 기존 지역기반 교과목에 대한 상호인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제개발-지역학 전공 간 연계성을 공고화하기 위해 전공 및 지역별 개설 교과목을 재정비 중임.
- 이론과 현장을 결합하기 위한 국제학 실무과목 강화를 추진하고 세부전공 간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상호인정 과목을 확대하였으며, 타전공 교과목 또한 수강을 장려함. 특히, ‘국제지역·개발의 융합적 접근’, ‘국제지역·개발 연구를 위한 연구윤리’, ‘국제개발세미나’ 강의를 대학원 내 공통과목으로 확대 개설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수강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국제지역·개발 관련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또한, 학생들의 학업기초역량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거나, 졸업전까지 기초교육원에서 개설된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 중 ‘기초역량’ 과목을 졸업전까지 3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함. 이 중 ‘연구윤리의 이해’ 과목은 필수적으로 수강하게끔 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윤리의식 강화 및 교육과정의 충실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5) 교육-연구 선순환구조 구축방안 및 연구연량의 교육적 활용방안

-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연구중점분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 교육과정 속에서 연구 아이디어 및 주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외부적 여러 채널을 통한 연구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음.
- 내부적으로는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 간 교류와 소통 및 공동연구 기회를 확대하여 국제대학원 구성원들의 연구역량이 학문후속세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매 학기 전공주임 지도교수들의 논문작성 워크숍, 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결과 발표회, 지역별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 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BK연구장학금을 최소 한 학기 이상 받은 참여대학원생은 졸업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석사과정생)·게재(박사과정생)하거나, 국내·국제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를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졸업을 앞둔 참여대학원생 중 일부 학생들을 선정하여 학기말 방학중 BK21워크샵(GSIS BK21 Workshop)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학술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해당 워크샵은 2022년 2학기부터 월례행사로 정례화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발표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함.
- 외부적으로는 다학제적 학술 강연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활발한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함. 특히, 교육연구단 주최 해외석학초청특강 시리즈(Special Lecture Series), 동문초청특강 시리즈(Career Development Series),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기울이고 있음. 이로써 학생들이 선후배, 신진연구자, 참여교수진,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초청된 전문가 및 해외 석학들과의 교류를 늘리고, 최신 연구동향을 접하며, 유관분야 조연자와 소통기회를 다방면으로 마련함.
- 또한, 국제개발·지역연구의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개발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한·중·일 대학원생들이 주도하는 국제공동연구 지원, 방학중 글로벌개발포럼(Global Development Forum)과 대학원생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Conference)를 개최하는 등, 구성원의 공동연구 성과가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관심분야와 주제를 조사하여 참여대학원생의 교육활동, 연구활동, 그리고 국제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진행하고자 함.
- 특히, 2022년부터 2년간 진행되는 ‘대학원 전공 설계 마련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연구’ 를 통해

BK21프로그램과 연계가능한 교과·비교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임. 국제대학원 개발정책 과정(DCPP)의 일부 실무교과목 활용, 개발세미나 전문가초청특강, 인턴십 과목 개설, 경력개발세미나, 독립연구 등을 더욱 확대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이론의 실무적용능력 및 리더십 함양을 기대함.

6) 해외 대학과의 공동강의를 공동연구로 확장 - 공동교과목 개설 등 계획

- 기존 해외대학과의 공동교과목 운영 지속(캠퍼스아시아) 및 신규과목 개발·개설을 통해 공동강의를 향후 공동연구로 확장하고자 함. 2022년 2학기부터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과 공동교과목을 개설하기로 했으며, 겨울방학 중 자유베를린대학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임. 향후 중국연변대학교 융합대학원 한국학과와의 공동강의(신청서상 공동교과목명: 동북아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전략), 태국 출라롱콘대학교와의 공동강의(신청서상 공동교과목명: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국제이주 연구)를 개설하고 이를 장기적인 국제공동연구로 발전시키고자 함.
- 기존 대학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제지역·개발을 전공한 외국인 교수의 특별채용을 계획한 바 있음.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는 2022년 5월 26일, 호환재단(The Australia-Korea Foundation), 우드사이드 에너지(Woodside Energy Ltd.)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파견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는 향후 3년간 호주학 관련 교수가 파견될 예정(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이며 본 협약은 호주 대학과의 교원교류, 공동 학술행사 개최, 교환학생 제도실시 등 활발한 인적자원 육성의 기반이 될 것임.
- 국제개발 전공 신설에 따른 전임교원 채용과 외국인 교수파견을 위한 협정체결을 통해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음.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진과 해외대학 교원교류를 통해 파견된 교수진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교육연구단의 국제화 역량을 향상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측면에서 여타 해외대학과도 유사한 교원교류 제도를 더욱 활발히 모색할 계획임.

7) 전임교수 대학원 강의 계획 대비 최근 1년간 실적·신규개설강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전임교원 23명 중 총 13명이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에 해당함. 인문학적·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지역학으로서 한국학 연구를 진행하는 박대균 교수(교육연구단장), 중남미 지역연구와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하는 김종섭 교수, 국제개발협력 이론과 정책을 강의하는 김태균 교수, 일본사회문화 관련 강의를 담당하는 박지환 교수, 사회경제개발을 연구하는 송지연 교수, 신국가안보전략과 개도국 국제안보문제 관련 강의를 전담하는 신성호 교수, 국제무역과 통상법 관련 강의를 전담하는 안덕근 교수(2022년 5월 기준 휴직으로 인한 참여종료, 2022년 10월 중 신규 참여교수 등록 예정), 국제경제와 개발을 연구하는 안재빈 교수, 동남아 개도국의 경제성장 등 개발 전반의 문제를 탐구하는 오윤아 교수, 국제이주와 개발·젠더 관련 강의를 담당하는 은기수 교수, 국제개발 평가체계를 연구하는 이수형 교수, 중국문화와 현대중국의 사회문제 등을 연구하는 정종호 교수, 한국의 정치·경제적 외적 수요 및 내적 규범 등 정치과정의 이해 관련 수업을 담당하는 한정훈 교수가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해왔음.
- 국제개발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맞추고자 여러 강좌가 신설되었으며, 현행교과목 중 국제개발연구와 지역학의 교차지점에 있는 교과목의 대표적 예시는 다음과 같음:
원조프로젝트의 수행과 평가, 국제인권과 난민의 문제, 글로벌남반구연구, 국제개발론, 세계화시대의 국가·자본·노동, 국제개발정책론, 경제성장과 국제개발, 국제개발고급분석, 국제개발고전강독, 한국경제성장과 발전과정의 이해, 젠더와 개발, 국제개발의사회정치이론, 과학기술혁신과 개발의

이해, 국제개발협력론, 국제개발협력정책및체계연구, 국제개발정책평가, 젠더와 노동, 젠더와 인권, 개발원조사업의 수행과 평가, 한미관계사연구, 동남아의 정치경제, 한국과 동남아 관계, 국제개발세미나 등. 신입교원 임용과 학생수요에 따라 향후 신규 교과목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임 (환경과 국제개발, 보건과 국제개발, 아프리카 거버넌스와 정치, 아프리카 대외관계사, 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의 경제발전 등).

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1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1>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 | | | | |
|-----------------|-----------|-----|----|---------|-----|
| 실적 | | 석사 | 박사 | 석·박사 통합 | 계 |
| 확보 (재학생) | 2021년 2학기 | 90 | 12 | 0 | 102 |
| | 2022년 1학기 | 95 | 14 | 0 | 109 |
| | 계 | 185 | 26 | 0 | 211 |
| 배출 (졸업생) | 2021년 2학기 | 19 | 1 | | 20 |
| | 2022년 1학기 | 30 | 1 | | 31 |
| | 계 | 49 | 2 | | 51 |

2.2 교육연구단의 우수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1) 학부생을 상대로 한 아웃리치 활동강화

- 본 교육연구단이 속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은 학부과정 없이 석·박사 과정만 운영하고 있어, 학부에서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학생을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없으므로 우수한 신입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아웃리치 노력을 하고 있음.
- 신입생 세미나를 통한 학부생과의 접촉 강화를 위해 동 교육연구단장인 박태균 교수는 2008년 이후 학부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생 세미나-세계가 바라보는 한국’ 수업을 2021년 2학기까지 개설하여 학내에서 국제대학원을 알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음. 또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에서 운영하는 해외지역연구 관련 연계전공에 교수진(예: 박지환 교수, 일본지역학 연계전공)으로 참여하여 국제지역학에 관심이 있는 본교 출신 학부생들의 국제대학원 진학을 유도함.
- 매학기 국제대학원 신입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진학에 관심이 있는 교내·외부 학부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임 (2021년 10월 - 2022년 전기모집 설명회, 2022년 4월 - 2022년 후기모집 설명회). 해당 설명회는 BK21 장학제도와 입학 후 교과과정과 병행할 시 학습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연구단의 다양한 학술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국제대학원 BK21 공식 영문홈페이지(<https://gsisbk21.snu.ac.kr/>) 제작과 운영을 통해 동 교육연구단의 소개, 행사, 학술활동, 자료 및 공지사항을 온라인 상에서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2021년 3

월 ~ 현재). 또한, 국제대학원 BK21 전용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 (2022년 3월 ~ 현재)하고 이를 공식 홈페이지와도 연동하여 운영 중임. 교육연구단의 다양한 활동내용이 동영상 클립, 카드뉴스, 사진게시글 형태로 업로드되고 있음. SNS 채널을 통해 동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BK21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가시성을 확대하고 있음.

2) 국제개발 전공 신설 · 신입생 모집 및 교과개편

- 국제개발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맞추고자 대학본부로부터 국제개발 전공 신설을 승인받고 2022년 1학기부터 신입생을 선발했음. 국제개발전공이 신설됨에 따라 국제개발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개설, 논문주제지도 등 보다 조직적으로 교육·연구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교과개편을 통해 다양한 과목이 국제개발전공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음.
 - 국제개발의 이해 (Understan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 개발원조사업의 수행과 평가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id Projects)
 - 경제성장과 국제개발 (Economic Growth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Understan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국제개발정책론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 국제개발 정책평가 (Impact Evaluation for Development Policies)
 - 한국 경제성장과 발전과정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Process)
 - 젠더와 개발 (Gender and Development)
 - 젠더와 노동 (Gender and Labor)
 - 젠더와 인권 (Gender and Human Rights)
 - 국제개발세미나 I: 팬데믹대응과 국제개발 (Semina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1: Pandemic Response & International Development)
 - 국제개발세미나 1: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Semina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1: Sustainable Healthcare System Development)
 - 국제개발세미나 1: 환경과 개발 (Semina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1: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국제개발세미나 2: 젠더, 정치와 정책 (Semina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2: Women, Politics and Policy)

3) 학술교류협약 체결 및 대학 중심의 우수 내외국인 선발 계획

- 캠퍼스아시아 사업(공동·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최대 1년간 머물며 수학하는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일본 동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리관유 공공정책대학원 학생들의 박사과정 진학을 독려함. 이를 위해 BK21 프로그램의 다양한 공동연구, 연구발표 및 학술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 과거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중국 북경대학교와 일본 동경대학에서 국제대학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정례적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음. 오프라인 행사 개최를 위한 여러 여건이 개선될 경우 해외순방 설명회를 재개할 예정.
- 이외에도 국제대학원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독일 튀빙겐대학교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프랑스 에섹경영대학교 (ESSEC Business School), 벨기에 루벤 카톨릭대학교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등 동 대학원과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해외대학 및 기관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고 있음.
-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은 SNU-Chula 한국학 프로그램(SNU-Chula Korean Studies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와 태국 출라롱콘 대학 간 2008년 협정체결을 시작으로 매년 1학기 10명 이상의 출라롱콘대학 한국학 전공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원이 강의를 진행하는 등의 학술교류 프로그램임. 2022년 상반기에도 출라롱콘대학 학생 10명이 서울대로 파견을 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우수한 외국인 대학원생을 확보하기 위해 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같은 SNU-Chula 한국학 프로그램(SNU-Chula Korean Studies Program)을 호치민대학 및 필리핀국립대학에 유사한 형태로 설치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대학원생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한 개발도상국 전문가 프로그램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발정책과정(DCPP) 졸업생의 진학을 유도함. 특히, 교육연구단장 박태균 교수가 2022년 11월 중순 베트남 호치민대학에서 개최되는 한국학 학술회의를 참가하여 “전쟁과 재건으로 보는 한국근현대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해당 방문을 통해 학술교류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함.

4) 대학원 신입생 첫학기 장학금 지급 명문화 및 우수대학원생 확보

- BK21 장학금: 참여대학원생중 지원대학원생으로 선정된 경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석사학위과정생의 경우 월 70만원 이상, 박사학위과정생의 경우 월 13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요건을 만족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첫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여 신입생이 대학원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석사과정 진학생의 경우, 경제적 사정 및 학부 학점, 연구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학기별 BK참여대학원생의 인원과 연구장학금 예산에 따라 학기별 지원대학원생 및 참여대학원생 간의 비율 및 총인원은 소폭 차이가 있음.
- 박사과정 진학생의 경우 학문후속세대의 일원이 될 인재이므로, 서울대학교 본부에서 지급하는 연구장외조교 장학금, Global Friendship 및 BK대학원혁신 우수연구인재 Fellowship 등 중복수혜자를 제외한 나머지 박사과정생 및 박사과정 수료생 전원(8학기 이내)을 지원대학원생으로 선정하여 BK21 연구장학금을 지급함.
- 또한 지원대학원생이 아닌 참여대학원생의 경우에도 연구지원금 혜택이 다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함 (해외현지조사비 지원, 학술대회 참가 지원, 논문게재를 위한 각종 비용지원, 영문논문교정료 지원, 참여교수와의 공동연구·교재개발사업 집필 참여 기회 제공, 해외공동연구 참여기회 제공 등).

2.3 대학원생 학술활동 지원 계획

1) 학위 논문연구 지도 및 학술논문 작성 지원

- (1) 대학원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들이 우수한 학위논문을 쓰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은 3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대학원논문연구수업’을 졸업이수학점에 포함시켜,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의 연구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 동 교육연구단의 신청서상 “대학원논문연구수업과 연계하거나 추가적으로 지도학생과 논문지도모임을 갖고, 참여대학원생이 본 교육연구단에 제출해야 하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에서부터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한다는 계획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세부전공 별로 2-5명의 전공주임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교수와 학생의 정기적 상담 실시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하고 있음.
- 매 학기 전공주임 지도교수와 함께하는 논문작성 워크숍, 전공주임 교수 주도하에 학기중 진행되는 지역별 라운드테이블, BK21 대학원생 소그룹 모임 (Graduate Working Group),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BK21대학원생 논문발표 워크숍 (BK21 Workshop, Research Development Series) 등을 통해 논문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활동 기간이 지속되어 고립적인 환경 속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참여대학원생-참여교수진-신진연구인력 간의 소통채널을 강화함으로써 학위논문 준비를 위한 일정, 정보의 제공과 공유, 다양한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진행해왔음. 신진연구인력과의 상시면담, 매학기 첫째주에 진행되는 전체 BK학생대상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GSIS BK21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창구를 마련함.

(3) 성과급 지급:

- 워킹페이퍼 장학금: 교재개발사업 원고제출 참여대학원생 14명에 대해 지역별 사례연구 워킹페이퍼 (각 20~25페이지 분량) 심사 및 원고료 지급을 통해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과의 공동연구가 사업단의 연차별 교재개발사업 발간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참여대학원생 연구성과급 지급: 석사과정 2인() 및 박사과정 4인()에 대한 연구성과급을 지급하였음.
- 기타 학술활동 관련 지급: 석사과정 2인()의 사업단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음.

2) 학위논문작성 위한 해외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지원,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논문게재료 지원 등

(1) 해외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지원

- 국제개발·지역학 연구의 특성상 석·박사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해외에서의 현장연구(fieldwork)가 필요한 주제가 있으므로, 참여교수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학위논문작성을 위한 현장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우수한 대학원생을 선별, 지원함.
- 참여대학원생 해외 현장연구 및 자료수집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관련 내규를 정비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이메일 공지를 통해 공식적인 선발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2021년 2학기부터 2022년 1학기까지는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2)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 참여대학원생의 국내·국제 학술대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며, 발표자로 참가할 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관련 내규를 정비함 (공식적인 신청과 선정을 통해 경비지원의 범위를 설정).
- 2021년 9월 ~ 2022년 8월 현재까지 총 12명의 참여대학원생이 국내학술회의 참가 및 발표에 대해 여비 또는 교육연구단의 학술적 지원을 받았음 (1명 국내·국제학술회의 참가 중복 지원).
- 국제학술회의 (발표자: 3명, 발표 4건)
 - The Seventh African Higher Education Week and RUFORUM Triennial Conference 2021 발표 1인 (참여대학원생 주다운)
 - LASA/ASIA 2022 Congress “Rethinking Trans-Pacific Ties: Asia and Latin America” 발표 1인 (참여대학원생 유지민)
 - The 79th Annual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Hybrid Conference 발표 1인 (참여대학원생 강나경 2건)

- 국내학술회의 (발표자: 10명, 발표 10건)
 - 2021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회의 “대전환기 개발협력의 방향성: 새로운 파트너십 모색” 발표 2인 (참여대학원생 강경희, Carmen Maria Lopez)
 - 한국국제정치학회 2021 연례학술대회 “공생의 세계질서를 위한 한국의 국제정치학” 발표 3인 (참여대학원생 최석원, 부예린, 김예인)
 - 2021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외교부,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공동 동계학술대회 발표 1인 (참여대학원생 유지민)
 - 2022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공동 하계학술대회 발표 2인 (참여대학원생 이수지, 박효진)
 - 2022년 무역구제학회 2022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 1인 (참여대학원생 전현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공동주최 제3회 EU Youth Forum 발표 1인 (참여대학원생 강나경)
- 향후 해외방문이 보다 자유로워지면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참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예를 들어, 2022년 10월 대만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인류학대회(East Asi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에 참가하는 12명의 참여대학원생에게 등록비 및 여비를 지원할 계획임.

(3) 논문게재료/심사료/교정료 등 학술저널 투고를 위한 경비 지원

- KCI 등재 국내학술지와 SSCI, SCOPUS, A&HCI 등 국제학술지 논문투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내규를 정비하였으며, 다른 경비지원 항목과 함께 홈페이지상 관련 내용(신청서식 포함)이 상시 게시되어 있음. 투고료, 심사료, 영문교정료 등의 비용이 지원되며 개별 신청건에 대한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함. 아울러, 참여대학원생이 참여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등에 투고할 때도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 심사비용을 지원함.
-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완화되며 학생들의 학술대회 참여실적이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회에서 발표된 소논문이 저널투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교수진 및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질 예정임.
- 2021년 9월 ~ 2022년 8월까지의 참여대학원생 논문실적은 다음과 같음 (석사과정 SSCI급 논문 1건, 박사과정 SSCI급 논문 1건, 석사과정 KCI급 논문 4건, 박사과정 KCI급 논문 3건)
 - (SSCI등재) 김도경 · 김순양 (2021.12.) “Reframing South Korea’s National Cybersecurity Governance System in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3권 4호, 689-713. DOI: 10.22883/kjda.2021.33.4.007
 - (SSCI등재) 김주희 · 이수형 (2022.06.)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Housing Prices: Evidence from South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36권 2호, 247-262. DOI: 10.1080/10168737.2022.2055108
 - (KCI등재) 김도경 (2021.09) “The Cybersecurity Governanc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With an Emphasis on Critical Infrastructure” 『국제정치연구』 24권 3호, 187-224. DOI: 10.12535/jir/2021.09.24.3.187
 - (KCI등재) 이찬희 · 박지환 (2021.12.) “2000년대 일본 국립대학 통합의 배경과 의미”, 『국제지역연구』 30권 4호, 111-141. DOI: 10.56115/RIAS.2021.12.30.4.111
 - (KCI등재) 김현정 · 임평건 (2022.03.) “사람의 도시화: 중국 국가발전전략의 전환과 유동인구의 관리 및 육성” 『아세아연구』 65권 1호, 341-374. DOI: 10.31930/JAS.2022.03.65.1.341
 - (KCI등재) 임슬기 · 김주희 · 이수형 (2022.04.) “외국인 부동산 취득: 동향 및

함의” 『법경제학연구』 19권 1호, 177-206. DOI: 10.46758/kjle.2022.04.19.1.177

- (KCI등재) 나지원 (2022.05.) “실력과 위신 사이-일본의 경향모 개장 결정 배경에 관한 국제정치적 고찰” 『대한일어일문학회』 94권, 331-347. DOI: 10.22883/kjda.2021.33.4.007
- (KCI등재) 문희은 · 박도연 (2022.05.) “이용가능한 사실 관련 美 상무부의 WTO 협정 위반 분석: 한-미 FA 분쟁(DS539)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94권, 165-189. DOI: 10.35980/KRICAL.2022.5.94.165
- (KCI등재) 김종섭 · 유지민 (2022.05.) “Do Remittances Reduce Poverty and Inequality of Sending Regions? - A Case Study of Mexico -” 『중남미연구』 41권 2호, 1-22. DOI: 10.17855/jlas.2022.5.41.2.1

3) 교육연구단 차원 국제학술회의 GSIS BK21 패널 신청

- 교육연구단은 매년 최소 1회 국제학술회의에 패널단위 신청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회의 발표기회를 확대해왔음. 이를 위해 2021년 여름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회의에서 패널(참여교수 1인, 신진연구자 2명, 참여대학원생 4명)을 개최한바 있음. 2022년 2학기(2022.10.15.-16.) 대만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인류학대회(East Asi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EAAA) 연례학술회의에 동 교육연구단 이름으로 두 개의 패널을 신청하였으며,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이 함께 참가할 예정임.
- 패널발표는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화 활동을 넓힐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발표된 논문을 발전시켜 향후 학술논문 투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의 지원이 이어짐. 이는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활용한 대표적 학술활동이라고 볼 수 있음.

4) 지역별 Round Table 운영 지원 · BK21 학생 워크숍 · 각종 세미나 지원

(1) 지역별 라운드테이블 및 세미나 개최 지원

- 라틴아메리카 라운드테이블 개최: 두 학기에 걸쳐 총 22회, 참여자수 매회 6-18명, 참여대학원생 발표 및 토론과 라운드테이블 주임교수(김종섭 교수)의 피드백으로 진행함. 주차별로 다뤄진 주제는 라틴아메리카의 영화 (Coco), 축구 (La Cultura de Fútbol en America Latina), 건축 (Cathedral of Brasília), 역사 (Bicentenario de la Independencia de Costa Rica), 축제 (La Rumba Cale; Tango), 음식 (La Evolución de la Gastronomía Mexicana) 등 라틴아메리카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함.
- 일본 라운드테이블 개최: 총 9회 (일본어 자유 토론 4회 포함), 참여자수 매회 11~12명, 참여대학원생 발표 및 토론과 라운드테이블 주임교수 (박지환 교수)의 피드백으로 진행함. 주차별로 다뤄진 주제는 일본의 신도 문화 (구관림), 중국 역사교과서 속의 일본 (한승헌), 요칸/양갱이란 (박건우), 일본 정치의 보수화 (김혜주), 에도시대의 서민 미술 (미유 요코세),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제도 (신수정), ‘미다시나미’ - 일본 기업의 복장 규정 (이찬휘) 등이 있음.

(2) 대학원생 논문발표 (GSIS BK21 워크숍) 및 BK21 Research Development Series (RDS) 개최

- GSIS BK21 (학생) 워크숍 제1차 (2021.2.17.) 및 제2차 (2021.8.26.) 개최 이후 학기별로 정례화하여 대학원생 논문발표 기회를 제공함. 졸업을 앞둔 참여대학원생 중 일부 학생들을 선정하여 방학 중 BK21워크숍(GSIS BK21 Workshop)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학술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2022년 2학기부터는 이를 보다 확대하여 월례발표회로 정착시키고자 함.
- 제3차 GSIS BK21 (학생) 워크숍 개최 (2022.2.21.): 석사과정 참여대학원생 발표자 4인, 토론자 4인, 신진연구인력 2인, 학생 등 50여명 참여. 학생의

연구경험 및 결과 소개, 신진연구인력 피드백 및 전체 참여학생 Q&A 진행. 발표자 및 발표제목은 다음과 같음:

- 사회: 김보경 박사 (신진연구인력), 언어: 영어
- 발표 1: 반안 Anh Van Nguyen (석사과정) “Women’s Empowerment in Vietnam: Bridging the Gap between Policy and Practice of the National Strategy on Gender Equality 2011-2020”
- 발표 2: 김선아 (석사과정) “I am Korean but not fully”: The Formation of Transnational Identities and Meaning of ‘Home’ among South Korean Young Adults”
- 토론: 강나경 (박사과정), 김도경 (박사과정)
- 발표 3: 마크 홉킨스 Mark Raymond Hopkins (석사과정) “Dams and Development: The Politics of Hydropower in Laos”
- 발표 4: 유지민 (석사과정) “Do Remittances Reduce the Inequality of Sending Regions?: A Case Study of Mexico”
- 토론: 이윤정 (박사과정), 전현지 (박사과정)

- 제4차 GSIS BK21 (학생) 워크숍 개최 (2022.8.23.):

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 발표자 4인, 토론자 3인, 신진연구인력 2인, 학생 등 총 약 50여명 참여. 학생의 연구경험 및 결과 대한 발표 및 지정토론자의 토론 후, 신진연구인력 피드백 및 전체 참여학생 Q&A 진행. 발표자, 토론자 및 발표제목은 다음과 같음:

- 사회: 심예리 박사 (신진연구인력), 언어: 영어
- 발표 1: 김다운·강나경 (박사과정) “A Global Overview of Gender Quotas and Women in Parliaments” - 지정토론: 김수정 (박사수료)
- 발표 2: 전현지 (박사과정) “Evolution and Limitations of the Lesser Duty Rule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 지정토론: 김도경 (박사과정)
- 발표 3: 임평건 (박사과정) “A Study on the Co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Northeast Asia: A Comparison with EURATOM” - 지정토론: 응오지엠홍아 (박사과정)

(3) BK21 Graduate Working Group (GWG) 연구 소모임

- Graduate Working Group (GWG) 운영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주제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할수 있도록 Bi-weekly 세미나를 열어 연구 진척 상황을 점검함. 2021년 2학기 ~ 2022년 1학기 기간 GWG 연구 소모임에 참여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주제 및 학술대회 발표/신청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1년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 대학원생 패널에서 발표

- 강경희(석사과정)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Gender-based Violence: In the Era of COVID-19 and Beyond”
- 카르멘로페즈(석사과정) “The Future of the China-US ‘Dual Hierarchy’ ; South China Sea Dispute”

- 2021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대학원생패널에서 발표

- 부예린(석사과정) “Building Bridges, Coalitions, and Norms: A Network Theory-based Comparison of Korea and Australia’s Middle Power Diplomacy in G20”
- 최석원(석사과정)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Its relation to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contributions to security, democracy and peace”

- 김예인(석사과정) “Neopatrimonialism in Central Asia Evidenced by Selective Political Violence”
- 2022년 교재개발사업 참여(2022년 10월 종료 예정) 및 10월 대만 EAAA 학회 BK21 패널 발표예정
 - 이유림(석사과정) “Neither a Refugee nor a Migrant: Examining Institutional Responses to Asylum Seekers in South Korea”
 - 박효진(석사과정) “Women’ s Rights: The Gap of Law and Custom-On Rwanda and Nicaragua”
 - 신송학(석사과정) “The Inclusive Policy of Uganda for Forced Migrants”
 - 조수빈(석사과정) “Localization or Distribution? the International Delivery of Japanese Inclusive Education to Mongolia —Case Study of The Project for Strengthening Teachers’ Ability and Reasonable Treatment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TART)”
- 2023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ISA) 발표신청 (확정 시 2023년 3월 예정)
 - 박지수(석사과정) “Northeast Asia’ s Energy (In)security and Energy Cooperation”
 - 강승원(석사과정) “China’ s Policy on Nationalism and its Effect on Foreign Relations: Case Study of the Wang Fang Phenomen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연구주제 발전 후 향후 학회발표 신청 예정
 - 박인욱(석사과정) “The Efficacy of Cooperation between Corporation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in Pursuing SDG 4: a case study of the Learning Passport Initiative”
 - 최소운(석사과정) “How to Strengthen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in Autonomous Vehicle Industry”
 - 김정현(석사과정) “Geopolitical Risk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Nexus: Implications in Asia”

5) 국제지역학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 초청특강

(1) 해외석학 초청강연 시리즈 (BK21 Special Lecture Series)

- 2021년 2학기 ~ 2022년 1학기 기간동안 총 9회 개최, 해외 석학의 최신 연구에 관한 강의 및 질의 응답. 다양한 전공, 주제,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공유 및 교류를 위해 외부 전문가초청 특강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이후에도 학기당 평균 4~5회 특강을 개최할 예정임.
 - 제11차 (2021.10.08.): William W. Grimes 교수 (Boston University) “Institutionalizing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 제12차 (2021.10.29.): Sim Choon Kiat 교수 (Showa Women’ s University) “The Achievements,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Singapore’s Education System”
 - 제13차 (2021.11.26.): Wonjung Min 교수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Gender, Class and Race: Assessing the Korean Wave in Latin America”
 - 제14차 (2022.01.14.): Yuriko Takahashi 교수 (Waseda University) “Political Participation of Mexican Immigrants in the US: A New Methodology of Studying “Hard-To-Reach” Populations”
 - 제15차 (2022.02.16.): Tat Yan Kong 교수 (SOAS University of London) “Taiwan’ s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the Political Economy of Inegalitarian Growth”
 - 제16차 (2022.03.25.): David Leheny 교수 (Graduate School of Asia-Pacific Studies, Waseda University) “Soft Power and Reading Emotion in Politics”
 - 제17차 (2022.04.29.): Jaehyeon Jeong 교수 (University of Utah, Asia Campus) “Imagining

National Cuisine: Korean Food TV and the Korean Nation”

- 제18차 (2022.06.24.): Jae-Jung Suh 교수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History Wars or History Making among China, Japan, and Korea? Transnational Public Spheres in Northeast Asia”
- 제19차 (2022.07.08.): Hans H. Tung 교수 (National Taiwan University) “Resisting Autocratization: The Protest-Repression Nexus in Hong Kong’s Anti-ELAB Movement”

(2) 동문초청특강 시리즈 (BK21 Career Development Series)

- 기존 공공외교 기관 인턴십 프로그램(KF 싱크탱크 인턴십), 한국국제협력단 ODA 영프로페셔널(YP) 프로그램,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인턴십, 한·아프리카재단 인턴십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의 실무 경험 축적을 학생들에게 독려함.
- 이를 위해 교육연구단에서 동문초청특강을 개최하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파견된 바 있는 KOICA ODA YP Cohort, 유엔기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조세연구원 등 연구소·공공기관·준정부기관에 진출한 여러 동문을 초청하여 재학생과 연결하는 비교과 특강시리즈를 학기당 2회 운영함.
- 2021년 1학기 제1차 - 학계 (2021.04.09.), 제2차 - 연구소·공사 (2021.05.21.) 개최 이후 학생들의 수요조사에 따라 2022년 2학기 이후 동문초청특강을 기획함.
- 2021년 2학기 제3차 동문초청특강 - 국제기구[유엔] (2021.10.08.)
 - 발표 1: 김지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개발협력본부 Senior Programme Specialist)
 - 발표 2: 최병헌 (유엔세계식량계획[UN WFP] Monitoring and Evaluation Officer, WFP Sudan)
 - 발표 3: 김혜영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Associate Research & Policy Analysis Expert)
- 2021년 2학기 제4차 동문초청특강 - 정부기관·준정부기관 (2021.11.19.)
 - 발표 1: 김소희 (한국국제협력단[KOICA] 경영성과팀 대리)
 - 발표 2: 전현신 (법무부 인권정책과 전문위원)
- 2022년 1학기 제5차 동문초청특강 - 해외박사과정생 (2022.05.27.)
 - 발표 1: 남진욱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h.D. Candidate)
 - 발표 2: 김보영 (UC Santa Cruz, Ph.D. Candidate)
- 2022년 1학기 제6차 동문초청특강 - KOICA ODA 영프로페셔널[YP] (2022.07.22.)
 - 발표 1: 박은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유라시아실 선임)
 - 발표 2: 문민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성장지원팀 선임)
 - 발표 3: 이나래 (동명엔터프라이즈 환경기획2팀/연구소 대리)
- 향후에도 학기별 총 2차례 (각 발표자 2~3인) 졸업생을 초청하여 동문특강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 실적을 높이고, 진로탐색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지속할 계획임.

6) 국내외 공동연구 관련 대학원생 참여 및 국제학술대회

(1) 국제기구 관계자·해외대학과 연계한 공동연구 추진

- 참여교수들의 개인적, 기관적 차원의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기구 관계자와 연계한 공동연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특히, 2021년 하반기에는 국제기구에 진출해 있거나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있는 국제대학원 동문들을 동문초청특강 시리즈 (Career Development Workshop) 연사로 초대하여 참여대학원생들에게 관련 정보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동연구의 기회로 발전시켰음. 이와 같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 초청특강을 이어나가 향후 국제기구에 진출해 있는 동문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내년 2023년 6월에는 유럽한국학회(AKSE)에서 교육연구단장(박태균 교수)의 주도로 이탈리아 베니

스대학교(안종철 교수),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김수정, 임굉건 박사과정생)이 함께 “재외동포의 한국에서의 생활: 조선족을 중심으로” 주제로 패널을 신청함.

(2) 교육연구단 주최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제지역학, 국제개발협력 주제)

- “SNU GSIS DCPD-BK21 글로벌개발포럼(Global Development Forum, GDF)” :

· GSIS DCPD-BK21 프로그램 연계 국제학술회의를 기획하여 2022년 2월 8일 제1회 SNU GSIS DCPD-BK21 글로벌개발포럼(Global Development Forum, GDF)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13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이집트, 에콰도르, 우간다, 필리핀, 몽골,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도미니카공화국, 브룬디, 카메룬) 개발정책과정 석사학위 프로그램(DCPD) 소속 개발도상국 공무원들과 국제대학원 참여대학원생이 발표에 참여함. BK21 프로그램과 대학원 내 운영되는 DCPD 프로그램이 연계하여 개최한 첫 국제학술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례화하여 매년 겨울방학 중 개최하고자 함.

- “BK21 대학원생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Conference, IGSC)” :

· 2022년 2월 9일, 제1차 BK21 대학원생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Conference, IGSC)를 기획하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시카고대학교, 북경대학교, 산둥대학교, 출라롱콘대학교, 동경대학교, 헬싱키대학교, 연변대학교, 상하이외국어대학교 대학원생들이 발표에 참여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생이 토론을 담당하고 신진연구인력과 참여교수가 각 패널의 사회를 맡았으며, 해당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향후 여름방학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함.

· 2022년 8월 16일, 제2차 IGSC를 준비하기 위한 여름 Virtual Mini-Conference (2022 IGSC-VMC)를 기획하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동경대학교, 한국의국어대학교, 산둥대학교, 출라롱콘대학교, 북경대학교, 홍콩중문대학교 석사과정 학생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이 토론함. 특히, 2022년 7월부터 약 2개월간 국가별 1인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온라인에서 모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독립패널에서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 같은 학생 국제공동연구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

· 제4차년도 이후부터는 IGSC를 통해 구축한 학생공동연구 플랫폼과 캠퍼스아시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울대 국제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북경대-동경대-싱가폴국립대 국제학술대회 기획을 시도하고자 함.

2.4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2> 2021년 8월 및 2022년 2월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단위: 명, %)

| 구분 | | 졸업 및 취(창)업현황 (단위: 명, %) | | | | | 취(창)업률% (D/C)×100 | |
|-----------------|----|-------------------------|---------|-----|---------------------|---------------|----------------------|-----|
| | | 졸업자 (G) | 비취업자(B) | | 취(창)업대상자 (C=G-B) | 취(창)업자 (D) | | |
| | | | 진학자 | 입대자 | | | | |
| | | | 국내 | 국외 | | | | |
| 2022년 2월 졸업자 | 석사 | 19 | 1 | 0 | 0 | 18 | 3 | 16% |
| | 박사 | 1 | | | 0 | 1 | 0 | |
| 2022년 8월 졸업자 | 석사 | 30 | 1 | 0 | 0 | 29 | 3 | 10% |
| | 박사 | 1 | | | 0 | 1 | 0 | |

1) 2022년 2월 졸업생 중 취업자 (3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기후변화센터), (주식회사 앤티브에듀케이션)

2) 2022년 8월 졸업생 중 취업자 (3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법무법인 광장), (주식회사 메이크스타)

3.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① 참여대학원생 저명학술지 논문의 우수성

○ SSCI 주저자 2건 - 석사과정 1인, 박사과정 1인

1) 김도경 [박사과정] (2021년 09월 - SSCI, 주저자)

- 논문정보: 김도경 · 김순양 (2021) “Reframing South Korea’s National Cybersecurity Governance System in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3권 4호, 689-713. DOI: 10.22883/kjda.2021.33.4.007
- 논문의 우수성: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안보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점증하는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법체계, 행정체계, 재정 및 예산체계,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민관협력체계 등의 다섯 가지 분석변수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분석틀을 구성함. 그리고 이러한 다섯 가지의 분석변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안보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깊이 있게 분석함.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공식자료인 정부백서, 정부통계 등은 물론, 다양한 비공식 자료들도 수집하여 분석함. 분석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체계는 전술한 다섯 가지 분석변수들 모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함.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함.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안보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통합적인 분석 틀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튼튼하고 효율적인 사이버안보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리고 본 연구는 강력한 사이버안보체계의 구축은 기술적, 과학적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으며, 정치, 행정, 정책 등 사회과학적 접근도 동시에 필요함을 인식시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음.

2) 김주희 [석사과정] (2022년 6월 - SSCI, 주저자)

- 논문정보: 김주희 · 이수형 (2022)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Housing Prices: Evidence from South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36권 2호, 247-262. DOI: 10.1080/10168737.2022.2055108
- 논문의 우수성: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과 대책을 찾기 위한 논의가 활발함. 그중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투자수요의 증가 원인으로 주목되었음. 외국인 부동산 투자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이미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투자가 많은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거주용 부동산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거나 거래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거비 상승 압박을 억제하고 자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에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한국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위험성과 우려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관한 정량적인 연구가 부족함. 본 논문에서는 중국인 직접투자가 지역별 중국인 거주자의 비율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중국인 직접투자가 한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2011년-2016년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 직접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거주자의 비율이 더 높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가정함. 2011년-2016년의 주택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2011-2016년의 주택가격 상승률 중 중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3%에 달함. 특히 대구, 서울, 인천, 경기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발견함. 본 논문은 중국인 직접투자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실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또한 외국인 투자와 국내 부동산 시장을 유의하여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KCI 단독저자 2건 - 박사과정 2인 / KCI 공동저자 5건 - 석사과정 4인, 박사과정 2인(공저)

1) 김도경 [박사과정] (2021년 09월 - KCI, 단독저자)

- 논문정보: 김도경 (2021) “The Cybersecurity Governanc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With an Emphasis on Critical Infrastructure” 『국제정치연구』 24권 3호, 187-224. DOI: 10.12535/jir/2021.09.24.3.187
- 논문의 우수성: 본 논문은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에 입각하여 미국의 사이버안보체계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임.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사이버안보체계를 거버넌스 관점에 입각하여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 미국의 사이버안보체계에 대한 실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시사점들을 적절하게 벤치마킹(benchmarking)할 수 있는 것임. 미국의 사이버안보체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 재정, 인력, 통합연계, 공사파트너십 등의 분석변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식, 비공식 자료들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함.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언함. 본 연구는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물론, 공사부문 간의 협력체계를 포함하는 통합적 분석들에 입각하여 미국의 사이버안보체계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음.

2) 이찬희 [석사과정] (2021년 12월 - KCI, 공동저자)

- 논문정보: 이찬희·박지환 (2021) “2000년대 일본 국립대학 통합의 배경과 의미” 『국제지역연구』 30권 4호, 111-141. DOI: 10.56115/RIAS.2021.12.30.4.111
- 논문의 우수성: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학령기 인구 감소 문제와 그에 따른 교육 기관의 정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지역임. 국내외 연구 역시 이 점에 주목하여 일본 고등교육 기관의 구조와 재편을 다룬 연구들이 있으나, 법인화의 과정과 효과, 그의 유형과 배경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본 연구는 일본의 고등교육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법인화 등의 급격한 구조재편 과정을 겪은 국립대학의 재편 및 통합의 과정과 결과를 개관하고, 더 나아가 문부과학성의 해당 정책들이 의도한 효과를 이루지 못한 이유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음. 저자는 법인화와 통합 등 국립대학교의 구조 재편이, 교육 및 연구의 관점이 아닌 행정개혁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국립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지니는 위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 실질적으로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한 만큼 이루지 못하였음을 주장함. 2010년대 일본에서 다시 국립대학교의 구조재편 정책이 추진되고, 한국 역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국립대학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경영의 효율 향상과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재편 정책이 더욱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3) 김현정·임평건 [박사과정] (2022년 3월 - KCI, 공동저자)

- 논문정보: 김현정·임평건 (2022) “사람의 도시화: 중국 국가발전전략의 전환과 유동인구의 관리 및 육성” 『아세아연구』 65권 1호, 341-374. DOI: 10.31930
- 논문의 우수성: 농민공은 개혁·개방 이래 중국 경제를 이끌어 온 주역으로, 이들 유동인구에 대한 연구는 근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임. 중국의 인구이동 정책과 농민공 인권 이슈에 대해서는 그동안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지만, 유동인구가 국가 및 지역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인재/인력으로 ‘등용’ 및 ‘육성’ 되는 현상은 최근 중국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시적인 변화로 이에 대한 학술적 설명은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본 연구는 중국사회에서 유동인구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중국의 ‘도시화’를 인구 유동의 관리와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하고자 함. 특히, “사람의 도시화” 정책을 통해 국가 및 지역의 발전전략에 걸맞은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양성함으로써, 중국 사회가 새로운 발전경로를 모색하고 있음을 이 연구에서 묘사해보고자 함. 본 연구는 도시화, 인구가동 및 농민공이 다소 편협한 시각으로 연구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농민공 집단을 해체(deconstruct)하는 관점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중국사회에 대한 연구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과 그들의 ‘육체’, 이와 유기적으로 교류하는 공간인 ‘도시’의 역동성을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보해 나가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4) 김주희 [석사과정] (2022년 4월 - KCI, 공동저자)

- 논문정보: 임슬기·김주희·이수형 (2022) “외국인 부동산 취득: 동향 및 함의” 『법경제학연구』 19권 1호, 177-206. DOI: 10.46758/kjle.2022.04.19.1.177
- 논문의 우수성: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주거복지 강화는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였음. 특히, 의식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주거용뿐만 아니라 투자용으로도 구입할 수 있어 그 영향력과 중요성이 막대함. 역대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제시하였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오히려 내국인이 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게 되는 실정임. 언론에서 이러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위협성과 역차별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전무한 실정임. 유관기관별로 상이한 수치를 발표하고 있으며, 통합된 자료가 없어 전체적인 결과를 추정하기가 어려움. 본 연구는 법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보유한 행정정보를 결합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과 지표의 적절성을 점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첫째로, 최근 10년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동향을 국적별로 살펴보았으며, 둘째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반영하는 각 외환 집계자료와 외국인 부동산 투자액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였음. 결과로, 각 시기별, 국적별로 투자 패턴이나 동향이 이질적임을 확인하였으며, 각 지표의 국가별 설명력과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음.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외국인의 급증하는 부동산 취득을 파악 및 규제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기한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음.

5) 나지원 [박사과정] (2022년 5월 - KCI, 단독저자)

- 논문정보: 나지원 (2022) “실력과 위신 사이-일본의 경향모 개장 결정 배경에 관한 국제정치적 고찰” 『대한일어일본학회』 94권, 331-347. DOI: 10.22883/kjda.2021.33.4.007
- 논문의 우수성: 본고는 아베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이른바 지위 상징(status symbol)으로서 항모를 순수한 군사적 가치 외에 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 논문임. 분석과정으로서 우선 무기의 상징적 가치를 둘러싼 일반적인 이론적 논쟁 속에서 본고의 핵심 주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역사적으로 국방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들의 선택에 이러한 요소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 후, 일본의 항모 개장 결정을 일본의 변화하는 전략 환경 속에서 평가함.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직면한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맥락 속에서 항모 건조를 결정하게 된 안보적 동기를 고찰한 다음,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정권이 경향모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상징적 가치와 정치적 이득에 대한 분석과 대조함으로써 단순히 경향모의 군사안보적 가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시각을 제시함. 아울러 분석방법으로는 무기체계의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관한 이론과 다양한 1, 2차 자료를 활용한 실증을 결합하

는 방법을 택했으며 또한 논문전개 측면에서는 종래의 학설 (Pretorius, Scott Sagan, Frey, Haynes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한편, 역사적 관점에서도 경향모 개장 계획이 그 자체로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 해군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 또한 묘사해 국제정치적 고찰 역시 유의미하게 다루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학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일반 대중이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을 세계경제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인 가치도 있다고 판단됨.

6) 박도연 [석사과정] (2022년 5월 - KCI, 공동저자)

- 논문정보: 문희은·박도연 (2022) “이용가능한 사실 관련 美 상무부의 WTO 협정 위반 분석: 한-미 FA 분쟁(DS539)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94권, 165-189. DOI: 10.35980/KRICAL.2022.5.94.165
- 논문의 우수성: 미국은 2015년 TPEA 제정을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공세적으로 무역구제 제도를 활용해 왔음. 2018년, 한국은 美 상무부가 반덤핑 협정 제6.8조에 규정된 '이용가능한 사실 (Facts Available, FA)'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에 부과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고, 2021년 1월 총 일곱 건의 제소대상 조치 중 여섯 건에서 승소함. WTO 한-미 FA 분쟁(DS539)은 美 상무부 FA 적용의 WTO 규범 저촉 여부를 다룬 최초의 분쟁이자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쟁점에서 최종 승소하였다는 데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본 논문은 동 분쟁에서 드러난 FA 적용 관련 美 조사당국의 WTO 협정 위반 유형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과 관련 협정문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함. 이를 위해 동 분쟁에서 드러난 美 상무부의 FA 적용 관련 위반 사항을 총 9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FA 적용과 관련된 상무부의 주된 위반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9개의 유형 중 1(b) 불필요한 정보 요청, 1(c) 기타, 2(e) 추가 설명 기회 미제공 등의 세부 유형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음. 이를 통해, 미국의 불합리한 FA 적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FA 관련 조항에 대한 패널의 해석 기준과 패널이 제시한 '해석의 틀'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또한, 美 상무부의 FA 적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하 라운드 반덤핑 협상 당시 반덤핑 프렌즈(Friends of Anti-dumping Negotiations, FANs)가 제시한 WTO 반덤핑 협정의 개선방안에 주목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7) 유지민 [석사과정] (2022년 5월 - KCI, 공동저자)

- 논문정보: 김중섭·유지민 (2022.05.) “Do Remittances Reduce Poverty and Inequality of Sending Regions?: A Case Study of Mexico” 『중남미연구』 41권 2호, 1-22. DOI: 10.17855/jlas.2022.5.41.2.1
- 논문의 우수성: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이주자를 배출하는 국가이며, 이에 따라 멕시코로 유입되는 이주송금의 양은 세계 최대 규모임. 이주송금은 송출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보조하는 자원으로 인식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함. 하지만, 이주송금이 송출 지역의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연구소 (INEGI)와 국립사회발전정책 평가위원회 (CONEVAL) 의 주(州) 수준 (state-level)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주 송출 지역의 빈곤과 불평등에 이주송금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음. 또한, 실증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주송금이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하는 매커니즘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패널 분석 결과 이주송금은 빈곤 및 불평등과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는데, 주된 이유는 멕시코의 해외 유출 인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며 교육 수준이 낮은 인구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이주송금은 지역 내의 가장 빈곤한 계층이 불평등을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고, 그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음.

②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 국제학술대회 발표 4건 - 박사과정 3명

1) The Seventh African Higher Education Week and RUFORUM Triennial Conference 2021 “Operationalising Higher Education for Innovation, Industrialisation, Inclusion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A Call for Action” 발표 (2021.12.09.)

(1) 주다윤 (석사과정)

- 패널명: “Enhancing Natural Resource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Health”
- 발표제목: “Exploring the Determinants of Morocco’s Robust Climate Policy with the Political Economy Approach”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모로코의 성공적인 기후 정책 도입을 설명하기 위해 모로코의 제도적 특징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질적 분석을 실시함. 연구에 따르면, 모로코는 정치적 책임성의 부재와 이익 집단 또는 시민단체 역할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기후 행동을 진전시키기 위한 군주의 강력한 이니셔티브와 결합한 정부 구조 때문에 강력한 기후 정책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수 있었음. 군주가 절대적인 정치적 및 사회문화적 권위를 가짐으로 인해 기후 대응을 가속할 수 있었지만, 청년 실업률 및 에너지 요금의 증가를 비롯한 다른 문제들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남. RUFORUM 네트워크와 베냉의 고등교육과학연구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행사는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 후원으로 참여함.

2) LASA/ASIA 2022 Congress “Rethinking Trans-Pacific Ties: Asia and Latin America” 발표 (2022.02.18.)

(1) 유지민 (석사과정)

- 패널명: “Globalis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 발표제목: “Do Remittances Reduce the Inequality of Sending Regions? - A Case Study of Mexico”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논문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멕시코의 주 수준 (state-level)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멕시코로 유입되는 이주송금이 멕시코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함.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인당 이주송금액이 높을수록 지니계수 및 빈곤율은 낮은 경향을 보임. 따라서 이주송금액의 증가는 멕시코 각 주 내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됨. 본 연구는 LASA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와 EANLAS (East Asian Network of Latin American Studies)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됨.

3) The 79th Annual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Hybrid Conference (2022.04.07.-04.10.)

(1) 강나경 (박사과정)

- 패널명: Gender and Politics
- 발표제목: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Gender Quota Development in East Asia: Taiwan, South Korea, and Mongolia”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북경 행동강령 이후 성장한 여성정치 대표성 개선 노력에서 동아시아의 위축 현상을 확인하고, 같은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달리 한국과 몽골에서는 어떻게 여성정치 대표성이 과소성을 띄는지를 탐색함. 이를 위해 세 국가의 할당제 도입, 개정, 법개정의 변화가 어떻게 여성정치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 본 학회는 미국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이 주최하는 연례 학술행사로, 본 참가자는 젠더와 정치 페이퍼 세션에 참여하여 발표함.

(2) 강나경 (박사과정)

- 패널명: Human Rights
- 발표제목: Unspeakable truth to speakable truth: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of April 3 Events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중앙 및 지방지 언론을 분석하여, 상설 전환기정의 이행 기구가 어떻게 담론형성에 기여하는지를 탐색함. 본 연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진리 위원회가 진리 탐색, 희생자 치유, 역사완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때마다 관련 담론 논의가 활발해짐을 확인함. 본 학회는 미국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이 주최하는 연례 학술행사로, 본 참가자는 인권 세션에 공동발제자로 참여하여 발표함.

○ 국내학술대회 발표 10건 - 석사과정 7명, 박사과정 3명

1) 2021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동계학술대회 “대전환기 개발협력의 방향성: 새로운 파트너십 모색” 발표 (2021.11.26.)

(1) 강경희 (석사과정)

- 패널명: “Shocks, the Vulnerabl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Africa (대학원생 패널 I)”
- 발표제목: “How Shoul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pproach to the prevalence of gender-based violence in Africa, especially under the COVID-19 and Beyond? (코로나 시대의 젠더기반폭력과 개발 - 아프리카 젠더기반폭력 해결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 연구)”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논문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 (Gender-based Violence)의 현황을 살펴보고, 탈식민주의 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젠더기반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함. 식민주의 및 가부장제에 따른 아프리카 지역의 성 불균형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에 만연해 있는 젠더기반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저개발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전략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함. 국제개발협력학회가 주최하고 외교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후원으로 개최된 2021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함.

(2) Carmen Maria Lopez (석사과정)

- 패널명: “국제개발협력과 안보의 동학 (대학원생 패널 II)”
- 발표제목: “The Future of the China-US Dual Hierarchy and Korea: South China Sea Dispute”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권력 갈등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살펴봄. Feigenbaum과 Manning의 “A Tale of Two Asias”와 Ikenberry의 이중계층 (dual hierarchy)이론을 바탕으로 미중 경쟁에서 한국의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역할을 제시하며 이의 사례로 남중국해 갈등에서의 한국이 현재 취하는 전략적 위치를 살펴봄. 국제개발협력학회가 주최하고 외교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후원으로 개최된 2021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함.

2) 한국국제정치학회 2021 연례학술대회 “공생의 세계질서를 위한 한국의 국제정치학” 발표 (2021.12.10.)

(1) 부예린 (석사과정)

- 패널명: “글로벌 거버넌스와 권위주의 (대학원생 패널)”
- 발표제목: “The Fault Lines of Cyberspace Governance: A Case Study into the OEWG Process and its Geopolitical Context”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최근 진행되고있는 유엔 차원의 사이버 안보 규범 논의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제시함. 주요 4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의 사이버안보 규범에 대한 해석 및 입장 차이를 정상 연설, OEWG 회의 자료 등 1차 자료 위주로 세밀하게 살펴봄. 주요 분열 쟁점을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중견국 외교 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한국이 사이버 안보 규범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2) 최석원 (석사과정)

- 패널명: “글로벌 거버넌스와 권위주의 (대학원생 패널)”
- 발표제목: “Korean aid towar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nd its relation to Asian Partners for cooperation : case study of Korea and Japan”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포괄안보 및 다자안보 부문에서 한국의 기여도와 포괄안보 부문에서 활동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회원국(permanent country)이 아닌 준회원국(Partners for Co-operation) 및 아시아 협력동반자국가(Asian Partner for Co-operation)로서 갖는 다자안보협력기구 내부의 영향력과 지위, 그리고 근 미래의 기여도 증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인적 및 금전적 기여도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일본의 기여도와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도출함. 한국국제정치학회, 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후원하여 개최된 2021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함.

(3) 김예인 (석사과정)

- 패널명: “글로벌 거버넌스와 권위주의 (대학원생 패널)”
- 발표제목: “Subnational Identities and Political Violence in post-Soviet Autocracies, 1990-2014”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구소련 독재국가들에서의 지방 수준 국가 탄압과 물리적 억압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살펴봄. 1990년에서 2014년의 구소련 독재 국가들의 세분화된 데이터를 로지스틱 회귀를 통해 분석하여 탄압을 증가시키는 요소를 제안하고 한계 효과를 바탕으로 지방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함. 한국국제정치학회, 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후원하여 개최된 2021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함.

3) 2021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외교부,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공동 동계학술대회 “라틴아메리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회복력과 기후변화” 발표 (2021.12.18.)

(1) 유지민 (석사과정)

- 패널명: “기후변화와 불평등”
- 발표제목: “Do Remittances Reduce the Inequality of Sending Regions? - A Case Study of Mexico”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멕시코의 국립통계지리연구소와 국립사회발전정책평가위원회의 주(州) 수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주송금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음. 그 결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멕시코 내에서 이주송금과 불평등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었음.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이주송금액의 증가는 가장 가난한 계층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멕시코 각 주 내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음. 본 연구는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외교부,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후원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됨.

4) 2022년 하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 공동 학술대회 “포스트 팬데믹 라틴아메리카 지정학적 변화와 인플레이션 위기 진단-생태문명 전환과 불평등” 발표 (2022.06.11.)

(1) 이수지 (박사과정)

- 패널명: “라틴아메리카의 여성과 정책 (교수진 패널)”
- 발표제목: “Femal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Gender Sensitive Polic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Case of Latin American Countries”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비상시기에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여성을 위한 정책 도입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분석함. 연구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코로나-19 기간 동안 더 많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도입한 것을 확인함.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특히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도입한 것으로 보아 아르헨티나와 쿠바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정치체제, 임금 수준 외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함. 본 연구는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의 후원으로 개최된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함.

(2) 박효진 (석사과정)

- 패널명: “라틴아메리카의 여성과 정책”
- 발표제목: “법이 관습을 견인하는가? 르완다와 니카라과의 젠더 사례”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여성 권익이 법적으로는 잘 보장되지만 관습은 젠더 평등을 이룩하지 못한 르완다와 니카라과의 사례를 제시함. 법과 관습의 괴리, 법의 집행력, 그리고 국민의 관습 변화 의지의 3가지를 분석틀로 채택하여 르완다와 니카라과를 비교하며 두 국가 모두 법이 관습보다 앞서지만 니카라과가 적극적인 여성 운동의 지속으로 비교적 나은 실정임을 제시함.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의 주관으로 개최된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음.

5) 무역구제학회 2022 하계학술대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경제 회복력과 무역구제제도의 발전 방향” 발표 (2022.06.17.)

(1) 전현지 (박사과정)

- 패널명: 무역구제학회 패널
- 발표제목: “Evolution and Limitations of the Lesser Duty Rule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 발표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WTO 반덤핑협정 상 최소부과원칙의 설립 역사를 알아보고 동원칙 도입의 취지를 알아보았음. 주요국들의 원칙 운용방안을 살펴보고 적용의 효율성을 살펴보았음. 이러한 분석을 통해 최소부과원칙이 실제 반덤핑조사에서 가지는 한계를 알리고 함.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무역구제학회에서 주관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음.

6)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공동주최 제3회 EU Youth Forum “유럽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발표 (2022.06.30)

(1) 강나경 (박사과정)

- 패널명: 세션5 한국유럽학회 패널 2
- 발표제목: 유럽연합 여성의원 할당제와 여성정치 대표성 현황
- 발표논문의 우수성: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경제, 할당제 도입방식, 세부촉진제도에 따른 여성의원 비율 차이를 탐색함. 젠더분야의 경우 유럽연합이 독점적 권한을 갖는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성 비상임위원 비율을 정하는 법의 채택가능성이 높아졌음.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여성의원의 정치대표성 수준은 어떠한지 각 국가들의 경제수준(GDPPC)와 할당제 도입방식 및 세부 촉진제도에 따라 탐색함. 본 학회는 한국외대와 한국유럽학회, 서울대 장모네 EU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본 참가자는 유럽학회 패널에 참여함.

③ 참여대학원생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해당 없음

4.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계획 대비 실적 및 향후계획

- 제1차년도 교육연구단의 기반구축 단계에서 국제개발, 지역학 분야 전문가 2인을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하였으며, 제2차년도와 제3차년도 교육연구단의 안정화 단계에서 산업·사회 문제 해결분야 연구 및 국제개발 분야 전문가를 충원하여 교육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안정적인 추진을 모색하고자 함. 신진연구인력은 1년 단위로 신규·재임용 심사를 통해 계약연장을 하며,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즉각적인 충원을 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계획서상 기재된 바와 같이 신진연구인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박사후연구원 1명, 계약교수 1명으로 인원을 유지할 예정임. 제1차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신진연구인력 임용·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10월 15일 ~ 현재 박사후연구원 김보경 박사 (2022년 9월 1일 계약교수로 재임용)
 - 2020년 11월 01일 ~ 2022년 6월 30일 계약교수 김정민 박사 (개인 사유로 퇴직)
 - 2022년 08월 01일 ~ 현재 박사후연구원 심예리 박사
- 제4~5차년도 이후부터는 교육연구단이 5년간의 교육활동을 통해 배출한 박사급 연구자 또는 교육연구단의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해외 벤치마킹 대상 대학의 박사학위취득자 중 국제개발·지역학 현장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 사업기간 후반부에 해당하는 제6~7차년도 경에는 해외대학 신진연구자를 Global Visiting Fellow로 초청하고자 함(코로나19로 인해 사업기간 전반부에는 해외신진연구자 초청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를 위해 전문가특강 초청과 같은 기회를 활용하여 사업단 목표와 연구주제 간의 부합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할 예정임. 또한 BK21 4단계 종료 후 있을 후속사업에 대비하여 신규사업단계 기획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신진연구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계획 대비 실적 및 향후계획

(1) 신진연구인력 경력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건비 책정 및 지급

- 신진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른 인건비를 차등 책정하고, 공무원임금인상기준 등을 참고하여 물가상승에 따라 연 단위 재임용 심사 시 계약임금을 조정함으로써, 신진연구인력의 생활여건 안정화를 도모함

(2) 안정적인 연구활동 수행을 위한 연구환경 정비

- 신진연구인력의 안정적인 학술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학내 시설 및 서비스(도서관 사용자격 등)를 전임교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각종 기자재를 갖춘 독립된 연구공간을 신진연구인력 2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마련함.

(3) 연구 수월성 확보를 위한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채용 및 연구보조원 배정

- 신진연구인력이 연구 이외의 행정업무로 학술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받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연구단 행정전담인력 1인을 채용하여 산학협력단과의 회계 및 서류처리 업무 등 교육연구단의 일상적 행정 처리를 전담하도록 함.

- 2020년 9월 ~ 2021년 2월: 직원
- 2021년 2월 ~ 현재: 직원

- 신진연구인력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학원생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신진연구인력 1인당 1명의 BK21 참여대학원생을 RA로 배정했으며, 이는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수월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4) 국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확장

- 신진연구인력은 근래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계에 들어선 연구자이므로, 국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대해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물론 국제대학원의 전임교원은 각자가 지금까지 구축해 온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연구단에 소속된 신진연구인력이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진은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통해 연구의 질적 우수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해외석학초청특강(BK21 Special Lecture Series) 연사 초청단계에서 신진연구인력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우수 대학의 분야 전문가와의 자연스러운 네트워킹과 연구교류가 가능하도록 함.
 - BK21 신진연구인력 워크숍(Researcher Workshop)을 통해 신진연구인력의 연구발표를 독려하고 이에 대한 외부 토론자를 초청하여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함.
-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계획인 연구용역 또는 공동연구사업에 신진연구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유관기관과의 연구 네트워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사업단장의 승인하에 학기 당 일정 정도의 강의 및 연구용역 참여가 가능하며, 이는 교육연구단 활동만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종류의 강의·연구활동에 대한 경력으로 이어짐. 신진연구인력 2인은 매 학기 서울대학교에서 한 개의 교과목을 담당하며 교육연구단 연구주제와 관련된 여러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활동함.
- 국내외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대회 패널발표에 신진연구인력이 중간관리자 역할 등의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전문가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함.
 - 2022년 10월 15-16일 대만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인류학대회(East Asi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EAAA) 연례학술회의에 동 교육연구단 이름으로 두 개의 패널을 신청하였으며, 참여교수 2명, 참여대학원생 12명 (패널발표 9명, 개인발표 3명), 신진연구인력 2명이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 해당 학술대회에서 신진연구인력은 Panel Organizer이자 토론자로 소속되어 패널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경험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여러 전문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5) 참여대학원생과의 공동연구 지원 및 논문지도 참여 기회 부여

- 신진연구인력이 단지 참여대학원생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교육연구단의 실무 및 운영을 담당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대학원생과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논문 투고 등의 활동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주제와 신진연구인력의 연구분야가 유사한 경우, 참여교수의 판단에 따라 논문지도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신진연구인력이 연구자로서뿐만 아니라 향후 대학원생의 연구를 지도할 교육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6)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및 학술지 논문게재 비용 지원

- 신진연구인력의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저널 논문게재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된 제반비용(심사비, 게재료, 국제저명학술지 투고 시 외국어 첨삭비용 등)을 지원함.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에 참가하는 경우, 교통비/숙박비/일비/숙박비를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맞춰 지급함.

- 2021년 9월 ~ 2022년 8월 기간 중 김보경 신진연구인력에 대해 국내학술대회 여비 1건, 국제학술대회 등록비 3건 관련 지원을 완료함.

(7) 신진연구인력의 저서 출판 지원

- BK21 사업비 집행 규정상 출판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음. 이에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저서 지원 여부를 심사할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해당 저서가 본 교육연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교재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본 교육연구단이 설정한 연구 및 교육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지가 큰 비중을 차지함.

-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의 단행본 출판지원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현재 교육연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차별 교재개발사업에 신진연구인력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를 학생과 공동집필하는 형태로 저서출판 실적 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과제를 진행중임.

- 2021 제2차년도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위한 사례집 I (개관·지역 사례연구)’ (참여교수 7인, 신진연구인력 2인, 참여대학원생 13인 공동집필)
- 2022 제3차년도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위한 사례집 II (국제개발과 포용적 성장: 젠더·빈곤·교육 사례연구)’ (참여교수 7인, 신진연구인력 1인, 참여대학원생 11인 공동집필)

(8) 해외자료조사 기회 제공

- 신진연구인력의 논문 작성을 위한 해외자료조사 비용 혹은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연수비용을 연 1회 지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신진연구인력의 해외자료조사 기간은 15일 이내의 단기연수에 준하여 설정하며, 해외자료조사에 소요되는 항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원함). 해외자료조사 비용 혹은 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연수비용을 지원받은 신진연구인력은 해당 조사 혹은 연구 종료 2년 내에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를 의무화함으로써 해외자료조사 지원금 수혜에 대한 책임성을 높임.

- 제1차년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 등으로 인해 신진연구인력의 해외현지조사 파견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21 ~ 25일 김보경 신진연구인력이 동남아시아 메콩강 유역 지뢰/불발탄제거 관련 연구를 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방문함. 귀국 후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현재 논문을 작성중에 있으며 연구 종료 2년 내에 논문출판을 통해 교육연구단 연구실적에 기여하고자 함.

- 코로나19 관련 여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향후에는 보다 활발한 해외자료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도출된 논문은 교육연구단의 실적으로도 활용가능할 예정임.

(9) 학술 및 연구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교육연구단의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신진연구인력의 학술 및 연구 활동 실적과 교육연구단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 등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신진연구인력의 교육연구단에 대한 기여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내규를 정립함.

3) 신진연구인력의 교육실적 및 연구실적 (2021년 9월 ~ 2022년 8월 실적)

○ 김보경 신진연구인력

(박사후연구원: 임용기간 - 2020년 10월 15일 ~ 2022년 8월 31일)

(연구교수: 임용기간 - 2022년 9월 1일 ~ 현재)

(1) BK21 교육연구단 관련 행정업무:

- 교육연구단 신규 홈페이지 관리업무 전담 (gsisbk21.snu.ac.kr)
- 해외석학초청·동문초청 특강시리즈 행정지원, BK21 워크숍, 세미나, IGSC, GDF 등 사업단 주최 행사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외 참여대학원생 활동지원, 개별면담 등 교육연구단 관련 업무·활동

(2) 교육실적:

1. 강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2021년 2학기 & 2022년 1학기 『국제개발학의기초』 과목 강의,
- 2021년 겨울계절학기 『국제협력세미나 1(국제개발론)』 과목 팀티칭 강의

2. 학생 논문심사 및 공동연구

- 학위논문심사(프로포절): 석사과정 석사과정
- 학생공동연구: 석사과정 임운정(BK교재개발, 논문집필), 석사과정 신송학(BK 교재개발, 해외학회발표)

(3) 연구실적 및 기타학술활동:

1. 학술논문: 총 2건

- 2021년 12월 (KCI 등재지, 단독) “개발협력에서의 국익 개념: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3권 4호: 1-28.
- 2022년 5월 (SCOPUS 등재지, 단독) “Collaborative Platforms and Diversifying Partnerships of South-South Cooperation (SSC) and Triangular Cooperation (TrC): Middle Powers’ Struggles for Nation Branding”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10(1): 107-129.

2. 저서 및 발간물: 총 1건

- 2022년 1월 (해외 단행본 챕터 공저)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Japan and South Korea: New Strategies for an Uncertain World, 제12장 “A Way Forward to Achieve the SDGs in Korea: Reformul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p. 283-311. Palgrave Macmillan (ISBN: 978-981-16-4600-3)

3. 학술대회 발표 (국내·국제): 국내 - 발표 1건·토론 2건 / 국제 - 발표 2건

- 2021.11.27.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2021 동계학술대회 (국내-토론)
- 2022.02.23. 2022 평창평화포럼 (국제-발표)
- 2022.06.17. 2022 한국정책학회(KAPS) 하계학술대회 (국내-토론)
- 2022.06.30. 한국국제정치학회(KAIS) 2022 하계학술대회 (국내-공동발표)
- 2022.07.06. Development Studies Association (DSA) 2022 Annual Conference (국제-발표)

4. 연구 프로젝트 참여: 총 7건 (2021.09.01.-현재)

- 2021.04.01.-10.31. 한국국제정치학회(KAIS) 국제개발협력 연구분과위원회 ‘2021년 KOICA-KAIDEC ODA 학술활동 지원 프로그램 - 제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상의 ‘상생의 국익실현’ 개념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 참여 (연구책임: 교수)
- 2021.05.01.-10.3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교재개발’ 연구 참여 (연구책임: 박태균 교수)
- 2021.05.01.-10.3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울대학교 아프리카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전략방안 연구’ 참여 (연구책임:)
- 2021.06.20.-11.20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폴리텍 국제개발협력 신사업 모델 발굴 연구’ 참여 (연구책임:)

- 2021.11.07.-현재 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RISD,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2022.10.31.종료예정) ‘DEEPEN (The Development-Environment-Peace Nexus in Borders and Borderlands) 프로젝트’ 참여 (연구책임:)
- 2022.05.01.-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2022.10.31.종료예정) 연구를 통한 교재개발 II - 국제개발과 포용적 성장: 젠더·빈곤·교육 사례연구’ 연구 참여 (연구책임: 박태균 교육연구단장)
- 2022.07.01.-현재 주요국의 대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동향 조사 (연구책임:)
(2022.10.24.종료예정)

5. 기타활동: 4건 (2021.09.01.-현재)

- 2021.01.01. ~ 현재: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연구부위원장
- 2022.01.01. ~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KAIS) 국제개발협력연구분과위원회 위원
- 2022.01.01. ~ 현재: 한국정책학회(KAPS) ODA정책특별위원회 이사
- 2022.03.01. ~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센터 공동연구원

○ 김정민 신진연구인력 (퇴직)

(연구교수: 임용기간 - 2020년 11월 1일 ~ 2022년 6월 30일)

(1) BK21 교육연구단 관련 행정업무:

- BK21 홍보팀 업무 담당
- 해외석학초청·동문초청 특강시리즈 행정지원, BK21 워크숍, 세미나, IGSC, GDF 등 사업단 주최 행사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외 참여대학원생 활동지원, 개별면담 등 교육연구단 관련 업무·활동

(2) 교육실적: 강의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 2021년 2학기 & 2022년 1학기 학부교양『Two Koreas: Modern Korean History and Society』 과목 강의

(2) 연구실적: 학술논문 1건

- 2022년 6월 (SCOPUS 공저, 제1저자) “Tradition as Strategy: An Analytic Narrative of Hahoe Village’s Transition to Modernity”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35(1): 163-186.

○ 심예리 신진연구인력

(박사후연구원: 임용기간 - 2022년 8월 1일 ~ 현재)

(1) BK21 교육연구단 업무 담당:

- BK21 워크숍, IGSC-VMC 등 사업단 주최 행사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외 참여대학원생 활동지원 등 교육연구단 관련 업무·활동

(2) 기타 학술활동:

1. 연구 프로젝트 참여: 총 2건 (2022.08.01.-현재)

- 2022.01.01.-현재 농업인의 양성평등 평가 지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2차년도) (연구책임:
(2022.12.31.종료예정))
- 2022.07.01.-현재 주요국의 대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동향 조사 (연구책임:)
(2022.10.24.종료예정)

2. 기타활동: 3건 (2022.08.01.-현재)

- 2021.01.01. ~ 현재: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젠더연구분과위원회 총무·간사
- 2022.01.01. ~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 2022.03.01. ~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센터 공동연구원

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1) 박태균 교수 (교육연구단장)

- 2021년 2학기 “신입생 세미나: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 을 통해 세계 각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과 비판을 주제로 과목을 개설하여 학부생들과의 접촉을 강화함.
- 2022년 2학기 진행될 독일자유베를린대학교의 공동교과목 개설을 위해 2021년 2학기부터 2022년 1학기 동안 독일자유베를린대학교와 조율
- 2022년 3월 KNN ‘최강1교시 - 한미 동맹의 오해와 진실 편’,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60회 가량 출연중인 국방TV ‘역전다방(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등의 방송활동을 통해 일반인 대상 교양 역사 강의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음.

2) 김종섭 교수

- 2021년 2학기 “젠더와 개발 (Gender and Development)”, 2021년 2학기·2022년 1학기 “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and Skills)”, 2022년 1학기 “개발원조사업의 수행과 평가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id Projects)” 교과목을 담당함.
- 참여기간 동안 국제개발에 대한 강의를 하였으며 이 강의에서 다룬 주제들로 학생들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음. 학생들과 공동으로 학회에서 발표하였으며 발표 후에는 KCI급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되었음. BK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하고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업적물과 학술대회참여실적 작성부분에도 잘 나타나 있음.

3) 김태균 교수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센터장으로서 ‘서울대 아프리카 세미나’ 시리즈를 조직·기획하여, 교내외 아프리카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학술교류 기회를 제공.
- 코이카에서 후원하는 2022년 광주국제개발협력센터 ODA 정규교육 과정 중 2022년 4월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이슈” 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일반인 대상 국제개발협력 및 ODA 이해 증진에 기여함.

4) 박지환 교수

- 2021년 2학기 “지역연구프로젝트 3 [질적 연구 방법론 (Research Project in International Area Studies 3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nd Discursive Analysis])”, “현대일본사회의 불평등 (Social Inequality in Contemporary Japan)”, 2022년 1학기 “현대일본사회의 쟁점 [교육제도와 문화] (Issues in the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Educational System and Culture])”, “동아시아 지역의 이해 (Understanding East Asia)” 교과목을 담당함.
- 본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석학초청특강 (Special Lecture Series) 시리즈 연사 섭외 및 진행을 담당함.
- BK21 사업단 학생들과 함께 교재개발을 위한 공동 사례연구에 참여.

5) 송지연 교수

- 2021년 2학기 “국제협력의 이해 (International Cooperation)”, 2022년 1학기 “국제협력과 사회경제개발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교과목을 담당함.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강의 진행 이외에도 이외 본 교육연구단 참여 대학원생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석학초청특강 (Special Lecture Series) 시리즈 연사 섭외 및 진행을 담당함.
- BK21 사업단 학생들과 함께 교재개발을 위한 공동 사례연구에 참여.

6) 신성호 교수

- 2021년 2학기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 (Changing World Order and Korea)”, “국제안보의 이해 (Understanding International Security)”, 2022년 1학기 “국제협력의 이해 (International Cooperation)”, “동아시아의 국가안보전략 (East Asian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교과목을 담당함.
- 이 중, 국제대학원의 기본과목이자 최대 수강인원 과목인 “국제협력의 이해” 강의를 통해 각종 국제현안은 물론 개발과 기후, 에너지, 여성인권 문제 등을 60명의 학생들과 토의 및 교육, 동 과목에는 특히 국제대학원의 KOICA 지원으로 참여중인 개도국의 중견관리 학생들이 전원 수강.
- KOICA 개도국 여성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아프리카 및 중근동 지역 학생들 6명의 석사학위 논문 지도.
- 동 기간 중 캠퍼스 아시아의 서울대 국제대학원 프로그램 주임교수로 학생들의 공동 복수학위와 교환 학생 교류를 촉진하였고, 공동교과목에 참여하여 강의를 통한 교육 활동 수행.

7) 안덕근 교수

- 2022년 1학기 “세계무역기구와 다자간무역협정 (World Trade Organization &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국제협상시물레이션게임 (International Negotiation Simulation Game)” 교과목을 담당함.
- 2022년 1학기까지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학위, 교환학생, 방문프로그램 등의 인바운드(In-bound), SNU in the World, 단기/장기 해외연수 등의 아웃바운드(Out-bound) 프로그램 운영 총괄.

8) 안재빈 교수

- 2021년 2학기 “국제경제관계의 이해”, “경제외교의 이해 (Economic Diplomacy: Theory and Practice)”, 2022년 1학기 “국제경제정책 평가분석 방법론”, “국제무역통상이론” 교과목을 담당.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연구소 글로벌 액셀런스 세미나 총 3회 사회를 맡았으며 글로벌 프로미넌스 세미나 시리즈에서 1회 발표를 하였음.

9) 오윤아 교수

- 2021년 1학기 “동남아의 정치경제 (Political Economy of Southeast Asia)”, “한국과 동남아 관계 (Korea-Southeast Asia Relations)”, 2022년 1학기 “동남아 국제관계의 이해 (International Relations of Southeast Asia)”, “동남아의 정치경제 (Political Economy of Southeast Asia)” 교과목을 담당.
- 특히, ‘동남아의 정치경제’ 과목은 동남아 국가들의 실례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성장, 산업고도화와 혁신의 과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발의 문제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단과 연계성이 높음.

10) 은기수 교수

- 2019년 2학기 “근대화와 한국사회의 변화 (Modern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2021년 2학기·2022년 1학기 “비교방법론 (Comparative Methodology)”, 2022년 1학기 “한국의 사회 (Korean Society)” 교과목을 담당
-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센터장으로서 ‘포용사회와 돌봄’, ‘국제이주와 통합’, ‘젠더평등과 변호’ 라는 세 가지 큰 연구축을 토대로 다양한 공개세미나를 기획하여 사업단의 교육·연구의 지평을 넓힘.

11) 이수형 교수

- 2021년 2학기 “인공지능시대의 일자리 (Job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국제통상 데이터 분석 (Data Analytics for International Commerce)”, 2022년 1학기 “국제통상세미나 2 [실증 분석 연구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 분석] (Seminar in International Commerce 2 [Data Analytics For Empirical Research Projects]”, “국제통상 데이터 분석 (Data Analytics for International Commerce)” 교과목을 담당함.
- 2021년 2학기~2022년 1학기 학생논문을 지도했을 뿐 아니라 2022년 1학기에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우수강의상을 수상함.
- 2021년 11월 구글에서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커뮤니티이자 경진대회 플랫폼인 “캐글(Kaggle) 데이터 분석 대회” 에서 공동연구자와 함께 한국인 최초 우승을 거둠.

12) 정중호 교수

- 2021년 2학기 “지역연구연습 [중국문화연구] (Seminar on Area Studies [Study of China's Culture]”, 2021년 2학기·2022년 1학기 “지역연구의 쟁점 (Topics in Area Studies)”, 2022년 1학기 “현대중국의 사회현황과 문제” 교과목을 담당.
- 2022년 한중수교 30년을 맞이하여, 한중관계의 지난 30년의 발전과정을 회고 및 평가하고, 새로운 한중관계에 대한 전망 및 제언을 내용으로 하는 총서를 기획하면서 한중 양국의 외교, 군사, 경제 통상, 무역투자, 사회문화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을 제공하였고, 특히 학생들과 한중수교 30년의 주요 통계를 작성함.

13) 한정훈 교수

- 2021년 2학기 “유럽통합: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 (European Integration: Law and Institutions of European Union)”, “글로벌 시대의 한국과 정치 (Politics in Global Korea)”, 2022년 1학기 “유럽연합의 정치적 발전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European Union)”, “한국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 교과목을 담당.
- 한국학 전공 및 지역학 전공 7명, DCPH학생 4명의 석사학위논문을 지도하였음.
- 2022년 7월에는 SNU in World Program을 통해 서울대학교 학부 학생 20명 벨기에 현지조사 지도.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①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1) 인·아웃바운드 프로그램 지속 및 강화

(1) 양성평등 프로그램

-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진행해 온 개발협력정책프로그램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Program: DCPD 프로그램)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학에서 ‘젠더개발학 석사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아프리카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관료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하였음.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2020년 2학기부터 개발도상국 국가들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0명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ender and Development Program으로 초청하여 17개월 동안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해당 학위과정은 저개발지역의 국제개발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산업사회문재인 성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2020년 8월에 20명(1기)이 입학하여 2022년 8월에 전원 졸업하였으며, 2021년 8월에 20명(2기)이 입학하였으며 2023년 8월 졸업예정임 (2년 과정). 최근 2022년 8월 20명(3기)가 입학하였으며 2024년 2월 석사학위를 받을 예정임 (3기부터 1.5년 과정으로 단축).
- 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개도국 공무원들은 석사학위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 자국의 정책적, 제도적 성평등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2) 공동강의·해외연수 프로그램

- 기존 해외대학과의 공동교과목 운영 지속(캠퍼스아시아) 및 신규과목 개발·개설을 통해 공동강의를 향후 공동연구로 확장하고자 함. 2022년 2학기부터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교 공동교과목을 개설하고 이후 겨울방학 중 자유베를린대학에서 해외연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중임.
- 향후 중국연변대학교 융합대학원 한국학과와의 공동강의(신청서상 공동교과목명: 동북아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전략), 태국 출라롱콘대학교와의 공동강의(신청서상 공동교과목명: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국제이주 연구)를 개설하고 이를 장기적인 국제공동연구로 발전시키고자 함.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고등교육 질적 개선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음. 2008년부터 SNU-Chula 한국학프로그램(Korean Studies Program)을 시작하여 매년 2-3명의 교수가 태국 출라롱콘대학교를 방문하여 강의를 진행하면서 개도국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 있음. 제4차년도 이후에는 유사프로그램 설치를 희망하는 호치민대학교와 필리핀 국립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적극 고려하고 있음. 또한, 연변대학교에 대한 유사한 지원을 검토하여 국제화와 한국연구 거점으로 지정된 연변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임.

(3) 해외학자(초빙교수, 객원교수 등 포함) 활용 계획

- 기존 대학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제지역·개발을 전공한 외국인 교수의 특별채용을 계획한 바 있음.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는 2022년 5월 26일, 호한재단(The Australia-Korea Foundation), 우드사이드 에너지(Woodside Energy Ltd.)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파견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는 향후 3년간 호주학 관련 교수가 파견될 예정(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이며 본 협약은 호주 대학과의 교원교류, 공동 학술행사 개최, 교환학생 제도실시 등 활발한 인적자원 육성의 기반이 될 것임.
- 국제개발 전공 신설에 따른 전임교원 채용과 외국인 교수파견을 위한 협정체결을 통해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음.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진과 해외대학 교원교류를 통해 파견된 교수진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교육연구단의 국제화 역량을 향상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측면에서 여타 해외대학과도 유사한 교원교류 제도를 더욱 활발히 모색할 계획임.

(4) 외국 대학과의 복수학위제도를 통한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계획

- 현재 서울대학교 본부와 국제대학원의 자체 장학금, 그리고 정부초청 장학생 유치를 통해 우수 외국인 학생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SNU-Chula 한국학 프로그램(SNU-Chula Korean Studies Program)을 호치민대학 및 필리핀국립대학에 유사한 형태로 설치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대학원생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한 개발도상국 전문가 프로그램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발정책과정(DCPP) 졸업생의 진학을 유도함.
- 국제대학원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독일 튀빙겐대학교(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프랑스 에섹경영대학교(ESSEC Business School), 벨기에 루벤 카톨릭대학교(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등 동 대학원과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해외대학 및 기관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고 있음.

2) 외국연구소·대학과의 인적교류 및 국제 공동연구 확대 계획

(1) BK21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Conference를 통한 해외 대학과의 학생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 2022년 8월 16일, 제2차 IGSC를 준비하기 위한 여름 Virtual Mini-Conference (2022 IGSC-VMC)를 기획하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동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산동대학교, 출라롱콘대학교, 북경대학교, 홍콩중문대학교 석사과정 학생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이 토론함.
- 특히, 2022년 7월부터 약 2개월간 국가별 1인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온라인에서 모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독립패널에서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 같은 학생 국제 공동연구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

(2) 국제학연구소 글로벌 엑셀런스 세미나를 통한 학술교류

- 국제학연구소 주관 글로벌 엑셀런스 세미나(Global Excellence Seminar)의 경우 2021년 2학기, 2022년 1학기 각각 평균 약 10회 외부발표자를 초청하여 진행하였으며, 참여교수진 중 김태균 교수, 박지환 교수, 송지연 교수, 안재빈 교수, 한정훈 교수 등이 사회 및 토론을 맡음.
- 2021년 2학기~2022년 1학기 글로벌 엑셀런스 세미나(Global Excellence Seminar) 21회 개최 참여
 - (2021.09.10.) 사회: 송지연 참여교수, 발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Contending American Visions of North Korea: The Mission Civilisatrice vs. Realpolitik”
 - (2021.09.17.) 사회: 송지연 참여교수, 발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Inequality, Wealth, and Electoral Politics: A Subnational Analysis in South Korea”
 - (2021.09.24.) 사회: 박지환 참여교수, 발표: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교수) “실험실 혹은 현장: 국제개발협력과 예외공간”
 - (2021.10.01.) 사회: 김태균 참여교수, 발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대학 교수) “Let There Be Light: Innovative Solutions for Energy Access in India”
 - (2021.10.08.) 사회: 송지연 참여교수, 발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개혁

기 중국의 국가-사영기업가 관계와 시진핑 시기의 변화”

- (2021.10.22.) 사회: 한정훈 참여교수, 발표: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Providing protection: Agricultural Support and the Flexibility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in Democracies”
- (2021.11.12.) 사회: 송지연 참여교수, 발표: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불완전한 국제투자법: 원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
- (2021.11.26.) 사회: 안재빈 참여교수, 발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Community Banks and the Mitigation of the China Shock”
- (2021.12.03.) 사회: 안재빈 참여교수, 발표: (Claremont Mckenna College 교수) “Exporting and Firm Value”
- (2022.03.11.) 사회: 김태균 참여교수, 발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Translocal Relations of Climate Change”
- (2022.03.25.) 사회: 송지연 참여교수, 발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The Nukes We Need: Retrofitting the American Extended Deterrent”
- (2022.04.01.) 사회: 안재빈 참여교수, 발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Are Government Spending Shocks Inflationary at the Zero Lower Bound? New Evidence from Daily Data”
- (2022.04.08.) 사회: 송지연 참여교수, 발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주 경쟁, 안보딜레마,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 (2022.04.15.) 사회: 박지환 참여교수, 발표: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 “산악민에서 비주류 타자로: 대륙 동남아 일대의 카렌족과 카친족을 중심으로”
- (2022.04.22.) 사회: 송지연 참여교수, 발표: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The Follower’s Curse?: The Paradoxical Impact of Creative Limitation on Innovation Performance of Latecomer Firms in Pursuit of Technological Catch-Up”
- (2022.04.29.) 사회: 김태균 참여교수, 발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얀마 사태와 R2P의 재발견?: 보호책임 (R2P)의 이론과 실행”
- (2022.05.06.) 사회: 안재빈 참여교수, 발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An Equilibrium Model of Career Concerns, Investment Horizons, and Mutual Fund Value Added”
- (2022.05.13.) 사회: 송지연 참여교수, 발표: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American Employers’ Political Mobilization of Workers”
- (2022.05.20.) 사회: 송지연 참여교수, 발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Nationalism and Shared Democratic Identity: Evidence from Japan and South Korea”
- (2022.05.27.) 사회: 송지연 참여교수, 발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 기업의 다양성 관리제도 도입과 성과”
- (2022.06.03.) 사회: 한정훈 참여교수, 발표: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Let Presidents Fail: Congressional Deference to Presidents as Gambling on Failure”

(3) 국제학연구소 글로벌 프로미넌스 세미나를 통한 학술교류

- 국제학연구소 주관 글로벌 프로미넌스 세미나(Global Prominence Seminar)의 경우 국제학 및 지역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중진학자들과의 학술적인 토론을 통해 학제 간 연구의 발판을 넓히고 연구진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된 세미나 시리즈에 해당함. 2021년 2학기, 2022년 1학기 각각 5회 개최되었으며, 참여교수진 중 박태균 교육연구단장, 김종섭 교수, 박지환 교수, 안

재빈 교수, 송지연 교수, 신성호 교수, 오윤아 교수, 이수형 교수, 정종호 교수, 한정훈 교수가 사회 및 발표를 함.

- (2021.09.15.) 제1회 GPS 사회 : 정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표: 안재빈 참여교수 “Downward Nominal Wage Rigidity, Fixed Exchange Rate, and Unemployment: The Case of Dollarization with a Binding Minimum Wage”
- (2021.10.13.) 제2회 GPS 사회: 정종호 참여교수, 발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중국은 어떻게 움직이나: 공산당 영도 체제와 통제기제”
- (2021.11.17.) 제3회 GPS 사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표: 송지연 참여교수 “저출산·고령화 시대 일본의 도전과제”
- (2021.12.13.) 제4회 GPS 사회: 신성호 참여교수, 발표: (Washington College 교수) “Aging Allies and Alliances: Addressing Demographic Change in the Indo-Pacific”
- (2021.12.15.) 제5회 GPS 사회: 이수형 참여교수, 발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 부동산 시장에 관한 거시경제 실증분석과 정책함의”
- (2022.03.16.) 제6회 GPS 사회: 신성호 참여교수, 발표: 박지환 참여교수 “일본 지방청년의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과 그 내적 분화”
- (2022.04.13.) 제7회 GPS 사회: 박태균 교육연구단장, 발표: 한정훈 참여교수 “제20대 대선에서 젊은층 유권자의 변심: 일시적 현상인가?”
- (2022.05.18.) 제8회 GPS 사회: 김종섭 참여교수, 발표: 이수형 참여교수 “Effects of Long Commute Time on Workers’ Health: Evidence from a Large-Scale Place-Based Policy”
- (2022.06.15.) 제9회 GPS 사회: 박지환 참여교수, 발표: 오윤아 참여교수 “Myanmar’s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during the Reform Period of the 2010s”
- (2022.07.07.) 제10회 GPS사회: 신성호 참여교수, 발표: (Asia 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교수) “The Theory of Strategic Constructivism: The Case of US-China Ideological Competition”

(4) 토요타 재단 지원 외국인 교수 강의 프로그램

- 토요타 재단의 지원으로 국제대학원에서 그간 외국인 교수 강의 프로그램(비정기 개최 “Asia and the World 공개강연회”, “Issues and Perspectives 세미나”)이 진행되어 왔으며, 오윤아 참여교수가 현재 주도하고 있음.
- 2021년 2학기~2022년 1학기 Asia and the World 공개강연회 1회 개최
 - (2022.04.11.) (국방부장관) “Korean Peninsula Security Environment and Our National Defense Strategy”
- 2021년 2학기~2022년 1학기 Issues and Perspectives 4회 개최
 - (2021.11.08.) Helena Varkkey (University of Malaya) “Transboundary Haze in Southeast Asia: Causes, Effects, and Solutions”
 - (2021.11.12.) (중앙대학교 교수) “동남아 해운항만 시스템의 발전과 진화”
 - (2022.03.29.) (서울대학교 교수) “From Coercion to Cooperation: Urban Governance Targeting Migrant Workers in China”
 - (2022.05.11.) Anang Laksono (Head of Statistics Division at ASEAN Secretariat) “Strengthening Regional Cooperation to Enhance Quality and Visibility of ASEAN Statistics”

② 참여대학원생 국제공동연구 현황과 계획

1) 국별·지역별 연구 보고서 발간

(1)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교재개발사업

- 국제개발·지역학 분야의 지식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산업·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본 교육연구단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 현재성 있는 지역·개발연구를 위하여 지역별 1~2개의 개발도상국 혹은 1~2개의 국제개발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Regional Report 또는 Country Case Study Report를 교재개발사업 형태를 통해 발간 중에 있음. 해당 사업은 현재 교내과제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교재개발”로 추진중에 있음. 제2차년도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위한 사례집 I (개관·지역 사례 연구)’ (참여교수 7인, 신진연구인력 2인, 참여대학원생 13인 집필완료)에 이어 제3차년도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를 위한 사례집 II (국제개발과 포용적 성장 - 젠더·빈곤·교육 사례 연구)’ (참여교수 7인, 신진연구인력 1인, 참여대학원생 11인 집필중)를 위한 연구를 진행중임.
- 각 사례연구별 참여교수 1인과 참여대학원생 1인이 팀을 이뤄 연구를 진행중이며, 연구팀(가나다순) 및 주제는 다음과 같음:
 - 김종섭(참여교수) - 박효진(참여대학원생) ‘법이 관습을 견인하는가: 르완다와 니카라과의 젠더 사례’
 - 김종섭(참여교수) - 금유진(참여대학원생): ‘조혼 풍습에 관한 지역별 비교 연구(남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 박지환(참여교수) - 조수빈(참여대학원생): ‘일본-몽골 간 교육 협력의 전개와 특징: 장애아를 위한 교육개선 프로젝트(START)의 사례’
 - 은기수(참여교수) - 최규원(참여대학원생): ‘돌봄 서비스의 이주노동자 현황과 정책 비교 분석: 한국과 싱가포르 사례’
 - 은기수(참여교수) - 최재경(참여대학원생):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한국: 인력개발을 중심으로’
 - 이수형(참여교수) - 김다운(참여대학원생): ‘삶의 질과 출산율: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 송지연(참여교수) - 임윤정(참여대학원생): ‘한국의 아시아 중점협력국에 대한 교육 ODA연구: 베트남을 중심으로’
 - 송지연(참여교수) - 이유림(참여대학원생): ‘한국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교육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 송지연(참여교수) - 임지우(참여대학원생): ‘유네스코 모두를 위한 교육 성공사례로서 세이셸공화국의 교육 정책 연구’
 - 한정훈(참여교수) - 강나경(참여대학원생): ‘몽골의 민주주의와 성 평등: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김보경(신진연구인력) - 신송학(참여대학원생): ‘우간다의 이주민에 대한 포용적 정책과 사회통합: 교육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사례연구 중간점검을 위해 2022년 8월 24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외부 토론자 2인(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부열 교수,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정법모 교수)을 초청하여 각 연구에 대한 상세토론 및 향후 수정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함.
- 해당 연구는 2022년 10월 종료하여 3차년도 내 사례집 시리즈로 발간 예정이며, 향후 국제대학원 개설 교과목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코로나로 인한 해외방문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4차년도부터는 사례연구 수행 시 해당 국가와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병행하는 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재개발사업을 추진중임. 이를 통해 해외공동연구 및 대면 국제학술회의를 기획하고 국제화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2) 해외 교환프로그램 제도의 활성화

-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자체협정 교환프로그램(GSIS Outgoing Exchange Program)” 을 운영하고 있음. 파견을 위한 학생모집을 2021년 1학기부터 시행해왔으며, 2021년 2학기, 2022년 1학기 교환학생을 선발·파견함. 현재 2023년 1학기 파견을 위한 신청을 진행중임. 협약대학교는 총 25개이며, 교환프로그램 파트너십 체결 대상국가 및 기관은 다음과 같음:
 - 노르웨이: BI Norwegian Business School
 - 덴마크: Copenhagen Business School
 - 독일: 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 &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 러시아: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MGIMO University)
 -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Texas A&M University
 - 벨기에: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KU Leuven)
 - 스위스: The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 (IHEID)
 - 스페인: Institut Barcelona d'Estudis Internacionals (IBEI)
 -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 이탈리아: Bocconi University
 - 일본: Chuo University &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 Kobe University & Waseda University
 - 중국: Yanbian University & Peking University (2022년 2학기 신규 협정교)
 - 칠레: Universidad Adolfo Ibáñez
 -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
 - 프랑스: Ecole Supérieure des Sciences Economiques et Commerciales (ESSEC)
 - 핀란드: Hanken School of Economics
 - 호주: The University of Melbourne
 - 홍콩: The University of Hong Kong

3) 해외 외국교수의 공동지도

(1) 캠퍼스아시아 공동 석사학위 프로그램 (Campus Asia Program)

- 캠퍼스아시아 사업(공동·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GSIS)에서 최대 1년간 머물며 수학하는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SIS), 일본 동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GraSPP),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리관유 공공정책대학원(LKYSPP) 학생들의 국제공동연구 활동을 장려할 계획임. 이를 위해 BK21 프로그램의 다양한 공동연구, 연구발표 및 학술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
-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컨소시엄 대학 교수진·학생 간 유대 강화의 목적과 함께 4개 대학원의 교환프로그램, 복수학위제도 운영을 통해 BK21 참여대학원생들이 해외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며, 파견을 희망하는 참여대학원생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함.
- 국제대학원 캠퍼스 아시아프로그램은 2020년 캠퍼스아시아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이후 참여 대학 간 활발하게 학술적, 인적 교류를 수행중임.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동경대, 북경대 초청학생들이 전원 입국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수업을 수강하였음. 2021년 2학기부터 2022년 1학기 기간 동안 학생 파견 계획을 이행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음.
 - 2021년 2학기 서울대 → 동경대 파견인원: 5명, 서울대 → 북경대 파견인원: 4명
(참고) 동경대 → 서울대 초청인원: 4명, 북경대 → 서울대 초청인원: 4명
 - 2022년 1학기 서울대 → 동경대 파견인원: 4명, 서울대 → 북경대 파견인원: 2명
(참고) 동경대 → 서울대 초청인원: 4명, 북경대 → 서울대 초청인원: 3명

(2) 해외대학과의 공동강의 및 공동연구

-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과의 공동강의를 위해 2022년 8월중 한국학과와 사전조율을 마쳤으며 2022년 2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하고, 겨울방학 중 해외연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음. 또한 태국 출라롱콘대학과의 교환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한국학과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해당 대학 학생들이 2022년 8월중 개최된 BK21 IGSC-VMC에 발표자로 참여하여 한국, 일본, 중국 학생들과 교류를 시작함. 또한, 중국 연변대학교 융합대학원 한국학과와도 논의가 진행중임.
- 향후 공동강의가 정례화될 경우 공동강의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교환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상호 파견하며 공동연구의 틀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국제대학원 내 다양한 연구센터 현황 및 활용계획

- 2004년 국제대학원 산하 연구소로 설립된 이래 국제학연구소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학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한국학 관련 연구수행 및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술지, 연구총서, 동향보고서 및 working paper 등의 출판물을 발행하며, 국제학술회의 및 워크숍 개최를 더불어 국제 및 지역정보의 수집·정리·교류를 지원해왔음.
- 국제학연구소에는 현재 EU연구센터(센터장: 한정훈 참여교수), 국제안보센터(센터장: 신성호 참여교수),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센터장: 은기수 참여교수), 국제통상전략센터(센터장: 안덕근 참여교수), 국제협력연구센터(센터장: 김태균 참여교수), 미주연구센터(센터장: 김종섭 참여교수), 중국연구센터(센터장: 정종호 참여교수), 한국학연구센터(센터장: 박태균 참여교수, 교육연구단장) 등, BK21 참여교수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개발·지역학 관련 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국제개발 및 지역학의 다양한 연구센터를 활용하여 해외기관과의 학생파견·공동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
- 베트남 내 ODA 총괄부서인 개발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소속 개발전략연구소(Vietnames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rategy)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생을 단기간 보내는 방식으로 한국의 개발 경험 등의 주제와 관련해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2022년 여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학자 방문 및 대면강의에 여러 제약이 있었으나, 향후 참여대학원생을 파견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창구를 마련하여 대학원생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

○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논문·저서 실적 (2021년 9월 ~ 2022년 8월):

- 2021년 9월 ~ 2022년 8월 기간동안 동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13인의 논문·저서 실적은 다음과 같음:
 - 국제저명(SCCI급) 논문 총 14건, 연구재단등재지(KCI급) 논문 총 15건, 저서 총 7건, 국제기타논문 1건
- 연구대표실적 1: 김종섭 교수는 연구재단등재지(KCI) 학술지 중남미연구에 Kim, Chong-Sup and Yoo Jimin (2022) “Do Remittances Reduce Poverty and Inequality of Sending Regions? - A Case Study of Mexico” 를 게재하였다. 본 연구는 멕시코 통계청이 제공하는 멕시코 주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 송금이 빈곤과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이주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이 매우 큰 멕시코 32개 주에 대한 2008-2018년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 송금이 이주민 송출국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주별 불평등 완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송금 유입 규모가 가장 큰 10개 주 중 8개 주에서 국가평균보다 높은 빈곤율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 연구대표실적 2: 김태균 교수는 국제저명(SCOPUS) 학술지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에 Kim, Taekyoon and Shin-wha Lee (2022) “The Embedded Conundrum of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A Prologue to Shifting Frontiers from Collaboration to Contention” 을 게재하였다. 본 연구는 유엔 개발 체계 안팎의 협력(collaboration)에서 갈등(contention)으로 변해가는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SSTC)의 내재된 난제를 심도있게 다룬다. 본 논문은 갈등-협력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적 틀을 소개하며 글로벌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 아울러 남반구 협력국가 사이 역사적인 관계의 변화에 따른 SSTC 양상의 변화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남반구에 속한 국가들이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신흥공여국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남반구의 원조수혜국 파트너들과는 연대성에 기반한 협력 양상이 약해지고 있는 점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
- 연구대표실적 3: 오윤아 교수는 국제저명(SCCI) 학술지 Asian Survey에 Oh, Yoon Ah (2022) “The Vulnerability Effect that Wasn't: Trade Dependence and Entry Bans on China at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Pandemic” 을 게재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 초기 중국발 여행자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국금지 조치가 각 나라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와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적 취약성에 근거한 주장은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무역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중국의 제재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중국인 입국금지에 관한 1차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해당 주장은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사례를 통해 정치 등 국가별 구체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연구비 수주실적

- 동 교육연구단은 “국가전략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학과 국제개발을 선도하는 다학제적 학문후속세대와 전문 혁신인력 양성” 이라는 비전에 따라 지역학과 국제개발의 융복합적 접근에 따른 교육과 다학제적 연구의 선순환을 추구하며 연구를 진행해 왔다. 참여교수들이 진행하고 있는 29개의 연구사업 중 대표실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비 수주 대표실적 1: 대학원 전공 설계 마련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 연구(Inno-Edu 2031: 서울대 창의교육프로젝트) - 국제대학원의 전공 간 장벽을 없애므로써 대학원생들이 전공을 설계하고 학칙 상 전공을 교과목상 전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대학원, 환경대학원 분야를 국제대학원의 분야와 결합하여 다양한 공동교과목 개설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이는 인문학적 통찰과 사회과학적 지식의 융합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 연구비 수주 대표실적 2: 미-중 인도-태평양 지역질서 구축 경쟁과 한반도 - 인도-태평양 전략이 경제, 무역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것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이로써 한국이 추진하는 남북교류 및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최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6건의 학술논문 발표 및 저널투고 예정이다. 아울러 재편성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질서 및 다자무역 구도 속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연구결과물을 통하여 지경학과 역사, 안보,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복합적 접근법을 학계와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고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 진행성과에 따라, 기존 연구(지정학, 경제, 무역구조, 지정학, 안보, 대전략에 관한 역사적, 비교사적 연구)와의 유기적 연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신진연구자들을 연구진에 포함시켜 학술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고 차세대 학문 연구 성과를 장려한다.
- 연구비 수주 대표실적 3: 2021~2022 무역구제정책의 전망과 무역구제기관의 과제 - 글로벌 무역구제기관들과의 협력에서 우리 무역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의제와 쟁점 분석 및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무역구제정책의 전망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찰 및 분석을 통해 향후 무역구제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코로나 공존시대 세계무역구제정책의 전망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이며, 세부 주제로는 주요국들간의 무역구제조치 부과 현황 분석, 개도국 무역구제조치 활용 상황 분석 등 쟁점 파악 등이 있다.
- 연구비 수주 대표실적 4: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수립과정 및 시사점 연구 -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의 수립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환경정책, 특히 탄소국경제도의 도입과 공조의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법률적·정책적 측면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의 수립과정, 유럽연합 회원국 간 갈등, 유럽연합 제 기구 내 갈등, 유럽연합이 WTO와 충돌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법제에의 시사점 도출 및 법제적 전망을 제시한다.
- 이 밖에 개발-지역 매트릭스 상에 다양한 교차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참여대학원생 연구와 교육의 기회로 활용되어 다학제적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개발과 지역학 지식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1. 참여교수 연구역량

1.1 국내 및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실적

〈표 3-1-1〉 최근 1년간(2021.9.1~2022.8.31.) 인문사회계열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 항 목 | 수주액(천원) | | |
|--------------------------|--|-----------------------------------|------|
| | 3년간(2017.1.1.-2019.12.31.) 실적 (선정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 최근 1년간(2021.9.1~2022.8.31.) 실적 | 비고 |
|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 | | |
|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 | | |
|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입금액 | | | |
| 총 연구비 수주액 | | | BK제외 |
| 인문사회계열 참여교수 수 | 13 | 13 | |

1.2 연구업적물

① 참여교수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실적기간: 2021년 9월 ~ 2022년 8월)

(1) 박태균 교수 (교육연구단장): 학술논문 2건

| 번호 | 논문제목 | 유형 | 게재정보 | | | 단독/공동 | 본인참여 형태 | DOI | URL |
|----|---|----------------------|---|------|---|--------|------------|--------------------------------|-----|
| | | | 게재학술지명/ 발행기관 | 년 | 월 | | | | |
| 1 | Tradition as Strategy : An Analytic Narrative of Hahoe Village's Transition to Modernity | 국제 저명 (SCOPUS) |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2022 | 6 | 공동(3인) | 교신저자 | 10.1353/seo.2022.0008 | |
| | 본 연구는 분석적 내러티브 방법(analytic narrative method)을 활용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하회마을의 전통과 지속가능성이 보존되어온 과정을 탐구한다. 본 논문은 역사적 내러티브와 민속지학적 내러티브를 게임이론 분석과 통합하여, 유·무형문화재 및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 규범체계, 전통적, 준전통적, 현대적 제도 사이 견제와 균형 등에 기인하는 하회마을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게임이론 분석에 따라 하회마을의 현재 모습은 각각 전통지향적 행위자들과 시장지향적 행위자들로 구성된 두 집단 간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가정한다. 비용부담능력(affordability) 가설과 공유된 인식모형(shared mental model) 가설에 근거하여 하회마을 공동자원 관리의 사회적 딜레마에 대응하는 보수구조를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하회마을의 전통 보존은 이른바 “전통 게임”을 통한 전통과 지속가능성의 성공적 제도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는 하회마을의 지속가능한 제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 특징이 내재적 지속가능성에서 제도적 지속가능성으로 변화했음을 주장한다. | | | | | | | | |
| 2 | 장소에 깃든 서울의 전쟁 기억 | 연구재단 등재지 (KCI) | 국제·지역연구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2021 | 9 | 단독 | 주저자 | 10.56115/RIAS.2021.09.30.3.105 | |

본 연구는 서울의 전쟁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와 독일의 사례를 비교하며 도시개발과 복원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서울은 전쟁 시기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지만 전쟁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장소를 찾기는 쉽지 않으며, 단지 몇몇 빛바랜 사진 속에서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한국전쟁의 흔적이 없어진 것은 1960년대 이후 계속된 도시개발과 복구의 과정에서 전쟁의 상흔이 지워졌기 때문이고 이는 20세기 후반의 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장소였던 서울에서 한국 전쟁의 기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은 서울시와 시민들의 무관심을 보여주거나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19세기 말에 건립된 러시아 영사관은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국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지만, 최근 복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카이저교회, 하이델베르크의 성은 전쟁의 상처를 그대로 둠으로써 관광객들과 독일인들에게 전쟁의 기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억을 살림으로써 미래에도 그 교훈을 줄 수 있는 방식이다. 전쟁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재건된 장소를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전쟁의 기억과 교훈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도시개발과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2) 김종섭 교수: 학술논문 4건

| 번호 | 논문제목 | 유형 | 게재정보 | | | 단독/공동 | 본인참여 형태 | DOI | URL |
|----|---|----------------------|--|------|----|--------|---------|-----------------------------|-----|
| | | | 게재학술지명/ 발행기관 | 년 | 월 | | | | |
| 1 | Foreign Aid and Income Inequality | 연구재단 등재지 (KCI) |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2022 | 6 | 공동(2인) | 교신저자 | 10.23071/jias.2022.29.1.61 | |
| | 본 연구는 가장 업데이트된 GINI 데이터를 사용하여 원조가 소득분배에 주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원조수혜국 내 소득불평등에 해외원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원조효과성의 실증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유엔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ID)를 활용하여 1997년부터 2018년까지 156개 국가에 대해 통합 OLS 추정량 및 GMM 추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해외원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 | |
| 2 | Do Remittances Reduce Poverty and Inequality of Sending Regions? - A Case Study of Mexico | 연구재단 등재지 (KCI) | 중남미연구 / 중남미연구소 | 2022 | 5 | 공동(2인) | 주저자 | 10.17855/jlas.2022.5.41.2.1 | |
| | 멕시코는 이주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규모가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멕시코 통계청이 제공하는 멕시코 주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 송금이 빈곤과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멕시코 32개주에 대한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 송금이 이주민 송출국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 | | | | | | | |
| 3 | Maternity Waiting Home as a Potential Intervention for Reducing the Maternal Mortality Ratio in El Salvador: An Observational Case Study | 국제 저명 (SSCI) | Archives of Public Health / BioMed Central Ltd | 2021 | 12 | 공동(2인) | 공동저자 | 10.1186/s13690-021-00752-8 | |
| | 본 논문은 엘살바도르에서 왜 모성사망률(MMR)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보다 빨리 감소하였는지 통계와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사례조사를 활용한 결과 엘살바도르는 합계출산율 및 청소년 출산율 감소, 숙련된 출산도우미 및 1인당 GDP 증가, 여성의 역량강화 등으로 인해 모성사망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율 감소를 목표로 한 보건정책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임신여성 보호시설(maternity waiting homes)을 정비한 것이 효과적인 모성사망률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혔다. 출산을 앞둔 임신여성에게 안전한 출산 환경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여전히 높은 | | | | | | | | |

| | | | | | | | | |
|---|---|------------------------|------|---|--------|------|------------------------------------|--|
| 비율을 차지하고 청소년이 모성사망자수에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청소년 출산을 감소를 목표로 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 논문은 제안한다. | | | | | | | | |
|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 배분 특징 분석 | 연구재단 등재지 (KCI) | 국제개발협력연구 / 국제개발협력학회 | 2021 | 9 | 공동(2인) | 교신저자 | 10.32580/i dcr.2021.1 3.3.23 | |
| 4 | 본 논문은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가 어떤 요소의 영향을 받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의 다자원조 전략이 실제 원조의 배분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정치적 안정성, 다자 네트워크, 재난 피해자수와 같이 다자성 양자원조 배분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기초로 Tobit 모형을 통해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 배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양자원조 체계 내에서 순수 양자원조 배분이 다자성 양자원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원조 배분 과정상의 동시성을 고려하여 3SLS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는 정치적 안정성이 낮은 국가, 다자 네트워크가 형성된 국가, 재난 피해자 수가 많은 국가, 또한 순수 양자원조가 실시되기 어려운 국가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특징들은 다자성 양자원조 정책이 체계화됨에 따라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으며, OECD DAC 주요 공여국들도 한국과 유사한 배분 특징을 보이되, 순수 양자원조와 다자성 양자원조간의 관계는 공여국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조배분에 있어 순수 양자원조와 다자성 양자원조는 각각의 특징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에, 본 논문은 양자원조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실익이 있다는 점과 적절한 개발 원조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 | | | | | |

(3) 김태균 교수: 학술논문 1건, 저서 1건

| 번호 | 논문제목 | 유형 | 게재정보 | | | 단독/공동 | 본인참여 형태 | DOI | URL |
|----|---|----------------------|---|--------|-------|--------|---------------|--------------------------------|-----|
| | | | 게재학술지명/ 발행기관 | 년 | 월 | | | | |
| 1 | The Embedded Conundrum of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A Prologue to Shifting Frontiers from Collaboration to Contention | 국제 저명 (SCOPUS) |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2022 | 6 | 공동(2인) | 주저자 | 10.18588/ 202205.00 a301 | |
| | 본 연구는 유엔 개발 체계 안팎의 협력(collaboration)에서 갈등(contention)으로 변해가는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SSTC)의 내재된 난제를 심도있게 다룬다. 본 논문은 국제저명 SCOPUS 학술지인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특별이슈의 Introduction 논문으로 갈등-협력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적 틀을 소개하며 글로벌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 아울러 남반구 협력국가 사이 역사적인 관계의 변화에 따른 SSTC 양상의 변화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 지역적 협력, 중견국 관점, 유엔 개발 체제 등 역사적 전환점에 놓인 다양한 수준의 분석을 제시한다. | | | | | | | | |
| | 저서제목 | 단독/공동 | 외국어/ 한국어 | 게재정보 | | | ISBN | | |
| | | | | 출판사명 | 년 | 월 | | | |
| 1 |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 공저(16인) 챕터(단독) | 한국어 | 21세기북스 | 2021년 | 11월 | 9788950998226 | | |
| | 본 저서는 분단 극복은 평화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일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어떠한 분단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가정 하에 ‘어떤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평화와 통일의 정체성을 분명히 짚으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4가지 차원(안보, 남북협력, 외교, 인권)에서 엄중하게 논의한다. 이 중 저자는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북한의 발전 전략과 한반도 평화” 챕터를 집필했다. | | | | | | | | |

(4) 박지환 교수: 학술논문 1건, 저서 3건

| 번호 | 논문제목 | 유형 | 게재정보 | | | 단독/공동 | 본인참여 형태 | DOI | URL |
|----|--------------------|------|-----------------|------|----|--------|------------|------------|-----|
| | | | 게재학술지명/ 발행기관 | 년 | 월 | | | | |
| 1 | 2000년대 일본 국립대학 통합의 | 연구재단 | 국제-지역연구 | 2021 | 12 | 공동(2인) | 교신저자 | 10.56115/R | |

| 배경과 의미 | 등재지 (KCI) | | | | | | IAS.2021.1 2.30.4.111 |
|---|--------------------------|-------------------|------|--------------|-------|------|--------------------------|
| <p>이 논문은 전후(戰後)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일본의 국립대학 체제가 2000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고찰했다. 국립대학은 전체 대학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대학원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는 큰 몫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고등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학령기 인구감소, 행정개혁의 압력, 책무성 논리의 확산 속에, 2004년 국립대학이 일제히 법인화됐고, 이때 29개 국립대학의 통합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것은 문부과학성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고, 문부과학성이 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인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은 국립대학 구조재편을 교육과 연구의 관점이 아니라 행정개혁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국립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탓이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경쟁을 부추기는 식의 구조재편으로는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없으며,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p> | | | | | | | |
| 저서제목 | 단독/공동 | 외국어/ 한국어 | 게재정보 | | | ISBN | |
| | | | 출판사명 | 년 | 월 | | |
| 1 | 일본 교육제도의 구축과 재편 그리고 교육열망 | 공저(2인) 챕터(단독) | 한국어 | 신아출판사 | 2022년 | 6월 | 979-11-92557-10-6 |
| <p>본 저서는 일본 근대교육제도의 형성과 재편과정을 고찰하는 한편, 중등교육제도가 불평등의 재생산에 관여하는 바를 염두에 두면서 교육열망의 형성과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인이 집필한 챕터(2장~5장)는 일본의 중등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를 고려하며, 중학교에서의 교육방식이 학생의 정체성과 교육열망에 미치는 차등적 효과를 민족지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이로써 학교라는 장치가 사회적 위치감각이 감정적으로 형성되는 데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p> | | | | | | | |
| 2 | 이농의 시대, 편지, 고향과 도시를 잇다 | 공동(10인) 챕터(단독) | 한국어 | 전북대출판문 화원 | 2022년 | 6월 | 979-11-6372-146-8 |
| <p>본 저서는 『어찌 서서 회답을 기다리지 않겠는가-이강운 일가친척 편지모음(1950~1970년대)』에 수록된 이강운 가족의 편지를 분석한 책이다. 1950년대부터 전북 임실군 삼계면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이강운이 가족, 친척, 친구와 주고 받은 편지를 꼼꼼히 읽고 이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읽어낸 저작이다. 이 중 저자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는 챕터를 집필했다. 이 챕터에서는 이강운이 현재의 익산시로 유학 간 장남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1960~70년대 당시 농촌에 사는 부모가 학교 교육에 대해 가지는 관심을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어머니가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강운의 편지에서는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이로써, 당시 교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p> | | | | | | | |
| 3 | 어찌 서서 회답을 기다리지 않겠는가 | 공동(9인) | 한국어 | 전북대출판문 화원 | 2022년 | 4월 | 979-11-6372-145-1 |
| <p>1950~1970년대 이강운이 가족, 일가친척,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펴낸 저서이다.</p> | | | | | | | |

(5) 송지연 교수: 학술논문 1건

| 번호 | 논문제목 | 유형 | 게재정보 | | | 단독/공동 | 본인참여 형태 | DOI | URL |
|---|---------------------------------------|----------------------|--------------------------------|------|---|-------|------------|------------------------------------|-----|
| | | | 게재학술지명/ 발행기관 | 년 | 월 | | | | |
| 1 |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아베 정부의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 | 연구재단 등재지 (KCI) | 한국과 국제정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2022 | 6 | 단독 | 주저자 | 10.17331/ kwp.2022. 38.2.004 | |
| <p>본 연구는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을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 중심으로 분석한다. 아베 정부는 인구변화 시대에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정책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을 개혁하여 사회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을 연계한 전략은 아베 정부 시기에 강화된 총리와 관저 주도의</p> | | | | | | | | | |

중앙집중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서 추진되었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경험은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인구문제와 인적자원 활용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6) 신성호 교수: 학술논문 1건, 저서 2건, 기타논문 1건

| 번호 | 논문제목 | 유형 | 게재정보 | | | 단독/공동 | 본인참여 형태 | DOI | URL |
|--|--|----------------------|--|-----------------|------|-------|-------------------|----------------------------|---|
| | | | 게재학술지명/출판사명 | 년 | 월 | | | | |
| 1 | A Beginning of New Global Partnership? The ROK-US Relations under Biden and Moon | 연구재단 등재지 (KCI) |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2022 | 7 | 단독 | 주저자 | 10.23071/jias.2022.29.1.79 | |
| 본 논문은 2021년 새로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하는 한미관계와 동맹에 대해 분석하였다. 새정부 출범 이후 두 국가는 단순히 한반도와 군사문제를 넘어 인도태평양 및 글로벌 지역에서 개발, 보건, 기술, 기후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 | | | | | | |
| 2 | US-China Mutual Vulnerability: A South Korean Perspective | 기타 | Issues & Insights / Pacific Forum | 2022 | 5 | 단독 | 주저자 | | https://pacforum.org/publication/issues-insights-vol-22-sr2-us-china-mutual-vulnerability-perspectives-on-the-debate |
| 본 연구시리즈는 미중 전략적 핵 관계에 있어 상호취약성 문제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 질문은 미국이 중국과의 상호취약성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 여부이며, 인정한다면 어떻게 어떠한 조건 속에서 해야 할 것인지 분석한다. 이에 대해 단순한 답변이 아닌 다양한 옵션에 따른 이익, 비용,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는 본 연구시리즈에서 한국의 관점을 다룬 챕터를 집필하였다. | | | | | | | | | |
| 저서제목 | | 단독/공동 | 외국어/ 한국어 | 게재정보 | | | ISBN | | |
| | | | | 출판사명 | 년 | 월 | | | |
| 1 | 한반도 안보이론과 실제 | 공동(6인) | 한국어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2022 | 4 | - | | |
| 본 저서는 북핵, 사드, 한미동맹, 전작권 환수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 주변정세 속에 한반도의 주요한 안보 현안을 국제정치 안보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본인은 장기적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함의 도출을 목표로 전체 책을 기획한 편저자이며, 그중 사드로 붉어진 한중관계와 미사일 방어 문제를 분석한 챕터를 단독으로 연구하여 저술하였다. | | | | | | | | | |
| 2 | 바이든 정부하의 한미관계 | 공동(19인) | 일본어 | 동경대학교 출판부 | 2022 | 4 | 978-4-13-033303-0 | | |
| 2021년 바이든 신정부의 등장으로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 및 각 국제정치 현안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와 이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는 특별 연구 학술지(사하시 료, 스즈키 카즈토 편저 『바이든 정부의 세계관과 외교』) 각 주제별 동경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기획한 프로젝트에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초빙되어 한미관계를 주제로 저술하였다. 동경대 출판부에서 일본어로 출간하여 일본내의 정부와 학계 그리고 일반에 파급력이 매우 큰 중요한 연구이다. | | | | | | | | | |

(7) 안덕근 교수: 학술논문 2건

| 번호 | 논문제목 | 유형 | 게재정보 | | | 단독/공동 | 본인참여 형태 | DOI | URL |
|----|--|----------------|--|------|----|--------|------------|-----------------------------|-----|
| | | | 게재학술지명/출판사명 | 년 | 월 | | | | |
| 1 | US-China Trade War and Its Implications on the Global Economy | 국제 저명 (SCOPUS) | Journal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de /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 2021 | 12 | 공동(2인) | 주저자 / 교신저자 | 10.24006/jilt.2021.19.4.181 | |
| | 2020년 세계무역기구(WTO)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와 그에 따른 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출 및 투자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하다. WTO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가치 사슬은 다양화되었으며 역설적이게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함에 따라 제3국과의 공급망 강화가 관찰되었다. 본 논문은 산업경쟁력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도입을 시도하며, 미중 무역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 | | | | | | | |
| 2 | China - Domestic Support for Agricultural Producers: One Policy, Multiple Parameters Imply Modest Discipline | 국제 저명 (SSCI) | World Trade Review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21 | 10 | 공동(2인) | 주저자 / 교신저자 | 10.1017/S1474745621000100 | |
| | 본 연구는 중국이 2012-2015년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AoA)에 따른 국내보조 규모를 몇몇 곡물에 있어 위반했다는 미국의 주장과 관련한 분쟁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다. 패널은 우선 중국의 시장가격을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AoA 규정에 따른 1986-1988년이 아닌 1996-1998년이며, 관리가격에 소량 구매된 것이 아닌 농산물 지원 프로그램 시행 지역에서의 생산만을 수매 가능 생산량(eligible production)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패널은 중국이 4년간 매년 밀, 인디카 쌀, 일본쌀에 대한 보조 규모를 초과한 것을 밝혔다. 정부가 규제 프레임 내에서 지원가격에 최대 구매량을 설정함으로써 수매 가능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려있었다. 중국은 이 옵션을 활용해 2020년 프로그램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사항과 판정을 이행했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가격차이 측정 및 수매 가능 생산량 구분에 있어 구식의 고정된 외부 준거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AoA에 따른 경제적 지원 측정 계산법과 거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측정 문제는 농업부문 지원 수준에 관한 WTO 회원국의 불협화음을 가중시킨다. | | | | | | | | |

(8) 안재빈 교수: 학술논문 3건

| 번호 | 논문제목 | 유형 | 게재정보 | | | 단독/공동 | 본인참여 형태 | DOI | URL |
|----|--|--------------|--|------|---|--------|------------|-------------------------------|-----|
| | | | 게재학술지명/발행기관 | 년 | 월 | | | | |
| 1 | Identifying FDI types: Watch What They Do, Not What They Say or Look Like | 국제 저명 (SSCI) | Economics Letters / Elsevier B.V. | 2022 | 4 | 공동(2인) | 주저자 / 교신저자 | 10.1016/j.econlet.2022.110346 | |
| | 논문은 FDI 유형을 구분하는 3개의 전략을 비교하며, 서로 다른 분류 전략 간에 상관관계는 매우 낮다는 것을 증명한다. 연구 결과는 근접성-집중도 상충관계 가설에 따라 판매 정보에 기반한 전략을 뒷받침한다. | | | | | | | | |
| 2 | For Whom the Levy Tolls: The Case of a Macroprudential Stability Levy in South Korea | 국제 저명 (SSCI) | IMF Economic Review / Palgrave Macmillan | 2022 | 4 | 공동(3인) | 주저자 | 10.1057/s41308-022-00163-x | |
| | 본 연구는 자본흐름관리방안(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 CFMs)이 경제의 대외적인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탐구한다. 논문은 외화부채 감소 및 부채만기구조 연장을 목적으로 한국에 도입된 외화건전성 부담금의 효과성을 연구한다. 은행 수준의 구체적인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부담금은 비핵심부채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제한적인 효과가 있었던 반면 만기구조는 외국계은행의 본지점 계좌로 인해 효과적으로 연 | | | | | | | | |

| | | | | | | | | | |
|--|--|----------------------|---|------|----|----|-----|--|---|
| 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거래 수준의 대출비율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는 규제차익으로 인해 외국계은행 지점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외국계은행은 부담금을 차주에게 넘길 수 밖에 없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었다. | | | | | | | | | |
| 3 | Perspectives on Macroeconomic Policy Issues in the Post-Covid-19 Era | 연구재단 등재지 (KCI) |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 한국사회과학협회의 | 2021 | 11 | 단독 | 주저자 | | http://www.kossrec.org/?page_id=482&ID=1948&type=view |
|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대부분의 경제대국은 초저이자율 환경으로 인해 대규모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속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이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세계적인 금리 변동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 관리에 있어 주요 경제대국이 부채수준을 얼마나 확대했는지 살펴보고 최근 크게 증가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율의 의의와 예상가능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를 논의한다. | | | | | | | | | |

(9) 오윤아 교수: 학술논문 2건

| 번호 | 논문제목 | 유형 | 게재정보 | | | 단독/공동 | 본인참여 형태 | DOI | URL |
|--|--|----------------------|--|------|----|-------|---------|--------------------------------|-----|
| | | | 게재학술지명/ 발행기관 | 년 | 월 | | | | |
| 1 | The Vulnerability Effect that Wasn't: Trade Dependence and Entry Bans on China at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Pandemic | 국제 저명 (SSCI) | Asian Surv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2022 | 7 | 단독 | 주저자 | 10.1525/as.2022.1711062 | |
| 본 연구는 코로나 초기 중국발 여행자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국금지 조치가 각 나라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와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적 취약성에 근거한 주장은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무역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중국의 제재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중국인 입국금지에 관한 1차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이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사례를 통해 정치 등 국가별 구체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 | | | | | | | | |
| 2 | Southeast Asian Public Perceptions of China: Clusters and Gaps | 연구재단 등재지 (KCI)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 한국국제정치학회 | 2021 | 12 | 단독 | 주저자 | 10.14731/kjis.2021.12.19.3.377 | |
| 본 연구는 2010년대 중반 동남아 대중들의 중국에 대한 여론을 국가별 Asian Barometer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국가 수준에서 중국은 미국과 비교하여 영향력과 긍정적 인식에 있어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또한 중국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지역적, 국가적 평가에 있어 어떠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 두 가지 경험적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별 대중들의 인식이 흔히 알려진 정부 수준의 대중국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중국을 미국보다 더 영향력 있고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국가로 꾸준히 인식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중국이 더 영향력이 있으나 미국만큼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국가로 인식하는 국가들이 있는 등 인식 차이에 있어 패턴이 드러났다. 아울러 모든 동남아 응답자들은 중국이 해당 지역에 가져다주는 이익보다 자국에 주는 이익이 클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관성 있는 지역적 대응에 필요한 잠재적인 집단행동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암시한다. 본 연구 결과는 미중 전략경쟁에 있어 동남아의 외교적 선택에 관한 연구에 기여한다. | | | | | | | | | |

(10) 은기수 교수: 학술논문 1건

| 번호 | 논문제목 | 유형 | 게재정보 | | | 단독/공동 | 본인참여 형태 | DOI | URL |
|----|---|----------------------|---|------|----|--------|------------|----------------------------|-----|
| | | | 게재학술지명/ 발행기관 | 년 | 월 | | | | |
| 1 | Family Dynamics of Child Care in Korea: Strategies to Relieving the Gap Between Mother's Actual and Preferred Hours of Care | 국제 저명 (SCOPUS) |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 Springer Netherlands | 2021 | 12 | 공동(2인) | 공동저자 | 10.1007/s12062-020-09321-3 | |
| | <p>본 연구는 어머니의 실제 돌봄시간과 선호하는 돌봄시간의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한국의 자녀돌봄을 위한 가정 경영의 다이내믹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영유아 자녀를 실제로 돌보는 시간과 선호하는 돌봄노동 시간 간 명백한 간격이 있을 것이며, 이 간격이 어머니의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정서적 좌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 간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간과 물질 등의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2018년 아동보육실태조사 (n=484) 데이터 중 0세에서 9세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주양육자인 인구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어머니는 자신의 선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양육에 할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직장 유무에 큰 상관없이 선호 돌봄시간과 실제 돌봄시간 사이 간격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부모의 시간과 자원, 가구소득, 어머니의 소득 기여도, 소득관리에 있어서 어머니의 자율성 등이 이 간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 | | | | | | |

(11) 이수형 교수: 학술논문 7건

| 번호 | 논문제목 | 유형 | 게재정보 | | | 단독/공동 | 본인참여 형태 | DOI | URL |
|----|--|----------------------|---|------|---|--------|------------|-------------------------------|-----|
| | | | 게재학술지명/ 발행기관 | 년 | 월 | | | | |
| 1 | The effects of indoor temperature and humidity on local transmission of COVID-19 and how it relates to global trends | 국제 저명 (SSCI) | 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ONE | 2022 | 8 | 공동(7인) | 교신저자 | 10.1371/journal.pone.0271760 | |
| | <p>본 연구는 전 세계 232개국의 빅데이터 분석, 유체역학 실험 및 시뮬레이션 등 공학과 경제학을 접목한 융합 연구를 통해 실내 온도와 습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실내 온도는 코로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 비말 확산거리를 감소시켜 코로나19 전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적당수준의 실내습도를 유지함으로써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방역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p> | | | | | | | | |
| 2 |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Housing Prices: Evidence from South Korea | 국제 저명 (SSCI) |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 한국국제경제학회 | 2022 | 6 | 공동(2인) | 교신저자 | 10.1080/10168737.2022.2055108 | |
| | <p>본 논문은 중국인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인의 FDI가 2011-2016년 사이에 한국 아파트 가격 상승의 15.3%에 기여했다는 결과를 발견했다.</p> | | | | | | | | |
| 3 | 외국인 부동산 취득: 동향 및 함의 | 연구재단 등재지 (KCI) | 법경제학연구 / 한국법경제학회 | 2022 | 4 | 공동(3인) | 교신저자 | 10.46758/kje.2022.04.19.1.177 | |
| | <p>본 연구는 법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보유한 행정정보를 결합하여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과 지표의 적절성을 점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분석 결과, 시기별·국적별로 투자 패턴과 동향이 이질적임을 확인하였으며, 각 지표의 국가별 설명력과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났으므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급증 현상을 파악 및 규제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p> | | | | | | | | |

| | | | | | | | | | |
|---|---|----------------------|---|------|----|--------|------|-------------------------------|--|
| 4 | Consumption Response to Seoul's COVID-19 Shopping Coupons: Evidence from Consumer Data | 국제 저명 (SSCI) | Korean Economic Review / 한국경제학회 | 2022 | 4 | 공동(5인) | 교신저자 | 10.22841/kerdoi.2022.38.2.001 | |
| | 본 연구는 신한카드 및 재난긴급생활비 지출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이 수혜자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 긴급생활비를 받은 이들이 받지 않은 이들에 비해 소비가 6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출 비중은 마트와 전통시장이 46%로 가장 많았고, 외식(15%), 생활용품(11%), 의약품(8%) 등의 순이었다. 절반 이상을 식생활 등에 사용해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이들의 생활에 도움이 됐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의 소비 진작 효과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 | | | | | | | |
| 5 | Gender norm conflict and marital outcomes | 국제 저명 (SSCI) | Journal of Demographic Economic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21 | 12 | 공동(3인) | 공저자 | 10.1017/dem.2021.7 | |
| | ‘비슷한 성 규범을 가진 파트너를 만날 확률이 적은 사람은 결혼할 확률이 낮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성 규범을 둘러싼 남녀 갈등이 결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성 규범에 대한 남녀간의 의견이 서로 이질적일수록 결혼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은 높아진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 | | | | | | | |
| 6 | Recent Trends in Public and Private Debts: Cross Country Comparison | 연구재단 등재지 (KCI) |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 2021 | 12 | 공동(2인) | 교신저자 | | |
| | 본 연구는 2008년 대공황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가계·기업의 부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후 해당 부채가 재조정된 정도를 분석한다. 부채 진화 패턴이 유사한 국가들을 8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그룹 내 각국은 유사한 채무 역학 패턴을 보이지만 그 패턴은 그룹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 | | | | | |
| 7 | 공공주택 공급지구 선정이 아파트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매커니즘 고찰: 보금자리주택지구 사례 분석 | 연구재단 등재지 (KCI) | 경제학연구 / 한국경제학회 | 2021 | 12 | 공동(3인) | 교신저자 | 10.22841/kjes.2021.6.9.4.004 | |
|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금자리 지구 선정은 주변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을 약 5.7%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 | |

(12) 한정훈 교수: 학술논문 4건, 저서 1건

| 번호 | 논문제목 | 유형 | 계재정보 | | | 단독/공동 | 본인참여 형태 | DOI | URL |
|----|---|----------------------|------------------------|------|---|-------|------------|--------------------------------|-----|
| | | | 계재학술지명/출판사명 | 년 | 월 | | | | |
| 1 | 한국 청년층의 보수화? 2012년부터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이념적, 정책적 태도와 투표행태를 중심으로 | 연구재단 등재지 (KCI) | 국제·지역연구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2022 | 6 | 단독 | 주저자 | 10.56115/RIAS.2022.06.31.2.285 | |
| | 본 연구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한국 청년층의 투표행태를 분석한 연구이다. 생애주기 이론에 배치되는 청년층의 보수화에 대한 논의는 기존 연구에서 엄밀히 검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대와 시점의 영향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난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세 차례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이념성향과 투표행태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범주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들의 보수성향과 연령, 세대, 시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 차례 대선과정에서 유사한 이념성향과 투표행태를 통해 청년층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집단은 2022년 현재 34세 이하인 1988년 이후 출생자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들 청년층의 내적이질성으로 인해 청년층 전체의 보수화를 주장하는 것의 타당성은 낮았다. 오히려 | | | | | | | | |

| | | | | | | | | |
|---|---|----------------|------------------|-------|------|--------|---------------|-----------------------------|
| <p>려 청년층의 보수화는 대선 시점의 영향력에 증속되었으며, 1988년부터 1992년 출생 세대만이 유일하게 일관된 보수성향을 강화해온 특징을 보여주었다.</p> | | | | | | | | |
| 2 | Understanding Political Polarization Based on User Activity: A Case Study in Korean Political YouTube Channels | 국제 저명 (SSCI) | SAGE Open | 2022 | 4 | 공동(4인) | 공동저자 | 10.1177/21582440221094587 |
| | <p>본 연구는 사용자-활동기반 모델을 활용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측정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연구를 위해 77개 한국 유튜브 채널 상의 영상 37,000개를 기반으로 6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남긴 약 1,100만 건의 댓글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0개 유튜브 채널에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용자 활동을 기반으로 소셜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하는 본 연구방법은 양극화 분석에 기초를 마련하며 이는 다른 정치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p> | | | | | | | |
| 3 |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논의와 유럽의회 내 정치적 갈등 | 연구재단 등재지 (KCI) | 유럽연구 / 한국유럽학회 | 2021 | 12 | 단독 | 주저자 | 10.17052/jces.2021.39.4.347 |
| | <p>본 연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두고 유럽연합이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안건을 두고 이루어진 유럽의회 의원들의 논의 및 표결에 초점을 맞춰 회원국 수준의 갈등과 초국가적 수준의 갈등 구조 및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유럽의회가 자체적인 결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일련의 표결기록을 분석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매우 높은 합의 수준, 초국가적 수준의 좌/우 이념진영 간 대립, 혁신유럽연합(Renew)이 중추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과 한국 사회가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함의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p> | | | | | | | |
| 4 | 유튜브 정치채널 시청의 결정요인과 표본선택편향 | 연구재단 등재지 (KCI) | 한국정치학회보 / 한국정치학회 | 2021 | 12 | 단독 | 주저자 | 10.18854/kpsr.2021.55.5.004 |
| | <p>본 연구는 한국 사회 내 유튜브 정치채널 시청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유튜브 정치채널 시청여부의 결정은 표본선택편향의 문제를 유의하면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이는 소셜미디어 이용행태에 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유튜브를 통한 정치정보 획득에 대한 연구가 빈약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선택프로빗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유튜브 이용 및 유튜브 정치채널 시청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p> | | | | | | | |
| 저서제목 | | 단독/공동 | 외국어/한국어 | 게재정보 | | | ISBN | |
| | | | | 출판사명 | 년 | 월 | | |
| 1 | 거대전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변동 | 공동(14인) 챗터(단독) | 한국어 | 경인문화사 | 2021 | 12 | 9791197585814 | |
| | <p>본 저서는 코로나 전염병 유행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과 그로부터 예상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국 사회 변동에 관해 다양한 학제에서 예측을 시도한다. 저자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정당정치의 변화”라는 제목의 챗터를 저술하였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 정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p> | | | | | | | |

② 이공계열 참여교수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 |
|-------|
| 해당 없음 |
|-------|

③ 연구의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년: 2021.9.1.-2022.8.31.)

| 연 번 |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
|--------|--|
| 1 | <p>○ 김종섭 참여교수 (주저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정보: Kim, Chong-Sup and Yoo Jimin (2022) “Do Remittances Reduce Poverty and Inequality of Sending Regions? - A Case Study of Mexico.” <i>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i> 41(2): 1-22. DOI: 10.17855/jlas.2022.5.41.2.1 - 구분: 연구재단등재지(KCI), 논문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저자: 공동(2인) <p>1) 주요 연구내용 및 우수성: 본 연구는 멕시코 통계청이 제공하는 멕시코 주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 송금이 빈곤과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멕시코는 이주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규모가 매우 크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멕시코 32개 주에 대한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 송금이 이주민 송출국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주별 불평등 완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송금 유입 규모가 가장 큰 10개 주 중 8개 주에서 국가평균보다 높은 빈곤율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해외근로자의 이주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의 행위가 송출국과 유입국의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라 거시적인 국가 단위의 불평등과 빈곤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은 국제개발과 지역학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p> <p>2) 연구역량 향상계획 대비 실적: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빈번한 사례이자 개발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국경을 초월한 이주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해외 송금과 유입을 연구하고 해외 송금이라는 자원이 이주민 송출국의 빈곤과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해당 주제는 본 교육연구단이 설정한 개발-지역 매트리스 상에서 경제·사회 정책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중남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규모의 해외 송금이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멕시코 이주민들이 대부분 교육 수준이 낮은 저소득가구 출신이라는 특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해당 지역을 벗어나 해외로 이주하여 큰 규모의 해외 송금을 보내는 근로자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최빈층이라는 점을 시사한다.</p> <p>3) 향후 추진계획: 본 연구는 연구재단등재지(KCI)인 중남미연구에 발표되었다. 다학제적 전문인력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축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해나가기 위해 향후 참여학생들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라틴아메리카학회를 비롯하여 국제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p> |
| 2 | <p>○ 참여교수 김태균 (주저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정보: Kim, Taekyoon and Shin-wha Lee (2022). “The Embedded Conundrum of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A Prologue to Shifting Frontiers from Collaboration to Contention.” <i>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i> 10(1): 1-13. DOI : 10.18588/202205.00a301 - 구분: 국제저명(SCOPUS), 논문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저자: 공동(2인) <p>1) 주요 연구 내용 및 우수성 본 연구는 유엔 개발 체계 안팎의 협력(collaboration)에서 갈등(contention)으로 변해가는 남</p> |

남협력 및 삼각협력(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SSTC)의 내재된 난제를 심도있게 다룬다. 본 논문은 국제저명 SCOPUS 학술지인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특별이슈의 Introduction 논문으로 갈등-협력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적 틀을 소개하며 글로벌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 아울러 남반구 협력국가 사이 역사적인 관계의 변화에 따른 SSTC 양상의 변화를 분석한다. 해당 특별 이슈에 실린 6개 논문은 본 논문이 설정하는 프레임워크에 따라 서로 다른 SSTC의 역설적인 구조를 분석한다.

2) 연구역량 향상계획 대비 실적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 지역적 협력, 중견국 관점, 유엔 개발 체제 등 역사적 전환점에 놓인 다양한 수준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로써 본 교육연구단의 개발-지역 매트릭스 상에서 국제개발과 글로벌 남반구 지역을 아우르는 주제이다. 특히 글로벌 남반구의 부상은 최근 다변화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주목할만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이며, OECD DAC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의 위치를 유지해 온 한국의 국제개발에 있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남반구에 속한 국가들이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신흥공여국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남반구의 원조수혜국 파트너들과는 연대성에 기반한 협력 양상이 약해지고 있는 점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

3) 향후 추진계획

본 연구는 국제저명 학자들과의 공동연구의 결과물인 6개 논문을 엮은 중요한 작업의 Introduction 논문에 해당한다. 향후 국제개발과 지역학의 다학제적 지식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제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학문후속세대 양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참여교수 오윤아 교수 (주저자)

- 논문정보: Oh, Yoon Ah (2022). "The Vulnerability Effect that Wasn't: Trade Dependence and Entry Bans on China at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Pandemic." *Asian Survey* 62(5): 721-750.
- 구분: 국제저명(SSCI), 논문발행기관: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저자: 단독

1) 주요 연구 내용 및 우수성

본 연구는 코로나 초기 중국발 여행자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국금지 조치가 각 나라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와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적 취약성에 근거한 주장은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무역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중국의 제재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중국인 입국금지에 관한 1차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이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사례를 통해 정치 등 국가별 구체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한다.

2) 연구역량 향상계획 대비 실적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양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진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실증적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 해당 주제는 공공보건, 국제협력, 국제개발 등의 분야가 밀접하게 연관되

3

어 있음을 나타내며 융복합적 접근을 추구하는 본 교육연구단의 계획과 일치한다.

3) 향후 추진계획

본 연구는 국제저명 SSCI 저널인 Asian Survey에 발표되었으며, 향후 참여교수의 전문성을 살려 동남아시아의 국제관계, ASEAN 지역적 통합에 관한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1) 국제지역·개발의 지식생태계 및 분야 활성화

- 본 교육연구단의 주요 목적은 국제지역·개발분야의 지식생태계 활성화이며, 이는 참여연구진의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이행되고 있음. 특히, 본 교육연구단이 설정한 4대 주제인 지속가능발전, 민주적 거버넌스, 경제·사회정책, 국제협력 분야 이론과 실무 및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기타지역 등 지역 전문성 간 크로스오버를 통해 다학제적 학문후속세대와 전문 혁신인력 양성 비전을 달성해나가고 있음.
- 다학제적 국제개발과 총체적 지역학 교육의 융복합적 접근을 위해 참여교수는 대학원 전공 설계 마련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 연구를 교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Inno-Edu 2031: 서울대 창의교육프로젝트’를 통해 국제대학원의 전공 간 장벽을 없앴으로써 대학원생들이 전공을 설계하고 학칙 상 전공을 교과목상 전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음. 또한 보건대학원, 환경대학원 분야를 국제대학원의 분야와 결합하여 다양한 공동교과목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이는 인문학적 통찰과 사회과학적 지식의 융합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며 참여교수는 선구자적 자세로 연구에 임하고 있음. (박태균 교수)
- 2022년 3월 본 교육연구단이 목표했던 국제개발 전공신설을 완료하였음. 전공 출범을 기념하여 2022년 3월 25일 ‘국제개발의 글로벌 상생발전 기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참여교수들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 전공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함.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환경대학원, 행정대학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농업생명과학대학 등 국제개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서울대학교 타 학과 교수진들이 참여하여 국제개발 브랜드를 탄생시키기 위한 비전 형성과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김태균, 안재빈, 오윤아, 은기수 교수)
- 최근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재편되어가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이해하는 것은 글로벌 남반구의 부상 등 국제지역·개발 분야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참여교수는 미-중 인도-태평양 지역질서 구축 경쟁과 한반도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이 경제, 무역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것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 이로써 한국이 추진하는 남북교류 및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최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6건의 학술논문 발표 및 논문투고를 할 예정임. 아울러 재편성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질서 및 다자무역 구도 속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연구결과물을 통하여 지경학과 역사, 안보,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복합적 접근법을 학계와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고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확대할 계획임. 또한 연구 진행성과에 따라, 기존 연구(지정학, 경제, 무역구조, 지경학, 안보, 대전략에 관한 역사적, 비교사적 연구)와의 유기적 연결을 시도할 예정임. 본 연구는 신진연구자들을 연구진에 포함시켜 학술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고 차세대 학문 연구 성과를 장려함.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인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의 건전성과 발전잠재력을 제고함. (신성호, 송지연, 오윤아 교수)
- 현장중심 연구 확대 및 이론과 실무 융합 실천을 위해 참여교수는 데이터 분석 대회에 참가함.

2021년 11월 ‘코로나 시대의 교육환경 및 불평등’ 을 주제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커뮤니티이자 경진대회 플랫폼인 구글의 캐글(Kaggle) 데이터 분석 대회에서 공동연구의 성과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함. 미국의 AI 교육서비스 이용 데이터와 경제학 데이터를 접목해 코로나 19 상황에서 디지털 학습 이용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함. 연구 결과, 온라인 학습 사용 비율은 극빈층과 최상위층 학군 모두에서 증가한 반면, 취약계층이 아닌 중산층 일부와 하위층, 즉 차상위계층에서는 유의미한 증가 수치가 발견되지 않았음. 이를 바탕으로 차상위계층이 새로운 교육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확인하였으며, 교육 사각지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분야 서비스의 수혜 폭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함. (이수형 교수)

2) 사회 문제 및 한국기업의 문제 해결

-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생과 일반인 대상으로 국제개발에 대한 교육, 세계시민교육과 국제지역에 대한 교육 행사 개최를 주요 계획 중 하나로 이행하고 있음. 참여교수는 2022년 3월 13일 방영된 KNN ‘최강1교시’ 에 출연하여 “한미 동맹의 오해와 진실” 을 주제로 박정희 시기의 경제성장, 미국의 대한정책 등에 대해 강연함. 또한,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60회 가량 국방TV ‘역전다방(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에 출연하여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의 아시아 정책(대동아사회건설)에서 나타나는 허구성, 전후 재건정책 등 전쟁사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함. (박태균 교수)
- 참여교수는 국제개발협력 및 ODA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국국제협력단이 후원하는 2022년 광주국제개발협력센터 ODA 정규교육 과정에서 2022년 4월 27일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이슈” 를 주제로 특강을 함. (김태균 교수)
- 본 교육연구단은 국제지역·개발에 관심있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국기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한국중소기업들은 한국과 중미 6개국과의 FTA가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의 부족으로 중미 시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여교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한-중미 6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 시장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발표회를 진행하였음. 한-중미 FTA의 내용과 FTA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품목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여라고 할 수 있음. (김종섭 교수)
- 참여교수는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초대로 <기업시민리서치> 14호에 “기후변화 국가자발적기여(NDC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통합적 접근의 전략화” 를 주제로 글을 기고함. 기후변화대응정책은 기획단계에서 이행단계, 그리고 평가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섹터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전체적인 접근으로 전략화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NDCs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민사회와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 간에 포용적인 파트너십의 제도화를 권장함. (김태균 교수)
- 코로나 팬데믹은 전세계적으로 예기치 못한 전환을 일으키며 국내외 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 특히 세계 공공보건의 도전과제와 국제보건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계기가 됨. 참여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비교정치: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대응 경로” 주제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전지구적 공통의 도전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방식에 대해 연구 중에 있음.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다양성을 경기부양책과 노동시장 정책 및 서구 선진산업 국가를 중심으로 탐구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이 실업률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산업, 기업규모, 성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며, 서구 선진산업국가에 대한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사례연구로 확장하여 수행예정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정치경제에 대한 짧고 강

력한 충격(shock) 변수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분석하고 이러한 충격이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에 가져온 변화를 검토하는 본 작업은 향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큰 의의가 있음. (송지연 교수)

- 무역구제기관들간의 최대 글로벌 행사인 서울국제포럼을 대비하여 참여교수는 2021-2022 무역구제정책의 전망과 무역구제기관의 과제를 공공용역사업으로 수행함. 글로벌 무역구제기관들과의 협력에서 우리 무역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의제와 쟁점 분석 및 역량제고가 필요함.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무역구제정책의 전망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찰 및 분석 통해 향후 무역구제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주요 연구내용은 코로나 공존시대 세계무역구제정책의 전망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이며, 세부 주제로는 주요국들간의 무역구제조치 부과 현황 분석, 개도국 무역구제조치 활용 상황 분석 등 쟁점 파악 등이 있음. (안덕근 교수)

3) 한국 정부의 문제해결

- 본 교육연구단은 정부의뢰 정책연구뿐 아니라 학술적인 정책연구를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등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종합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구가 부재했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참여교수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동향 분석 과제를 수행함.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 부동산 직접투자(FDI) 동향을 비롯해 법원의 부동산등기 자료, 한국은행의 지역별 국제투자대조표 자료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 동향과 관련된 다섯 종류의 빅데이터를 종합하여 최근 12년간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동향을 분석함. 해당 연구는 정부가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정책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매일경제, 동아일보 등 다수 매체에 보도됨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1/12/31191/>). (이수형 교수)
- 참여교수는 정부와 민간 연구원 간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비효과를 분석함. 서울시의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정책이 소비 효과에 미친 영향을 빅데이터와 통계 기법을 이용해 측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는 약 30%에 불과한 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의 소비 진작 효과는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의 소비 진작 효과의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추후 정부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이수형 교수)
- 지역 균형개발 정책인 중앙정부 및 주요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정책이 가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참여교수는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이 개인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 통근, 건강 및 주거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함.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중 하나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조망함으로써 학문적·정책적 측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대덕연구단지, 정부과천·대전청사 준공과 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어 정책 입안 초기에 예상하였던 정도의 획기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러한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이 정책 효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체인 개인과 가계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발생한다는 판단 하에 연구에 착수함. 이는 향후 비수도권 개발과 연계된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지방분권화가 국제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만큼 정책의 사회경제적 인과효과에 대해 학문적 기여 및 정책 평가에 기여하는 바가 큼. (이수형 교수)
- 참여교수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됨. 자유, 인권, 법치,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통합위원회에서 경제·계층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 상생 환경과 경제 격차 개선 방안을 모색함. (이수형 교수)

- 최근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기후변화, 디지털 및 그린 전환,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양한 국가적 난제가 국정현안으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조율이 요구됨. 이를 위해 참여교수는 국정운영시스템 국외사례(미국, 영국, 프랑스)를 조사하는 공공용역 사업을 수행하며, 효과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국정운영시스템 방안을 연구함.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도 부처간 분절화는 끊임없이 지적되는 사안이며, 따라서 효과적인 국정운영시스템 혁신 방안 연구는 향후 국제개발에 있어서도 선진적인 정책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한정훈 교수)
-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의 수립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환경정책, 특히 탄소국경제도의 도입과 공조의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법률적·정책적 측면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참여교수는 공공용역 사업으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수립과정 및 시사점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의 수립과정, 유럽연합 회원국 간 갈등, 유럽연합 제 기구 내 갈등, 유럽연합이 WTO와 충돌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진행시키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법제에의 시사점 도출 및 법제적 전망을 제시함. (한정훈 교수)

4) 저개발국가 개발 분야 직접적 참여

- 본 교육연구단이 속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은 KOICA의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이론적 바탕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개도국 내 성인지적 제도 및 정책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개도국 공무원 출신 학생들은 17개월간의 연수기간을 마치면 석사학위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관련 부처 등 공공분야 전반에서 자국의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실행·평가하여 자국의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2020년 8월 20명의 1기 학생들이 입학하여 2022년 8월 졸업했으며, 2021년 8월 입학한 2기 20명의 학생들은 2023년 8월 졸업 예정임. 20명의 3기 학생들이 2022년 8월 입학하여 2024년 2월 졸업 예정임. 학생들에게는 젠더와 개발, 국제개발세미나 등 다양한 이론 및 실습 수업이 제공되고 있으며, 교과과정 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라운드테이블이 운영되고 있음.
 -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는 10명 이상의 교수가 이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거나 논문을 지도하고 있음. 4명 이상의 학생들이 프로그램 조교를 하면서 연수생들의 생활과 학업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 외 많은 학생들이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개도국의 양성평등 상황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 KOICA가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ODA의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ODA의 효과성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 참여교수는 네팔, 파키스탄 KOICA ODA 사업 포트폴리오 평가 용역을 수행함. 과거 KOICA의 네팔, 파키스탄에 대한 ODA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석함으로써 현상을 진단하고 개선 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참여교수는 이 사업을 수행하여 새로운 방법론도 개발하는 등 KOICA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었음. 또 여러 명의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이 이 분야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 (김종섭 교수)

3. 연구의 국제화 현황

① 참여교수의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1) 국내·국제학술회의 참여실적 (기간: 2021년 9월 ~ 2022년 8월)

(1) 김종섭 교수

- 국내 (공동)발표 1회

| 구분 | 학술회의명 | 장소 | 기간 | 주관/주최 | 역할 | 발표논문명 |
|----|---|-----|-------------|----------------|------------------------------------|---|
| 국내 | 2022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하계 정기학술대회 | 온라인 | 2022.06.11. | 한국라틴아메리 카학회 | 발표 (이수지 참여대학 원생과 공동발표) | Femal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Gender Sensitive Polic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Case of Latin American Countries |
| | 본 논문은 COVID-19로 인해 여성이 겪는 차별적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서 도입되는 정책을 집계한 자료를 활용해 해당 정책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함. 시의적절하고 완성도가 높아 발표 후 좋은 평가를 받았음. | | | | | |

- 국제학술회의: 발표 1회

| |
|---|
| ○ 국제학술회의명: LASA/Asia 2022 “Rethinking Trans-Pacific Ties: Asia and Latin America” |
| · 장소: 온라인 |
| · 기간: 2022년 2월 15일 ~ 2월 19일 (발표: 2월 18일) |
| · 주관/주최: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LASA), East Asian Network of Latin American Studies (EANLAS) |
| · 회의내용: 세계최대규모의 라틴아메리카 학회인 LASA와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하는 동아시아 네트워크인 EANLAS가 함께 최초로 개최한 LASA/Asia 학술교류 |
| · 패널명: Globalis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좌장) |
| · 발표논문명: Do Remittances Reduce the Inequality of Sending Regions? - A Case Study of Mexico |
| · 발표 논문의 우수성: 송금이 소득불평등에 주는 영향을 멕시코 통계청의 주별 자료를 받아 분석함. |

(2) 김태균 교수

- 국내 학술회의: 발표 9회, 토론 5회, 사회 4회

| 구분 | 학술회의명 | 장소 | 기간 | 주관/주최 | 역할 | 발표논문명 |
|----|--|-------------------|-------------|---|----|--|
| 국내 |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전환기 시대 한반도 통일비전과 남북관계” | 한국 서울 | 2022.08.31. | 통일부 | 발표 |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
| | 2022 국제이주와포용사회 센터 초청세미나 <포용사회와 변화> | 한국 서울 (온라인) | 2022.07.28. | 국제이주와 포용사회 센터 | 발표 |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실패와 아시아의 회복탄력성 전망: 지역 보건안보의 모색” |
| |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10 th Anniversary Virtual Conference “Peace Studies in Asia” | 온라인 | 2022.07.16.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토론 | Southeast Asia 세션 |
| | 2022 인도적 지원 정책포럼 “급변하는 인도적 위기와 | 한국 서울 | 2022.07.15. | 국제개발협력민간 협의회(KCOC) | 토론 | ‘인도적 지원 발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

| | | | | | |
|---|-------------------|---------------------------------|--|----|--|
| 앞으로의 협력 방안” | | | | | 세션 |
| 국회미래연구원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연합적 거버넌스의 탐색” | 한국 서울 (온라인) | 2022.07.07. - 2022.07.08. | 국회미래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발표 | “한반도 SDGs”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탐색: 이론과 회고, 쟁점’ 세션) |
| 2022 Annual Meeting of the Academic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 온라인 | 2022.06.23. - 2022.06.25. | 한국유엔체제학회 | 사회 | ‘Toward a Better Fit for the UN System in Handling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패널 |
| 제5회 열린 SDGs 포럼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의 완전한 이행과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재건” | 한국 서울 (온라인) | 2022.06.08. | 외교부, 한국시민사회SDGs 네트워크(SDGs 시민넷) | 발표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이행의 글로벌 경향성 분석” (‘유형 SDGs 이행 6년 성과와 과제’ 세션) |
| 제51회 개발협력포럼 “신흥공여국의 부상과 국제개발협력의 변화” | 한국 경기도 | 2022.05.12. | 한국국제협력단 | 발표 | “국제개발협력의 지형변화: 신흥공여국의 부상” |
| 제39회 글로벌 액셀런스 세미나 | 한국 서울 | 2022.04.29. |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 사회 | ‘미얀마 사태와 R2P의 재발견? 보호책임 (R2P)의 이론과 실행’ 주제 |
| 통일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반도 주변국 갈등과 새 정부의 대북정책” | 한국 서울 | 2022.04.07. | 통일연구원 | 발표 | “한반도 평화와 개발협력: 새 정부의 평화개발외교 제언” ([제2세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세션) |
| 국회미래포럼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 | 한국 서울 (온라인) | 2022.03.31. |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국제정치학회, 국회의통위 | 발표 | “개발도상국의 부상과 남북 세력전이” (‘미래질서 2040 전망: 미래 국제질서와 힘의 이동’ 세션) |
| 2022 초청세미나 <포용사회와 변화> | 온라인 | 2022.03.21. |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 회센터 | 토론 | “돌봄과 복지가 농업과 만나는 네덜란드 케어팜” 주제 |
| 제33회 글로벌 액셀런스 세미나 | 한국 서울 | 2022.03.11.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사회 | ‘Translocal Relations of Climate Change’ 주제 |
| 2022 평창평화포럼 “평화, 지금 이곳에서!” | 한국 강원도 | 2022.02.23. | 강원도, 평창군, 한국국제협력단 | 발표 | [평화공공외교세션 1] ‘평창 평화정신’ 과 공공외교 세션 |
| 통일평화연구원-제주대 평화연구소-한반도 평화 국립대네트워크 공동학술회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 한국 제주도 | 2022.02.18.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 발표 | “한반도 SDGs 3차년도 연구: 젠더, 경제발전, 에너지, 식량” (‘한반도 평화와 SDGs’ 세션)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신청사 이전 기념 세미나 | 한국 서울 | 2022.01.13. |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 | 토론 |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 국제보건의 과제’ 주제 |
| 2021 Hanyang University IEAS Online Conference “From Engagement to Public Diplomacy: Enhancing ties between Korea and Africa” | 한국 (온라인) | 2021.11.05. |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 사회 |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2단계 선정 기념 학술대회 |
|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계약” | 한국 광주광 역시 | 2021.10.06. | 광주광역시,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유네스코,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국제협력단 | 토론 | [사전포럼2: 인권도시와 공공외교] ‘인권도시와 지자체 공공외교(도시외교) 현황과 과제’ 주제 |

- 국제학술회의: 발표 2회

- 국제학술회의명: 2022 Conferenc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Economics Associates (IDEAs) “Development Strategies in an Uncertain and Unequal World”
 - 장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기간: 2022년 8월 3일 ~ 8월 5일 (발표: 8월 4일)
 - 주관/주최: International Development Economics Associates (IDEAs)
 - 회의내용: 세계 저명학자들이 경제정책과 발전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모임인 IDEA(International Development Economic Associates) 학술회의에 초대되어 시의적절한 주제로 발표함.
 - 발표논문명: Governance Failure in Global Health Crises and Prospects of Collective Action for Resilience in Asia: In Search of Regional Health Security
 - 발표 논문의 우수성: 코로나 팬데믹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과 아시아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전망에 대해 분석함.

- 국제학술회의명: DSA Conference 2022 “Just Sustainable Futures in an Urbanising and Mobile World”
 - 장소: 영국(온라인)
 - 기간: 2022년 7월 6일 ~ 7월 8일 (발표: 7월 6일)
 - 주관/주최: The Development Studies Association (DSA)
 - 회의내용: 유서깊은 영국 개발학회인 DSA 연례학술회에 참석하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설계에 있어 중요한 지식생산을 주제로 한 패널에서 네덜란드 출신 학자와 공동연구한 논문을 발표함.
 - 패널명: P31a. Leaving, Living and Learning: Knowledge Production and its Impact on Designing Just Sustainable Futures
 - 발표논문명: Degrowth, Alternatives to Development and Non-Western Discourses: how Ubuntu and Dure can inspire us to pursue social justice and ecological integrity for a sustainable future (공동발표)
 - 발표 논문의 우수성: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우분투와 한국의 두레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탈성장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재의 대안적 자원을 창출하는 방안으로써 상정함. 이는 특히 개도국 입장에서 노동력과 원자재 등 자원의 불평등한 교환과 그에 따른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계의 파괴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는 글로벌 남반구에 있어 무한한 기회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발전의 대안에 대한 논의에 기여함.

(3) 박지환 교수: 국내학술회의 발표 1회

| 구분 | 학술회의명 | 장소 | 기간 | 주관/주최 | 역할 | 발표논문명 |
|----|---|-------------|--------------------------|--------------------|----|--------------------------------|
| 국내 | 변동하는 지역, 횡단하는 문화: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일본문화연구소 국제공동융합포럼 | 인천대학교 / 온라인 | 2022.01.20.- 2022.01.21. |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일본문화연구소 | 발표 | 지방청년의 지모토 지향: 학력과 젠더에 따른 내적 분화 |
| | 이 발표 논문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일본의 지방청년이 각자의 출신지역(지모토, 地元)에 대해 가지는 감정의 사회적 성격을 분석한 글이다. 지모토 지향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대도시 주변 지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탓에, 지모토의 지리적 범위와 그곳에서의 사회관계가 매우 협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반면, 지방 대졸 청년에게서는 지모토에 본인이 나고 자란 시에서부터 현재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이곳에서의 인간관계는 학교를 매개로 함으로써 넓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남성은 지역사회의 공적인 일(마을 만들기, 마츠리 등)에 참여함으로써 출신지역과의 관계를 구축한 반면, 여성은 사적인 일(결혼 등)을 계기로 출신지역과의 연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로써, 지모토 지향이라는 정동(affect)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학력과 젠더라는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이 발표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 | | | |

(4) 송지연 교수: 국내학술회의 발표 1회

| 구분 | 학술회의명 | 장소 | 기간 | 주관/주최 | 역할 | 발표논문명 |
|----|---|-----------------|-----------------------------|--------------------------|----|---------------------------------|
| 국내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 2022.06.28.- 2022.06.30. | 한국국제정치학회 | 발표 | 산업화, 세계화 그리고 탈산업화 시대의 국가와 노동 |
| | 국가와 노동의 관계를 산업화 시기 이후부터 현재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의 변화 흐름속에서 분석한 논문으로 국내외 정치경제적 변화 상황에서 국가, 노동, 자본의 동학을 살펴보았음. | | | | | |
| | 2022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초청세미나 <포용사회와 변화> | 온라인 | 2022.06.23. |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 사회센터 | 발표 |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동아시아의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 |

(5) 신성호 교수

- 국내학술회의: 발표 1회

| 구분 | 학술회의명 | 장소 | 기간 | 주관/주최 | 역할 | 발표논문명 |
|----|---|-----|------------------------------|----------|----|---|
| 국내 | 2021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공생의 세계질서를 위한 한국의 국제정치학” | 온라인 | 2021.12.10. - 2021.12.11. | 한국국제정치학회 | 발표 | “Biden Administration’ s Indo-Pacific Strategy and US-ROK relations” (‘[외교부①] 미국의 세계전략,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관계’ 세션) |

(6) 안재빈 교수

- 국내학술회의: 사회 1회

| 구분 | 학술회의명 | 장소 | 기간 | 주관/주최 | 역할 | 발표논문명 |
|----|--|----------------|-------------|--------|----|---|
| 국내 | 2022 Korean Economic Association 70 th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ference | 고려대학교 (온라인) | 2022.06.17. | 한국경제학회 | 사회 | Invited Session 7 (해외 우수연구자를 초청한 keynote session진행) |

- 국제학술지 관련 활동

| |
|---|
| <p>○ 국제저명 학술지명: The Korean Economic Revie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CI · 발행기관: 한국경제학회 · 활동: 공동편집위원장(coeditor) (http://www.kereview.or.kr/main/?skin=board_editor.htm) <p>○ 국제저명 학술지명: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PUS · 발행기관: 세종대학교 경제통합연구소 · 활동: 공동편집위원장(coeditor) (https://www.e-jei.org/about/editorial.php) <p>○ 국제저명 학술지명: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PUS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학회 · 활동: 편집위원(Associate editor) (https://www.tandfonline.com/action/journalInformation?show=editorialBoard&journalCode=riej20) |
|---|

(7) 오윤아 교수: 국내학술회의 발표 1회

| 구분 | 학술회의명 | 장소 | 기간 | 주관/주최 | 역할 | 발표논문명 |
|----|-------------------------------------|-------------|-------------|-------|----|--|
| 국내 | 2021년 아세안연구소 학술대회 “2021년 되돌아보는 미얀마” | 동아대학교 (온라인) | 2021.11.26. | 동아대학교 | 발표 | “미얀마 10년의 개혁 : 경제 분야 성과와 한계” (‘미얀마의 과거, 현재, 미래’ 세션) |

(8) 은기수 교수

- 국내학술대회: 사회 7회

| 구분 | 학술회의명 | 장소 | 기간 | 주관/주최 | 역할 | 발표논문명 |
|----|------------------------------------|-----|-------------|-------------------|----|---|
| 국내 | 2022 국제이주와포용사회 센터 초청세미나 <포용사회와 변화> | 온라인 | 2022.07.28. |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 사회 |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실패와 아시아의 회복탄력성 전망: 지역 보건안보의 모색” 주제 |
| | 2022 국제이주와포용사회 센터 초청세미나 <포용사회와 변화> | 온라인 | 2022.06.23. |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 사회 |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동아시아의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 주제 |
| | 2022 국제이주와포용사회 센터 기획세미나 <국제이주와 통합> | 온라인 | 2022.06.16. |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 사회 | “제3차 외국인정책의 성과와 제4차 외국인정책의 방향” 주제 |
| | 2022 국제이주와포용사회 센터 초청세미나 <포용사회와 변화> | 온라인 | 2022.05.31. |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 사회 | “한국 경제 대전환의 티핑 포인트” 주제 |
| | 2022 국제이주와포용사회 센터 기획세미나 <국제이주와 통합> | 온라인 | 2022.05.19. |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 사회 | “제한중국동포들의 처우 및 경험” 주제 |
| | 2022 국제이주와포용사회 센터 초청세미나 <포용사회와 변화> | 온라인 | 2022.04.28. |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 사회 | “요양시설 구강관리 매뉴얼과 현장의 온도차” 주제 |
| | 2022 국제이주와포용사회 센터 초청세미나 <포용사회와 변화> | 온라인 | 2022.03.21. |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 사회 | “돌봄과 복지가 농업과 만나는 네덜란드 케어팜” 주제 |
| | 2022 국제이주와포용사회 센터 기획세미나 <국제이주와 통합> | 온라인 | 2022.03.17. |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 사회 | “한국은 이주민과 ‘우리’ 가 될 수 있을까: 동아일보 ‘공존’ 시리즈가 남긴 것” 주제 |

(9) 이수형 교수

- 국내학술대회: 발표 2회, 기타학술회의 1회

| 구분 | 학술회의명 | 장소 | 기간 | 주관/주최 | 역할 | 발표논문명 |
|----|---|-----------|-------------|-------|----|---------------------|
| 국내 | 2021년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정책세미나 | 서울대 행정대학원 | 2021.11.25. | 서울대학교 | 발표 | 외국인 부동산 취득: 동향 및 함의 |
| | 본 연구는 법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보유한 행정정보를 결합하여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과 지표의 적절성을 점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분석 결과, 시기별·국적별로 투자 패턴과 동향이 이질적임을 확인하였으며, 각 지표의 국가별 설명력과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났으므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급증 현상을 파악 및 규제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매일경제,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의 매체에 해당 연구 내용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실리기도 했고, 2022년 주요 대 | | | | | |

| | | | | | | |
|---|-----------|-------------|--|-------------------------------|---|---|
| <p>선후보들의 정책캠프에서 해당 논문들의 본문 내용 공유를 요청해 제공한 바 있다. 해당 논문은 '22년 4월 KCI 등재 학술지인 한국법경제학회의 『법경제학연구』에 출판되었다.</p> | | | | | | |
| Korean Economic Association 7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ference | 고려대학교/온라인 | 2022.06.17. |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 발표 | Effects of Long Commute Time on Worker's Health: Evidence from a Large-scale Place-based Policy | |
| <p>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통근시간의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용미시 논문이며, 현재 SSCI급 저널에 투고하여 심사중이다. 세종시 건설과 함께 추진된 지방 이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은 여전히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출근함으로써, 통근 시간이 길어진 양상을 보임.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통근 시간이 하루에 최소 2시간이 소요될 경우, 개인의 병원 방문 횟수와 의료 지출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장기간 출퇴근으로 인하여 앓아 있는 시간이 증가하고, 운동량이 줄어든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p> | | | | | | |
| 기타 | 월례학술발표회 | 서울대 행정대학원 | 2022.02.18. |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발표 | Propose with a Rose? Signaling in Internet Dating Markets |
| <p>해당 논문은 실험경제학의 국제적인 대표 저널인 Experimental Economics에 출간된 논문으로 DGIST 교원을 중심으로 한 다학제 연구팀의 요청에 따라 강의식으로 발표하였다.</p> | | | | | | |

- 국제학술회의: 발표 1회

| | | | | | | |
|---|--|--|--|--|--|--|
| <p>○ 국제학술회의명: Asian and Australasian Society of Labour Economics 2021 Confere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온라인 · 기간: 2021년 12월 10일 · 주관/주최: Asian and Australasian Society of Labour Economics (AASLE) · 회의내용: 아시아 및 오스트랄라시아 학자들의 연구 및 세계 전 지역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AASLE 연례학술대회에 참여하여 발표함. · 발표논문명: Effects of Long Commute Time on Workers' Health: Evidence from a Large-scale Place-based Policy · 발표 논문의 우수성: 근무지 이전에 따른 통근시간에의 영향과 이로 인한 건강 및 건강보험제정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Asian and Australasian Society of Labour Economics(AASLE) 2021 Conference에 2021년 12월 10일 참여하여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다. Health and Labour Economics 세션에서 Effects of Long Commute Time on Workers' Health: Evidence from a Large-scale Place-based Policy 논문을 발표하였고, 논문발표 및 저명학자로부터 받은 feedback을 바탕으로 해당 논문은 현재 Labour Economics에 투고한 상태이다. | | | | | | |
|---|--|--|--|--|--|--|

(10) 정종호 교수: 국내학술회의 발표 1회

| 구분 | 학술회의명 | 장소 | 기간 | 주관/주최 | 역할 | 발표논문명 |
|----|---|-------------|-------------|--------------|----|--------------|
| 국내 | 한중 외교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2022.06.10.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발표 | 한중관계와 사회문화교류 |
| | <p>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년 동안 한중관계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본 연구는 먼저 지난 30년의 한중 양국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교류 현황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학생교류, 재중 한인 및 재한 중국인의 정착 등의 인적교류, 한류와 한풍의 등장으로 인한 문화컨텐츠 교류 현황, 학술교류 및 교육분야 교류, 언론 교류 등의 담론교류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를 회고한다. 또한, 동북공정, 문화귀속논쟁, 중국의 문화컨텐츠 보호정책과 중국 자본의 한국 문화시장 진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한한령의 등장 등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영역과 내용을 분석하며, 중국의 부상, 미중 갈등의 심화, 양국 젊은 세대의 상호 반감 심화 등의 한중 양국의 사회문화적 교류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검토한다. 끝으로 상술한 내용에 기반하여 미래 한중관계를 위한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p> | | | | | |

② 국제 공동연구 실적

1) <표 3-6> 최근 1년간 국제 공동연구 실적

| 연번 | 공동연구 참여자 | | 상대국 /소속기관 | 국제 공동연구 실적 |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
|----|------------|--|--|---|---|
| |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 국외 공동연구자 | | | |
| 1 | 신성호 | David Santoro | 미국 / Pacific Forum | “US-CHINA Mutual Vulnerability: A South Korean Perspective,” Issues & Insights Vol. 22, SR2 - US-China Mutual Vulnerability: Perspectives on the Debate | https://pacforum.org/publication/issues-insights-vol-22-sr2-us-china-mutual-vulnerability-perspectives-on-the-debate |
| 2 | 이수형 | Francisca M. Antman, Priti Kalsi | 미국 /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and IZ, 미국 /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 Gender norm conflict and marital outcomes: ‘비슷한 성 규범을 가진 파트너를 만날 확률이 적은 사람은 결혼할 확률이 낮다’ 는 가설을 바탕으로 성 규범을 둘러싼 남녀 갈등이 결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성 규범에 대한 남녀간의 의견이 서로 이질적일수록 결혼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은 높아진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본 논문은 2021년 12월 Journal of Demographic Economics 저널에 발표되었다. | DOI: https://doi.org/10.1017/dem.2021.7 |
| 3 | 이수형 | Han June Park, Sung-Gwang Lee, Jeong Suk Oh, Minhyuk Nam, Steven Barrett, Wontae Hwang | 한국 / 서울대학교, 미국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한국 / 서강대학교, 한국 / 서울대학교 | The effects of indoor temperature and humidity on local transmission of COVID-19 and how it relates to global trends: 본 연구는 전 세계 232개국의 빅데이터 분석, 유체역학 실험 및 시뮬레이션 등 공학과 경제학을 접목한 융합연구를 통해 실내 온도와 습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실내 온도는 코로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 비말 확산거리를 감소시켜 코로나19 전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적당수준의 실내습도를 유지시킴으로서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방역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논문은 2022년 8월 SCI급 국제저명학술지 『Plos One』에 발표되었다. | DOI: 10.1371/journal.pone.0271760 |

③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 **지속가능발전:** 김태균 교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 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NRISD) - 2021년 11월부터 “Connecting Inclusive Mechanisms for the Integrated Approach across Borders: KOICA’s Mine Action & Peace Village Projects in the Mekong Region” 주제로 서울대 국제대학원 4단계 BK21사업단 김보경 신진연구인력과 공동연구 수행중. 본 연구는 UNRISD와 한국국제협력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The Development-Environment-Peace Nexus in Borders and Borderlands (DEEPE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UNRISD 소속 연구원들 및 다양한 해외 석학들과 교류하며 연구중.

○ **민주적 거버넌스:** 박태균 교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 2022년 2학기부터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사이에 공동교과목을 개설하고 이후 겨울방학 중 자유베를린대학에서 해외연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 중임. 향후 중국연변대학교 융합대학원 한국학과의 공동강의(신청서상 공동교과목명: 동북아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전략), 태국 출라롱콘대학교와의 공동강의(신청서상 공동교과목명: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국제이주 연구)를 개설하고 이를 장기적인 국제공동연구로 발전시키고자 함.
- 2021년 11월 18일 Harvard University Korea Institute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Kim Koo Forum 콜로키엄(사회: _____ 하버드대 교수)에서 “Beyond the Revisionism: A New Interpretation to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eriod (1945-1948) through the Bertsch Documents in Harvard Yenching Library” 주제로 발표함. 하버드 옌칭 도서관 자료를 토대로 미군정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제시함.

○ **경제·사회정책:** 이수형 교수 (일반지역)

- 미국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소속 교수 등과 “The Effects of Indoor Temperature and Humidity on Local Transmission of COVID-19 and How it Relates to Global Trends” 주제로 수행한 공동연구가 SCI급 국제저명학술지에 발표됨.

○ **국제협력:** 신성호 교수 (동아시아 지역)

- 미-중 인도-태평양 지역질서 구축 경쟁과 한반도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RCEP에 대한 중국의 전략 및 향후 전망을 중국 산둥대 _____ 교수와 공동연구로 수행할 계획임. 인도-태평양 전략이 경제, 무역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것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추진하는 남북교류 및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연구임.

○ **기타:** 박태균 교수 (미주, 동아시아 지역)

- 산둥대 _____ 교수가 참여교수인 박태균 교수 추천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IIA)와 함께 2022년 9월부터 1년간 한국과 미국 문화 교류에 관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구체적인 주제는 “The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American Culture by South Korean Film Design” 로, 한국 영화에서 미국 문화가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 있어 국가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연구할 예정임.